



9

1995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5. 9호

(루계 575)



◆◆◆◆◆◆◆◆ 차 례 ◆◆◆◆◆◆◆◆

로동계급의 전형을 더 훌륭히 창조하자	4
나의 조국은 위대하여라	6
우리 수령님 돌아오셨다	7
그 유훈 총대로 지켜가리	8
나루터의 조약돌	9
이선남폭포	10
국기를 올리며	13
《애국가》의 선율을 두고	14
파도소리	16
태양은 빛나라	17
립장문제	26
영원히 비쳐주시네	27
복이 쌍으로 겹친 나라	27
나의 조국	28
서정시 《나의 조국》을 다시 읽으며	29
봄, 가을	33
글 읽는 소리	45
여기서 내가 산다	46

이삭은 속삭이네	48
평양의 숨결	49
행정경제위원회의 밤	55
병사의 고향소식	56
화선에 대한 이야기	61
꿈나라로 가거라	62
파도가 되어 물결이 되어	63
삶의 보람은 어디에	64
벗과 원쑤 (외 1 편).....	71
오늘의 《평양팔경》	72
미제의 야수적만행과 희극적정체를 신랄하게 폭로 규탄한 위력한 풍자적형상.....	75
한차지라도 더	78
잔디	79

로동계급의 전형을 더 훌륭히 창조하자

로동계급은 혁명의 령도계급이다.

오늘 우리 당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을 지니고 당의 위업을 앞장에서 받들어나가고있는 우리의 로동계급을 가지고있는 것을 더없는 자랑으로 여기고있으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로동계급의 혁명성을 따라배워나갈것을 호소하고있다.

여기에는 우리 로동계급을 언제나 혁명의 핵심부대, 주력부대로 굳게 믿어주시고 내세워주시며 그들을 본보기로 하여 지식인들을 비롯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시려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숭고한 뜻이 깃들어있다.

우리 작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로동계급의 전형을 훌륭히 창조하여 모든 사람들이 로동계급의 혁명성을 본받아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충효일심을 다바쳐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하도록 고무하고 이끌어 주어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은 수령을 언제나 마음의 기둥으로 굳게 믿고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 충신의 품도를 그리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의 기본품성이며 사회정치적생명체의 공고성을 담보하는 기본요인이다. 수령의 사상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며 수령과 생사고락을 같이해나가는데서 삶의 보람을 찾는 사람이라야 참된 충신의 전형으로 될수 있다.

우리의 사회주의위업은 본질에 있어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며 사회주의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전위투사도 바로 로동계급이다. 그러므로 우리 식 사회주의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 우리 문학은 응당 당과 수령의 위업수행에 끝없이 충직한 혁명의 령도계급인 로동계급의 전형적인 모습을 훌륭히 창조하는데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오늘 로동계급의 전형을 창조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우리 로동계급이 지니고있는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잘 형상하는것이다.

우리 로동계급은 당과 수령을 받드는 자세와 립장이 투철하고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강한 가장 혁명적인 계급이다.

오늘 우리 로동계급의 모든 사고와 실천은 어떻

게 하면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경애하는 장군님을 더 잘 받들어모시고 당의 사상과 령도에 끝없이 충실하겠는가 하는것으로 일관되어있다.

장편소설 《철의 신념》에서 감동깊이 형상된바와 같이 지난날 강선의 로동계급은 강철을 더 많이 생산하는것으로써 종파분자들의 책동을 짓뭇개버리며 아버지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여왔다.

바로 그때처럼 오늘날 모두가 성세가 되고 방패가 되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결사옹위하려는것은 우리 로동계급의 한결같은 신념이며 의지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우리 로동계급의 이러한 끝없는 충실성은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키려는 견결한 혁명정신과 결합되어있는것으로하여 더욱 숭고하고 아름다운것이다.

더우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계시어 오늘과 같은 로동계급의 세상이 있고 자신들의 보람찬 생활도 누릴수 있다는것을 우리 로동계급들은 자본주의가 복귀된 나라들에서 격고있는 노동자들의 비참한 처지를 보면서 심장으로 느끼고있다.

우리 로동계급은 당을 받들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는것을 누구보다도 사활적인 요구로 내세우고있으며 여기에 모든것을 복종시키고있다.

우리 당과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운명부터 먼저 생각하며 한마디의 말을 하고 한가지를 실천하여도 어떻게 하면 로동계급의 세상을 마련해준 당과 수령의 대해같은 은덕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겠는가하는 하나의 생각으로 가슴불태우고있는것이 우리 로동계급의 사상정신적품모이다.

우리는 로동계급의 전형을 창조함에 있어서 우리 로동계급의 심장속에 자리잡고있는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예술적으로 재현하는데 형상의 초점을 집중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우리 로동계급이 지닌 숭고한 사상정신적품모를 따라배워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며 우리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로동계급형상에서 중요한 문제는 또한 우리 로동계급이 지니고있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옹고 반영하는것이다.

우리 로동계급은 지난 시기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위업을 앞장에서 받들어온 자랑을 가지고있다.

해방후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건국의 불길을 지퍼 올리고 애국적증산경쟁운동으로 새 민주조선건설의 터전을 앞장에서 다져나간것도 우리 로동계급이

였고 가렬한 전쟁시기와 어려운 전후시기에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으로 전생애를 원만히 보장하고 천리마운동의 발단을 열어놓은것도 우리 로동계급이었다. 그리고 속도전의 불바람을 일으키며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하여 이 땅우에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운것도 우리 로동계급이었다.

장편소설 《너당원》과 《빈터우에서》에서 보는바와 같이 우리 로동계급들은 전후 재더미만 남은 빈터우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대항양수기를 만들어냈다. 소설에서 생동하게 보여주는바와 같이 전쟁의 시련을 겪은 우리에게는 로력도 자재도, 기술도, 자금도 없었다. 그러나 우리 로동계급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부닥치는 난관과 겹쌓이는 시련을 이겨내고 이 땅우에 공장을 일떠세우고 쇠물을 뽑고 기계를 만들어냈다.

우리 로동계급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이 곡절을 겪고있는 어려운 환경속에서 더욱 높이 발양되고있다.

지금 많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는것과 같은 엄혹한 현실이 조성되고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사회주의보루를 굳건히 지켜선 우리 나라에 대하여 고립, 압살, 봉쇄 책동을 계속 강화하고있는 준엄한 정세하에서 우리 로동계급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초소마다에는 우리 로동계급이 서있으며 그들의 심장마다에는 오늘날로락원의 정신, 강선의 정신이 맥박치고있다.

작가들은 조국과 혁명 앞에 지닌 무거운 사명감을 누구보다도 깊이 자각하고 혁명의 령도계급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는 우리 로동계급의 참모습을 문학작품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그들의 성격에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깊이있게 구현하여야 한다.

우리 로동계급은 난관이 앞을 막아도 신심을 잃는 일이 없고 과업이 아름답다고 하여 동요하거나 타산만 앞세우는 일이 없으며 오직 당이 요구하는대로 모든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 나간다.

이러한 로동계급의 형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로동계급이 지닌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본받아 우에서 대주면 좋고 안대주어도 자체의 힘으로 할수 있다는 혁명적립장을 가지고 자기가 맡은 과업을 제힘으로 끝까지 수행해낼수 있도록 힘있게 고무하여준다.

우리는 특히 당이 제시한 혁명적경제전략 관철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있는 부문들의 로동계급형상에 창작적관심을 돌림으로써 그들이 오늘의 총진군운동에서 투쟁의 기수,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가

되게 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전형을 창조함에 있어서 창작실천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성격을 잘 그리는것이다.

인간의 성격을 전형화하는데서는 개성화와 일반화의 요구를 옹계 해결하는것이 중요하다.

작가는 실지 있는 인물의 자료에서 깎을것은 깎고 돌굴것은 돌구면서 성격의 본질적특성이 두드러지게 살아나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 일부 로동계급의 형상을 창조한 작품들에서는 전형화의 요구를 옹계 구현하지 못하고 사말사적인 세부에 매력을 느끼는 편향이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로동계급이 지닌 성격의 본질적측면을 옹계 보여줄수 없게 된다. 일부 작품들에서는 또한 로동계급의 형상을 창조하면서 원형과 사실자료를 무시하고 작품전체를 허구적으로 꾸며내어 인물의 리상화와 형상의 비진실성을 초래하는 편향도 나타내고있다. 이것 역시 원형과 사실자료에 기초하여 전형화하는것을 원칙으로 삼고있는 우리 문학의 형상방법에 어긋나는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편향들을 극복하고 성격창조에서 전형화의 원칙을 옹계 구현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전형을 창조하는데서 중요한 창작실천적인 문제로 나서는것은 또한 인물의 개성적특성을 생동하게 그리는것이다.

인물형상에서 개성화가 전형화의 근본원칙으로 된다는것은 누구나 다 알고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작품들에서는 개성화의 요구가 잘 실현되지 않고있다. 어떤 작품을 보면 로동계급의 형상이 일밖에 모르는 인물로 단순화되거나 막대기같이 꼳꼳하고 메달라 산 인간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게 형상이 단조롭게 되고있다. 인물형상이 생기없으면 작품전체가 메마르게 된다.

문학의 인간성격은 작가자신이 새롭게 발견한것으로 되여야 한다. 주인공이 지닌 남다른 성격을 발견하지 못한 작가는 사실상 창작에 립할수 없다. 작가는 그야말로 매 작품에서 자기가 발견한 몫이라고 당당히 말할수 있는 새로운 성격을 들고나와야 한다.

로동계급의 전형창조에서 인물형상을 생동하게 하자면 그의 성격과 생활을 여러모에서 립체적으로 묘사하여야 한다. 우리 로동계급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있어서나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의 헌신적투쟁정신에 있어서 모든 계급의 모범일뿐아니라 문화정서적, 도덕윤리적 면에서도 본보기이다.

우리는 로동계급의 형상을 창조할 때에 그가 체현하고있는 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여러 각도에서 풍부히 그려줌으로써 인물형상의 생동성을 잘 보장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독자들에게 자기 혁명위업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 백절불굴의 투쟁정신과 함

게 풍부한 인간성을 체현한 시대의 본보기적형상을 안겨주어야 한다.

로동계급의 생활을 반영한 문학작품창작에서 중요한 문제는 작품의 구성을 잘 짜는것이다. 흔히 로동계급의 형상을 창조한 작품들을 놓고 그것이 생산소설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많이 논의되어왔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성격문학을 하지 못하는것이 근본요인이 되어 인간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생산문제를 정면에 제기하게 되는것과 같은 부족점에 기인하는것이지만 또한 작품의 구성을 잘 짜지 못하는데도 중요한 원인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작품의 구성조직은 사건보다 성격을 위주로 내세우고 작품의 구성을 성격발전의 력사로 되게 엮어나가는것을 넘두에 두고있다.

일부 로동계급의 생활을 반영한 작품들에 주인공의 성격발전이 없고 생산문제의 따분한 라렬과 그를 둘러싼 사건들만이 범람하는것은 작품의 구성을 성격발전의 력사로 잘 엮어나가지 못하는것과 중요하게 관련된다.

작품의 구성을 성격발전의 력사로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인물들의 호상관계와 성격발전과정이 그대로 이야기줄거리로 되도록 구성을 잘 꾸며야 한다. 작품에서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하는 등장인물들의 성격발전과정에 따라 이야기줄거리를 엮어 성격과 성격의 호상관계에 의하여 사건과 갈등, 일화가 생겨나고 발전하도록 구성을 짜야 한다.

로동계급의 형상을 창조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

는 또한 현시기 로동계급의 생활을 취급한 작품을 활발히 창작하는것이다.

오늘 우리 로동계급은 혁명의 령도계급답게 기둥이 되고 초석이 되어 우리 당을 앞장에서 받들어나가고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선봉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당의 령도따라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것이 우리 로동계급의 드팀없는 신념이며 의지이다.

우리는 준엄한 시련을 이겨내며 당과 수령의 부름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고있는 현시기 로동계급들의 투쟁모습을 반영한 작품을 활발히 창작하여야 한다. 성격형상을 전면적으로 보여주는 장중편형식의 작품과 함께 문학의 모든 형태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현시기 우리 로동계급의 생활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로동계급을 핵심으로 하는 인민대중을 믿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다.

우리는 로동계급의 전형적인 형상을 더 훌륭히 창조함으로써 위대한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령도자를 받드는 충직한 로동계급이 있으며 당과 혼연일체를 이루고있는 우리 인민이 있는 한 우리의 사회주의위업은 필승불패이라는것을 형상으로 힘있게 구가하여야 할것이다.

가 사

나의 조국은 위대하여라

석광희

어디에 서서 바라보며는
그대의 수려함을 다 볼것이나
어디에 가서 바라보며는
그대의 장엄함을 다 알것이나
아 **김정일**장군님 인도하시는
나의 조국은 위대하여라

푸르른 동해천리기슭을
해종일 걸어보면 다 볼것인가
풍요한 들판 천만나락을

가슴에 안아보면 다 알것인가
아 **김정일**장군님 인도하시는
나의 조국은 위대하여라

어디에 서서 어디를 보나
한없이 아름답고 강대한 나라
노래를 불러 찬양하기엔
내 심장 내 목소리 아직 작구나
아 **김정일**장군님 인도하시는
나의 조국은 위대하여라

우리 수령님 돌아오셨다

문성탁

한해전 영결의 그날
생존의 그 밝으신 미소로
백여리 연도에 따라나선
수억만 가슴을 울리시더니

하늘땅에 넘쳐나는
간절한 그 소망 안으시고
영생의 모습으로

《금수산기념궁전》에 돌아오신 수령님

예전과 다름없이
자신의 중임을
우리 최고사령관동지께 맡기시고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 다녀오신듯

조국과 인민 위해
그 어느 하루도 쉬임없이
한평생 로고를 다 바치시더니
인민의 간절한 그 청원
오늘에야 받아들이시고
잠시 누워 휴식하시는가

이 땅 그 누구에게나
궁궐같은 행복의 집 안겨주시고도
자신만은 이 소박한 집에서
오랜 세월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 이끌어오신 수령님

지금도
끝없는 사색 속에

시대와 역사를 빛내이시며
위대한 사업을 하고계신다!

이 땅 방방곡곡 대륙과 대양 넘어
수없이 찾아오는 사람들
그 하나하나 다 만나시여
귀중한 가르치심 주시고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신다

그 담대한 심장의 박동으로
주체의 피 누리의 한끝까지 뿜어주시며
지구를 끌어당기는 큰 호흡으로
소란한 세계정사를 바로잡으시며

온 우주를 태양의 빛발로 채우시고
하늘에 당도록 위업을 쌓으시건만
아직 못다 한 일 있으신듯
다가오는 새 세기의 노을 펼치시거니

만민의 축복속에 그이 돌아오셨다
온 세상이 우러르는 집
아 혁명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으로

억만년 세월이 가도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로
인류의 마음속에 친근할 우리 수령님
생존의 모습으로
영생의 모습으로 빛나신다!

(1995. 6. 28)

그 유훈 총대로 지켜가리

황명성

때로는 대회장의 높은 연단에서
때로는 현지도의 초소길에서
우리 수령님
그토록 간곡히 하신 말씀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를 잘 받들라!

그 유훈 날이 갈수록
심원한 사상과 뜻으로
병사의 넋을 흔들어 불태우며
내 심장 뜨겁게 울리나니

아버이수령님 생전에는
행복에 겨워 다 몰랐던것
오늘 수령님 안계시니
그 당부의 참뜻이
더 가슴에 파고드누나

피눈물을 쏟던 7월의 그날에도
우리 쓰러지지 않고 홀어지지 않은것은
그 유훈 가슴에 안고
위대한 최고사령관동지 두리에
하나로 더 굳게 뭉쳤기때문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최고사령관 그이를 잘 받드는
한생을 지켜갈 전사의 신념
죽어도 못버릴 전사의 의리

내 억세게 틀어잡은 총대에
불멸의 그 뜻 새겨안아

병사- 나의 총검은
영광스러운 당의 무장!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무장!

그때문에 오, 그때문에
내 열백밤을 전호에서 지새워도
수호의 눈동자 흐릴줄 모르고
훈련의 험한 령길 뚫아도
일당백용맹 솟구치는것이여라

최고사령관동지를 높이 받들고
그이의 령도를 따르는 길에
주체혁명무력의 백전백승이 있고
수령님 위업을 만대에 떨치는
혁명의 근본열쇠가 있거니

살아도 죽어도 내 오직
김정일 동지를 위함이라면
지뢰밭이 천리만리 앞에 놓여도
백두의 붉은기 높이 달려가리
육탄이 되어 진격의 돌파구를 열리

아, 천출위인이신 **김일성**대원수님
그이의 그 유훈 총대로 지켜갈
무적강군 천만병사의 심장속엔
영원한 충효의 퇴성 높이 울리어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이 되리라!

(1995. 6. 28)

나루터의 조약돌

강현만

집어들면
좁에도 차지 않을 작은 돌이건만
선뜻 집어들지 못하겠구나
포평나루터의 이 조약돌만은...

일흔해전 그날 우리 수령님
바로 이 나루터에 서시여
이런 조약돌 손에 집어드시고
비운에 잠긴 조국땅을 바라보시며
조국의 신음소리를 들으시였기에

가난과 불행에 고삭은 버짚추너
일제의 칼에 맞아 울며 무너져내리고
순박한 이 나라 백성들
사무라이들의 군화짝에 채워
길가의 조약돌마냥 나뒹굴던 그날

이런 조약돌마저 무심치 않아
소중한 그 무엇처럼 집어드시고
광복의 맹세를 이 가슴에 남기시고
험난한 혈전의 언덕길에 오르신
우리 수령님

위대한 한생을 추억하시며
붓을 드시고도
수십년전 10대의 그 시절
포평나루터에서 집어드셨던 그 작은 조약돌을
조국의 표적으로 안고가셨다고
뜨겁게 회고하셨으니

무심히 집어들지 못하겠구나
나라를 빼앗긴 탓에
세월의 풍파에 모마져 다 닳은 조약돌
모질게 짓밟히던 조국의 모습인양
심장속에 새기시던 그 뜻이 너무 커서

그날의 그 조약돌같아
삼가해지는 손길
조국앞에 다지는 새로운 맹세없인

선뜻 집어들수 없는
포평나루터의 조약돌이여

가볍게는 집어들지 못하겠구나
우리 수령님께서
피어린 혈전의 고비를 넘으실 때에도
마음속 깊은곳에
기어이 찾아야 할 조국의 무게로 간직하신
아, 사연깊은 압록강가의 조약돌

우리 수령님 그날
비분에 찬 가슴 누르시며
항일의 눈보라길에 오르실 땐
마음속에 이런 조약돌도 안고가시여
오, 광복의 봄빛 뿌리시며 오시던 그날엔
너와 나 우리모두가 안겨사는
크나큰 조국을 안고오셨나니

사람들이여
어버이수령님 령전에서
맹세의 가슴 두드리던 그 손들에
조약돌 움켜쥐고
압록강 푸른 물에
가슴속 신념을 닦고닦는 가슴들이여

소중히 간직하자
소중히 간직하자 이 조약돌
수령님 전사의 증표처럼
수령님 제자의 호신부처럼

작아도 무거운 이 조약돌
한생 마음속에 안고살면
죽어서도 조국을 버리지 않으리
마음속 깊은곳에 간직하면
어버이수령님 찾아주시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빛내가시는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을 위해
바쳐가는 힘과 지혜 진함을 모르리!

이선남폭포

묘향산 천태굴의 이선남폭포는 매우 유명한 폭포로서 지금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이 절승의 이선남폭포를 세상사람들은 알지 못하고있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신기한 경치에 도취되어 좀처럼 발길을 떼지 못하니 그 완전무결한 조화미는 예술의 극치라 아니할수 없다.

이런 경치를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찾아주셨으니 누구나 폭포앞에 서면 고마운 마음은 가슴마다에 어리어 경건히 그이를 우러르게 된다.

묘향산전설을 많이 알고있는 90이 넘는 한 로인은 경애하는 그이께서 찾아주신 이선남폭포를 보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이선남폭포야말로 우리 묘향산의 자랑이웨다. 내 한생 여기서 살아오면서 여직 이런 경치를 처음 보네다. 이 폭포는 필시 하늘나라 옥황상제가 아껴오던 그 경치가 분명하웨다. 옛날부터 옥황상제가 아껴오는 경치가 묘향산에 감추어져있다는 말이 전설로 내려오고있었는데 이 폭포가 분명하웨다.》

후날 그 로인은 묘향산에 탐승오는 사람들에게 친애하는 그이께서 찾아주신 이선남폭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흥미있는 전설을 들려주었다고 한다.

그 로인의 이야기를 그대로 아래에 소개한다.

옛날부터 하늘나라 옥황상제는 천하제일명산인 묘향산을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였다고 한다.

그가운데서도 옥황은 만폭동이 하도 아름다와 선경의 무릉도원이라고 하면서 노래 잘 부르고 춤잘 추는 마음착한 선녀들만 그리로 놀려 내려보내군하였다고 한다.

그래 선녀들은 묘향산 만폭동에 내려갔다는것을 제일 큰 기쁨으로 여기였다고 한다.

그런데 언젠가 선녀들은 옥황상제가 이곳보다 더 아름다운 경치를 남모르게 감추어두고 아끼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옥황은 여태까지 이것을 비밀에 붙여두고있었는데 그 경치를 관리하는 신선이 누구에겐가 잘못발설하여 선녀들의 귀에까지 들어갔다는것이였다.

(어디에 만폭동보다 더 아름다운 경치가 있을가?)

선녀들은 궁금하여 잠만 있으면 하늘나라에서 지상세계를 내려다보며 찾아보았으나 도저히 알아낼수가 없었다.

그러면 그럴수록 선녀들은 그곳을 찾고싶은 마음이 더욱 부글부글 피어올랐다.

그렇다고 엄한 옥황에게 감히 물어볼 엄두는 내지 못하고있었다.

그러는동안 세월은 퍼그나 흘러 점차 그에 대한 화제도 적어지고 선녀들의 호기심도 어느덧 한때의 헛소문처럼 가뭇없이 사라지고말았다.

사람들이 사는 땅세상에서는 그사이 여러차례의 동란이 일어났다.

그러더니 묘향산이 있는 맑은 아침의 나라에서 노래소리,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하늘에서 위인이 내려 도란에 빠진 이 나라 사람들을 구원하고 행복을 가져다준것이였다.

옥황상제는 놀라운 눈으로 묘향산을 굽어보고있었다.

맑은 아침의 나라에서 울려오는 노래소리, 웃음소리는 하늘나라의 음악소리보다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더 흥겨워지고 즐거워지는것이였다.

맑은 아침의 나라 사람들은 언제나 얼굴에 밝은 웃음을 담고 묘향산에서 즐거기를 좋아하였는데 그가운데서도 그들은 선녀들이 자주 내려와 노는 만폭동에 많이 찾아오군하였다.

그러자 지상의 인간들과 함께 놀수 없는 선녀들은 큰 걱정거리가 생겼다. 자기들이 내려가 놀자리가 없어졌기때문이였다.

선녀들은 인적이 없는 밤에만 잠깐 내려가 놀다가 올라가군하였다.

그러나 옥황상제는 조금도 싫어하는 기색이 없었다.

선녀들을 극진히 사랑하는 상제가 왜 그럴가? 하늘나라에서는 서로 수군거렸다.

상제의 생각은 달랐다.

수천년동안 도란에 빠져 헤매이며 고생하던 맑은 아침의 나라 사람들이 처음으로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것이 기뻐던것이다.

옥황은 만폭동을 아예 그들에게 넘겨주고싶었다.

어느날 옥황은 선관들과 함께 선녀들을 백옥루로 불렀다.

《오늘부터 저아래 맑은 아침의 나라 묘향산에 있는 만폭동을 우리 선경에서 떼내어 지상세계 인간들에게 줄터이니 그리 알지어다.》

옥황상제의 말에 모두 머리를 기웃거리며 술렁거리였다.

《그러나 과히 섭섭해하지를 말지어다. 여직껏 아껴오던 만폭동보다 더 아름다운 절승한 경치가 내게 있는즉 오늘부터 신선과 선녀들은 모두 거기 내

려가 즐기도록 하라.

그것은 묘향산 천태동에서 구슬같은 물이 쌍으로 흘러내리는 형제폭포인즉 모두 머리를 숙이고 저 아래를 내려다보라!》

옥황은 천태동 형제폭포를 향해 손을 두어번 휘저었다.

그러자 안개와 구름이 걷히면서 아름다운 경치가 드러났다.

《야!- 천하절승이로구나!》

모두 저도 모르게 환성을 질렀다. 파시 수천년 동안 아끼고 감춰들만한 희한한 경치였다.

선녀들은 몹시 기뻐다. 것처럼 안타깝게 찾던 경치를 옥황이 제 스스로 내놓으니 자기들의 소원이 너무 쉽게 풀려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이때부터 선녀들은 천태동 형제폭포에 내려가 놀게 되었다.

옥황은 묘향산의 모든 아름다운 경치를 인간세상에 넘겨준다 해도 이 천태동 형제폭포만은 절대로 내주지 않을 결심이었다.

그리하여 심산유곡에 깊이 감춰진 형제폭포는 오래동안 하늘나라 선녀들만 즐기는 놀이터로 되었다.

그러던 어느해 여름, 여기 묘향산으로 땅세상의 서쪽나라에서 한 등산가가 찾아왔다.

구름위에 높이 솟은 히말라야산과 알프스산을 등산해본 그는 조선의 묘향산이 아름답기 그지없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것이였다.

그는 상원동과 만폭동을 돌아보고 너무 아름다운 경치에 심취되어 열이 빠지고말았다.

(여기가 과연 지상세계가 맞을까? 내가 꿈을 꾸는건 아닐까?)

노상 이런 기분으로 묘향산의 여러곳을 돌아본 등산가는 어느날 천태동굴짜기로 오르기 시작하였다.

그의 행동을 줄곧 지켜보고있던 하늘나라 신관이 옥황상제앞에 급히 달려가 아뢰었다.

《옥황님, 저 서쪽나라 등산가라는 사람이 우리 하늘나라 선경인 천태동 형제폭포를 향해 오르고있나이다.》

《뵈이?》

옥황은 룡좌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서 빨리 속세의 그 등산가가 하늘나라 선경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조치할지어다.》

이윽고 한 신선이 옥황의 어명을 받고 천태굴을 향해 내려갔다.

신선은 묘향산을 지키는 호랑이를 불러 등산가가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는 상제의 어명을 전하였다.

호랑이는 알겠다는듯 머리를 주억거리더니 등산가를 마주 향해 천태동 굴짜기를 내려갔다.

《따-웅!》

호랑이는 등산가가 앞에 나타나자 시뻘건 입을

썩 벌리고 산이 드르륵 울리게 울부짖었다.

기겁한 등산가는 혼이 빠졌는지 그자리에 우뚝 굳어지고말았다.

다시 《따-웅!》 하고 소리지르자 이번엔 정신돌았는지 돌파서서 냇다 골짜기를 내려뛰기 시작하였다.

호랑이는 다시한번 앞발로 바위를 탕 치며 골안이 울리게 소리쳤다.

《따-웅!》

삼십륙계 줄행랑을 놓던 등산가는 그자리에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말았다.

그제야 호랑이는 옥황의 어명을 실행하였다는듯 하늘을 향해 몇번 고개를 주억거리더니 숲속으로 사라지고말았다.

등산가는 후에 정신을 차렸으나 다시는 산에 오를 녀를 못하고 제집으로 돌아가고말았다.

하늘나라에서는 형제폭포를 지켜낸 기쁨으로 모두 백옥루에 모여앉아 즐거운 연회를 베풀었다.

《여봐라, 하늘나라 선경인 천태동 형제폭포에 앞으로 속세의 인간은 그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것인즉 모두가 각별히 아끼고 사랑할지어다.》

신관들과 선남선녀들은 모두 옥황상제앞에서 머리를 조아리었다.

《예잇, 명심하겠나이다.》

하늘나라에서는 풍악이 울리고 선녀들의 아름다운 춤이 오래동안 계속되었다.

그후 하늘나라 선녀들은 무지개를 타고 형제폭포로 즐거이 오르내리었다.

그러던 어느해 봄날이였다.

하늘나라에서는 또다시 소동이 일어났다.

그것은 형제폭포를 관리하던 신선이 옥황앞에 달려와 숨을 헐떡거리며 급한 소식을 전하였기때문이었다.

얼마전에 묘향산에는 젊은 장수가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타났는데 지금 천태동으로 오르고있다는것이였다.

《그 장수가 나타나자 묘향산의 8만 4천메부리가 일시에 빛을 뿌리고 산천초목이 설레이며 맞이하는데 범상한 인간이 아닌줄 아옵니다. 지금 천태골로 향하고있사온데 분명히 형제폭포쪽으로 갈것같사온즉 옥황님께서 조처하여주옵소서》

상제는 별치 않은 일에 소란을 피운다는듯 입가에 가벼운 웃음을 담고 조용히 말하였다.

《뭘 그리 떠드느냐? 묘향산호랑이에게 나의 어명을 전하거라. 속세의 인간들로부터 하늘나라 선경인 형제폭포를 잘 보호할지어다.》

신선은 급히 묘향산으로 내려가 호랑이에게 상제의 분부를 전하였다.

호랑이는 금시 무슨 일이라도 났듯 앞발로 땅을 쿵쿵 치더니 천태골로 썩 달려내려갔다.

그런데 이 어인 일인가?

바람을 일구며 달려 내려가던 호랑이가 하비로보런대를 가까이 하더니 갑자기 툭 멈춰서서 얼어붙은듯 그자리에 꼼짝 않고있는것이였다.

하비로아근에서 가늠할수 없는 위엄이 풍겨와 호랑이의 발걸음을 붙드는것이였다. 그래서 안간힘을 쓰며 한발작 두발작 걸음을 떼려 하였으나 그러면 그럴수록 웬일인지 호랑이는 오히려 뒤걸음을 치는것이였다.

호랑이가 비실비실 뒤걸음을 치자 신선은 제가 직접 술법을 써서 젊은 장수의 앞길을 막으려고 하였다.

그는 석새풀과 잡관목으로 오솔길에 덤불이 뒤덮이게 하였다.

그러나 젊은 장수가 손으로 가볍게 덤불을 헤치자 숲속에 가리마같은 길이 나졌다.

《길이 꽤 험하군.》

젊은 장수는 태연히 덤불을 헤치며 천태골로 씩 엉썩엉 걸어올라갔다.

어느덧 그들은 천태동 석개울에 이르렀다.

이것을 내려다보고있던 옥황은 몹시 안절부절하였다.

옥황은 다른 신선을 급히 불렀다.

《그대는 묘향산 상원동에 내려가 룡연의 룡왕에게 나의 어명을 전하라. 룡왕은 자기의 모든 힘과 재주를 다해 형제폭포로 가는 길을 막을지어다.》

신선의 전갈을 받은 룡왕은 자기의 온갖 재주를 다 부렸다.

천태골 석개울에 바위를 굴러오고 절벽을 가져다가 진을 쳐놓아 형제폭포로 가는 길을 막아놓았다.》

그러자 젊은 장수와 부하들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면 그럴테지.》

룡왕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으시대였다.

땅세상을 내려다보고있던 옥황상제도 입가에 흐뭇한 웃음을 지었다.

이때 젊은 장수에게 한 부하가 아뢰는 말소리가 울리였다.

《길이 험하니 오늘은 이만 내려가심이 어떠하올런지요? 후일 저희들이 길을 찾은 다음 다시 모시겠으니 생각을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러자 젊은 장수의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울리였다.

《아닙니다. 아무리 길이 험해도 꼭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 인민들이 묘향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다 즐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길이 험해도 꼭 가야 합니다. 내가 이 길의 개척자가 될터이니 날 따라오시오.》

《뭘? 인민들을 위해서라구?》

옥황은 어안이 빙빙해졌다.

그러면 인민을 위해서 저 험한 길을 걷는단 말인가?

젊은 장수는 부하들의 앞장에 서서 바위등을 타고 넘고 개울을 건지며 절벽을 향해 마주 다가갔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룡왕이 가로막아놓았던 아슬한 절벽이 쨍-하고 소리를 내며 갈라지더니 그리로 길이 나지는것이였다.

옥황은 그제야 자기 잘못을 느끼였는지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나? 저분이 바로 하늘에서 내리신 위인이시구나. 하늘이 낸 성인을 속세의 인간과 가려보지 못하다니. 내가 망령이 들었구나.》

옥황의 목소리는 어쩐지 침통하게 울리였다.

그는 부랴부랴 서둘러 젊은 장수에게 바위도 밀어내고 덤불도 걷어내면서 길을 내드리였다. 뿐만 아니라 그 길에 두툼히 락엽도 깔고 꽃잎으로 주단처럼 문양도 새기였다.

그리하여 젊은 장수와 그 일행은 형제폭포에 이르게 되었다.

드디어 하늘나라 선경인 형제폭포는 지상세계사람들에게 자기의 자태를 드러내게 되었다.

참으로 형제폭포는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물사태에서 일어난 물바래에는 무지개가 비졌는데 한 다리는 멀리 하늘나라에 걸여놓고있었다.

금시 그 무지개를 타고 선녀들이 생황을 불며 날아내려오는듯싶었다.

병풍처럼 둘러선 절벽, 이끼오른 천연바위우에 기묘하게 서있는 소나무들, 물안개에 구슬같은 이슬이 맺혀 흐느적거리는 나무잎들 그리고 하늘중천에서 두줄기로 떨어지는 폭포는 보면 볼수록 절경이였다.

저기 안개에 휘감긴 구름우에 등실 떠있는 석가봉, 저기가 바로 하늘나라가 아닐가.

젊은 장수는 형제폭포의 아름다운 전경을 부감하고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얼마나 아름다운 폭포입니까? 우리 인민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경치를 주기 위해서는 천만리를 걸어도 힘들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와 놀았다고 하는데 이제부터는 우리 인민들이 찾아 즐길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민들이 선녀들이고 선남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 체일먼저 찾아온 선남들입니다. 저 폭포는 이선남폭포라고 할수 있습니다.》

젊은 장수의 우렁우렁한 목소리는 하늘땅을 울리였다.

하늘나라에서는 젊은 장수의 말을 듣고 옥황도 신선과 선녀들도 모두 머리를 끄덕이며 깊은 생각

에 잠기였다.

이때 한 신선이 옥황에게 제 생각을 아뢰었다.

《옥황님, 불로장생의 락토는 우리 하늘나라에 있는것이 아니라 저기 지상세계의 맑은 아침의 나라에 있사옵니다.》

옥황상제는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대 말이 옳다! 진짜 백옥경도 저 맑은 아침의 나라에 있었구나.》

하늘나라에서는 오래도록 우리 나라를 부러운 눈으로 내려다보고있었다.

그리하여 이선남쪽포는 인간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길 없는 험준한 산골짜기에 오르시여 이선남쪽포를 찾아주신 가슴뜨거운 이야기는 여러가지 전설들을 창조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옥황상제가 하늘나라 백옥경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깊숙이 간수하고 몹시 아껴왔다고 한다.

바로 그 경치가 형제폭포인데 친애하는 그이께서 묘향산을 세계의 명산으로 빛내여주시자 옥황이 감동되어 아껴오던 경치를 그이께 드렸다는것이다. 말하자면 이선남쪽포는 하늘이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 드린 선물인데 그것을 고스란히 우리 인민들에게 돌려주셨다는것이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위인이시니 그럴법한 말이다.

심산유곡에 깊숙이 숨어있던 절경을 우리 인민들이 누구나 볼수 있게 해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날을 따라 새라새로운 전설을 낳고있다.

국기를 올리며

한정규

기발을 올린다

9.9절 이 아침

꽃이 만발한 내 집 대문가에

안해와 함께

공화국기발을 높이 올린다

그 어떤 명절의 표적으로만

우리 이 기발을 올리지 않는다

우리의 녀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가 다 있는 기발

목숨으로 지키며 받들어갈

그 신념을 올린다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신

우리의 존엄과 긍지

그 기쁨을 하늘가에 펼친다

그 행복의 나래를 펼친다

밤새 기발을 다림질한

안해의 마음도

새 기발대를 다듬어 세운

내 마음도

우리의 운명이시고

우리의 조국이신

오직 한분 **김정일**장군님을

더 잘 받들어모실 마음

뜨겁게 담아 올리는 이 기발

비에의 그 여름날부터

우리의 장군님께서만은

더는 농사일때문에

곳은날 두렁길 걷지 않으시게 하리라

속깊은 눈물의 맹세를 다져온 우리겨늘

기발을 올린다

그 맹세를 담아

우리 새벽이면 더 일찍 깨어

풀거름 한짐이라도 더 내리라

우리 저녁이면 더 늦게 일터에서

김 한포기라도 더 잡으리라

넓은 벌을 꽃밭처럼 가꾸어

고랑이 메도록 이삭숲을 펼쳐놓고

해마다 가을이면

이 기발을 올리는 저 하늘가에

이 세상 풍년확이 다 모여 춤추게 하리라

하여 그이

풍년 가을날에 오시면

날알향기 차넘치고

농악소리 즐거운 벌에

우리 장군님 해빛같은 미소만을 지으시도록

그이께서 만족의 자욱만을 새기시도록 하

리니

아 9.9절 이 아침

천세만세 무궁토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풍년조국에 길이 모셔갈

이 나라 농민의 진정을 담아

국기를 올린다 맹세를 올린다

《애국가》의 선물을 두고

김원균

9월의 아침이다.

풍요한 계절을 맞은 이 나라의 맑고푸른 하늘가에 우리 조국의 영광과 존엄을 떨치며 람홍색공화국기가 힘차게 나뭇긴다. 그 기폭의 퍼덕임인양 애국가의 위용찬 선물이 또한 창창대공으로, 세계의 한끝으로 울려간다.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으로 영원히 빛날 우리 조국,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으로 찬란한 내 나라의 찬가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불러주는가. 그 선물을 타고 가슴뿌듯이 안겨지는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때마다 나는 지나온 나의 인생행로를 따라 떠오르고 한생의 음악창작생활로 돌이켜지는 류다른 감회에 잠겨군한다.

수난에 찌든 그 세월에도 예술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던 일이며 진정한 음악가로 된 희열속에서 창작으로 모대기고 기쁨에 들뜨던 그런 추억들이 때없이 엇갈리며 안겨든다.

우리 인민 누구나 그렇듯이 나의 설움 많고 감심도 큰 그 회억들도 어느것이나 조국에 비쳐져있다. 하기에 내가 안겨 고귀한 삶을 누려온 고마운 품에 대하여 더욱 뜨겁게 생각하게 되는것 같다.

조국의 귀중함을 새삼스럽게 느낄 때마다 수백편이나 되는 창작곡들 중에서 의례히 《애국가》의 선물이 먼저 떠오른다.

우리 수령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길이 모시고 내 나라의 9.9절을 맞는 이 아침엔 아버지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애국가》의 선물과 함께 사무치게 어려오며 반세기전 그날이 다시금 눈앞에 그려진다.

해방의 기쁨으로 강산이 설레고 어디서나 노래소리로 잠들줄 모르던 새조국 건설의 나날이었다.

인민이 주인된 새 나라를 세우시려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가시던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앞으로 창건될 우리 공화국의 국가를 창작하도록 하는 사업에도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였다. 몸소 작가들을 부르시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새 조선의 노래에 인민의 감정과 정서, 지향이 비끼고 우리 나라의 전모가 담기도록 이끌어주시였다.

1947년 5월 하순경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우리 작가가들은 작가들의 창작열의에 맞추어 《애국가》의 곡을 창작하는 사업에 달라붙었다.

영광스럽게도 나도 그들과 한사람이 되였다. 당시 만민의 심장에 영원히 새겨질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창작한 무상의 영광을 지

니고있던 내가 또다시 존엄있는 우리 조국의 국가를 창작할수 있게 되었으니 그때의 심정을 어떻게 다 표현할수 있었으랴. 기쁨과 흥분으로 가슴벅차 올랐다. 자신이 꼭 꿈속에 있는것만 같았다.

해방전 왜놈들의 천대와 멸시 속에서 뜨내기로 살아오던 나에게 꿈으로 간직했던 예술창조의 길이 열린것만도 행복이었고 더 바랄것 없었다.

짜이었던지, 그때는 그림도 그리고싶고 노래도 짓고싶었다. 다재는 무재라지만 나는 예술이라먼 어느것도 스치고싶지 않았다. 그래서 광산로동을 할 때나 평양의 어느 철공소에서 견습공노릇을 할 때도 간판공, 도장공이 되어 붓을 잡아보기도 하고 원산과 함흥, 여기저기로 음과 곡을 익히자고 귀동냥을 다니기도 했다. 허나 나라없는 백성으로 풍강쟁이신세조차 되어보지 못했던 나같은 인생에게 예술은 한갓 꿈속에서만 있었고 오히려 그것이 설움에 설움을 낳았다. 《뽕쟁이》, 《땀쟁이》라는 부름이 곧 내 이름이었고 하루하루의 끼니를 마련하는것이 더 큰 근심이였다.

초로인생으로 피기도전에 시들번한 그 생을 이토록 값있게 여겨주고 내세워주는 조국, 삶의 영원한 품을 노래에 담자고 나는 여러 작곡가들과 함께 오선지를 부여잡고 밤낮을 잊었다. 새 생활을 맞은 청춘의 기쁨은 열정을 주었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선물을 끊임없이 퍼올려주었다. 갓 서른의 흥안시절이라 흥분은 컸고 지칠줄도 몰랐다.

과연 어떤 곡이여야 할가. 선물을 고르고 사색을 모으며 창작의 날은 흘러갔다. 나라없는 설움이 찼던 이 나라에 넘쳐나는 저 활기넘친 생활이며 이 제도를 받들어가려는 인민의 열의도 담고싶고 아름다운 조국산천도 노래하고싶고...

나의 생각은 연해연줄 가지를 쳤으나 폭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음을 도무지 고를수 없었다.

주인된 기쁨, 차례진 행복으로 진정되지 않는 마음은 현상과 피상에만 눈을 가게 했던것이다.

나의 모대김은 컸다. 며칠을 몸부림치던 나는 애국가 창작과 관련하여 작가들에게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접하게 되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이날 하루빨리 애국가를 창작하여야 한다시며 참으로 아름다운 우리 나라와 반만년의 오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슬기로운 인민에 대하여 그리고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15성상 영웅적으로 싸운 항일유격대원들과 자기 손에 정권을 들어쥐고 부강한 새 조국

을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는 근로인민들에 대하여 감명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은 그대로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담긴 노래의 선물이였다.

자자구구를 새길수록 조국과 민족에 대한 새로운 느낌이 들었고 여직껏 해매이던 사색의 바다에서 착상의 실머리가 떠오르는것 같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렇게 아름다운 조국과 슬기로운 투쟁전통을 가진 조선인민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노래에 담아야 합니다. 인민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 자기 조국에 대한 애국심이 더욱 솟아날것입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아름다운 조국과 슬기로운 투쟁전통을 가진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노래에 담아야 명실공히 우리 조국에 대한 찬가로 될수 있으며 인민들에게 조국애도 불러일으킬수 있다.

그렇다. 나에겐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의 감정으로 심장이 뚫지 못했다. 우리 인민의 오늘을 어제날의 력사속에서 슬기롭게 그려내는것, 바로 여기에 인민의 슬기와 깊은 정서를 표현하는 길이 있다.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 심장을 태우자. 우리 조국의 력사, 우리의 현실, 우리 인민의 체험을 생각하자. 뜨거운 애국심으로 선물을 고르자. 나는 목가적이었던 사색의 울타리를 터치고 상상의 나래를 달아 현실로 들어갔다.

어제날에는 한숨지며 바라보던 을밀대의 축대며 련광정의 봄풍경이 반만년 이 나라의 력사가 어린 이채로운 감흥속에 안겨오고 그럴수록 힘과 자량이 넘쳐나는것이였다. 나는 모란봉으로, 대동강 기슭으로 사색을 굴리며 걷고 또 걸었다.

애국가의 선물은 폭과 깊이가 있어야 한다. 아름답고 우아할뿐아니라 장엄하고 내재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

형상의 실머리를 안겨준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외워가던 어느날 번개치듯 떠오르는것이 있었다. 나는 오르던 모란봉의 돌계단에 그대로 뚫어앉아 오선지를 펴놓았다.

아침은 빛나라 이 강산
은금에 자원도 가득한
...

은몸이 찌릿해왔다. 환희로운 감정, 걱정이 솟구쳐 올랐다.

(이거다! 이것이 이 나라의 력사며 변천된 오늘 의 현실 부강번영할 내 조국의 메아리다.)

나는 떠오르는 선물을 줄줄이 되받아 외우며 그대로 펜을 달렸다. 저도 모르게 승연한 걱정애 잠긴

나는 단숨에 끝을 맺은 펜을 든채 들끓는 평양의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며 서있었다.

일필휘지로 써나간 그 곡이 그대로 지금처럼 완성되어 장엄하게 울리게 될줄이야.

어버이수령님의 스승의 손길은 미숙하게 창작되였던 나의 이 곡에 뜨겁게 비쳐졌다.

1947년 6월 애국가창작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몸소 시청회를 조직하시고 바쁘신 시간을 내시여 창작된 곡들을 하나하나 들어주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선택된 두곡중 내가 쓴 곡이 더 장중하고 좋다고 하시면서 그것을 우리 나라의 《애국가》로 부르도록 크나큰 영광을 베풀어주시였다.

노래의 가사 한구절 한구절을 짚어가시며 세심한 지도를 주시던 그이께서는 노래의 후반부인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이라는 시행부터는 반복해 부르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나라는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유구한 력사를 가진 나라인데 어떻게 한번만 부를수 있겠는가고 하시면서 그것은 너무도 단조롭다고 다시한번 부르면 선물로 보아서도 더 효과적이고 음악상 조화도 잘 될뿐아니라 노래도 한결 장중해지고 부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민족적 긍지감과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고 선견지명의 예지로 곡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찾아내시여 완성시켜주시였다.

그때 사업상용무로 그 영광의 자리에 참가하지 못하고있던 나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베푸신 그 은정넘친 말씀을 전해듣고 감격에 목메여 그이께서 계시는곳을 우러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었다.

애국가의 선물은 이렇게 어버이수령님의 세심한 지도와 가르치심 속에서 명곡으로 완성될수 있었다.

그로부터 얼마후 인민이 주인된 나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이 온 세상에 선포되였다.

공화국기가 날리고 우리의 애국가가 지구의 곳곳으로 울려 퍼졌다.

그 선물은 세세년년 질곡과 몽매, 가난과 무권리속에서 짓눌려살던 이 나라 인민들의 운명에 종지부를 찍고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세상에 출현한 우리 인민의 기개를 담은 력사의 선언이였다. 또한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주신 내 나라에서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자랑하는 슬기로운 인민의 영광을 대를 이어 전하며 몸과 마음 다 바쳐 조선을 빛내가려는 인민의 철석같은 맹세였다.

그날에 이어 세월은 멀리 흘러왔다.

주체조선의 기상을 담아 끝없이 울려온 애국가와 더불어 우리 조국은 그 얼마나 자랑찬 길을 걸어왔는가.

나도 조국의 품속에서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끊임없는 사랑만을 받으며 값높은 삶을 누려오고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작곡가로서 크게 성공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곤한다. 나의 창작성과를 두고 하는 부러움인것 같다.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하곤한다.

내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나 《애국가》와 같은 불멸의 노래들을 창작할수 있는것은 결코 나의 재능에 의한것이 아니다. 희세의 위인, 하늘이 내신 위대한 수령님을 맞이한 이 나라, 우리 민족의 영광이 아니었다면 어찌 그렇듯 영원불멸할 혁명송가, 조국찬가가 나올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 인민은 세기를 이어 불멸할 이 노래들

을 높이 부르며 더욱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우리 조국은 영원히 존엄있는 **김일성**민족이 사는 궁지높은 나라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밑에 날을 따라 더욱더 통성변영하는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로 자자손손빛날것이다.

나는 남다른 행복을 지닌 작곡가로서 애국가를 창작하던 그날의 심정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위대한 수령님의 제자답게 이 자랑스런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한 음악창작활동에 생의 끝까지 바쳐갈것이다.

파도소리

주광남

잊지 못할 사연 깃든 기슭이어서
파도는 끝없이 달려와 안기는가
뜻깊은 자욱 새겨진곳이어서
은모래 금모래 쓸고쓸어 다듬는가

귀기울이면
삐걱거리던 쪽배의 노대소리도 들려오고
그리운 마음의 문 조용히 열면
어머님의 다정하신 음성 울리어오는
파도소리 파도소리...

먼 세월 흘러 지난 오늘에도
그려보는 새 세대의 이 가슴에도
걱정의 물결 뒤설레거니
얼마나 큰감격에 들먹였으랴
꿈같기도 이 기슭에서
항일의 녀성영웅을 직접 만나뵈온
소박한 그날의 어부는

잔물에 절고 비린내 났 손을
꼭 잡아 끌어주시며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고
쪽배안의 고기무지 헤아려보시고는
밤새 수고를 많이 했다고

송구스러워 몸둘바 몰라하는 어부에게
김정숙어머님 웃으시며 하신 말씀
이제는 인민들이 나라의 주인이니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
인민들에게 보내주자고
어로공들은 인민의 복무자라고...

아, 생활의 밑바닥을 헤메이던 인생

쪽배이자 칠성판에
사자밥메고 떠실려다닐 때
들어나 보았던가
인민, 인민이란 말
게다가 인민의 복무자라는 말

기껏해야 제 한목숨
제 한집 살림만을 생각하던
물때에 짚은 그 가슴에
이러히도 벽차게 안겨주시는것인가
인민생활-그 큰것을
인민의 복무자- 그 높은것을!

철썩-쳐철썩...
사연깊어 파도는 오늘도 전하는가
보답의 결심인양 노대를 짊어쥐며
걱정에 목메이던 그 흐느낌소리
기슭에 아롱지는 물구슬인양
사나이 얼굴에 방울지던 감격의 그 눈물

전하여 주네 전하여 주네
만선기 날리며 방금 부두에 댈
산악같은 우리 배전에도
희열에 넘쳐 옷깃 열어젖힌
어로공들 가슴에도
철썩이며 철썩이며 가슴을 울리는 파도소리

뜻깊으신 그날의 어머니 말씀
감격에 젖던 어부의 흐느낌소리
잊지 말라고 잊지 말라고
기슭을 치네 가슴을 치네
아 파도소리, 파도소리...

태양은 빛나라

김영길

1

떠돌던 먼지알갱이들이 뭉쳐
지구가 되어 돌고
료원한 무생물대에서
생명체가 기원하여 수십억년-

광대한 그 우주에서
수백만년의 장구한 력사에서
인류가 처음으로 당한
슬픔의 낮
통곡의 밤

지구가 깨어져
다시 흩어졌다 해도
태양이 떨어져
빛을 잃었다 해도
믿으라면 믿었을것을
믿지 못해
어버이수령님 가셨다는
청천벽력의 비보만은!

오, 력사에 오지 말았어야 할
1994년 7월 8일
하늘도 눈물의 소나기를 더쳤던
새벽 2시-
눈물의 그밤이여

온 민족이 최대의 상실을 당하여
조상고유의 풍습으로
상제의 검은 옷차림 하고
녀인들은 흰땀기 드리우고
가슴치며 땅을 치며 울며 맞고 보내던
그 낮과 밤...

젖는것은 눈물인지 색감인지
붓끝에 알릴듯말듯 미세하게 살아오는
생의 맥박
찌르르- 가슴에 닿아
떨리는 손길 애써 진정하는
초상미술가 김민

내가 지금
어떤 화포앞에 서있는것인가
그리고 상실의 아픔이 크신 장군님께

다소나마 위안을 드리고싶은 전사의 진정
그 진심으로 붓을 들고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을 형상하고자
슬픔을 누르며 일어선 그였건만

어버이수령님을 마음속에 그려볼수록
슬픔은 더더욱 치밀고
눈물이 앞을 가려
색감도 헛갈려지고
슬픔을 이기기엔
당한 아픔이 너무도 컸으니

어이하라
하루낮
하루밤이 지새고
새벽도 가까워오는데
형상의 초점을 잃은듯
붓을 들었다가는 내리고
다시 화포에 대려다가는 때고...

지혜가 못가닿아서인가
재능의 한계인가
세계적인 명화들은
여러점 출품할 때도 물렸던 진통속에
모지름을 쓰며
향방을 못찾는 붓
정지된 화면

아, 미술적천재들의 재능이 끝난
그 극한점너머
불멸의 영상은 빛나고있는것인가
그렇다면 이 나라에
화가라 이름가진 사람들은
력사와 인민 앞에
무슨 실망을 남겨야 하는가

비분에 놀리운
리성을 가까스로 떠올리며
오늘까지 쌓아온 지식의 문도 열어본다
장구한 인류미술사의
갈피갈피를 번져본다
세월의 기억속에 퇴색하여진
초상미술사의 먼지를 털며...

원인들이 막대끝으로

땅에 물고기의 형태를 처음 그려
첫 화공술을 띄웠다는
고대 바빌로니아의 옛 사원들에도
무릇 제왕들의 화상이 얼룩져있는
지하궁성 피라미드들에도
후세에 이름할
그 어떤 초상벽화도 그려져있지 않다

한때 문예부흥기를 떠들던
안개낀 그 대륙의
제노라던 각양각색의 화필들
력사에 자취를 남겼다는
못위인들의 초상
어떤 모색으로 담았던가...

아니였다
초상미술사의 어느 갈피에서
본을 취한다는것은
내 삶의 은인이시며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창건자, 건설자이시고
민족의 어버이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우리 수령님이 아니신가...

형상의 초점을 어디에 찍을것인가
세상 어느 위인파도 견줄수 없는
전세후세에 유일무이한 위대한분이신데
만민이 우러르는 인류의 태양
자애로운 인민의 수령이신데
응당 그 인품과 덕망이
승엄한 그 높이에서 형상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슬픔과 고민
좌절감에 맥을 잃고
모대김을 이기자고 움쭉 일어서던 그
그만에야 핏-
정신이 아찔하여
손에서 화필을 떨구며
모로 쓰러진다

-아니?!...
김민동무-
미술가선생-

경악하여 웨치는
다급한 부름소리
서둘러 그를 안고 들뛰며
복도를 내닫는 소리
에워싸며 붙이며 따라서는
불안서린 눈길들...

이윽히 시간은 얼마나 흘렀는가
타는듯 마른 김민의 입가에
누군가 추겨주는
시원한 약수
앞상에는 청신함이 서리는 산해진미
향기 짙은 과일들

-아, 김민동무 정신을 차렸구만
기뻐하는 당중앙위원회의 일군
-자, 어서 이 음식들로
원기를 회복하고
다시 시작해야지...
-그런데 이 음식상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미술가동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고
이틀 밤낮을
창작현장에서 강도높은 전투를 벌리느라
허탈상태에 빠진것 같다고

자신께서 이제 곧
무엇을 좀 보내겠으니
그의 원기를 돌려주어
힘을 내도록 하라고
뜨겁게 이르시였습니다

-아니 그럼...
최고사령관동지께서...
흐흐흑-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동무의 창작적고충도 깊이 헤아리시고
그 타결방도를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아 정녕
어버이수령님을 잃고
가장 큰 아픔을 당한분 누구이시며
견줄데 없는 상실의 아픔
절통한 비애
위로해줄 사람 누구들인가

자책의 마음 누를길 없어
하염없이 젖어내리는 두볼을 감싸안고
자기 수령의 불멸의 위업을 칭송하여
위대한 그 삶과
사상의 영원을 위하여 바치신
전설같은 이야기들
김민은 꿈속에서처럼 듣고있어라

무겁게 조기 드리운
금수산의사당
수령님 고이 잠드신 령구앞에서
나날을 이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심중에는
생각이 깊으시었다

바닥없는 저 눈물의 바다에서
슬픔의 포도석에서
이 인민을 어떻게 안아일으킬것인가
이 조선을 무슨 힘으로 다시 일떠세워
힘찬 걸음 내딛게 할것인가

당과 정부의 간부들
로투사들과 유자녀들
외교단들...
온종일 꼬박 호상으로
맞고 보내시는 속에서도
누구도 못미치는 사색을 이어가신다
순간의 찰도 없이
시간을 앞질러

하늘이 울고 땅도 우는 낮과 밤
비발에 화환이 젖을가봐
웃웃마저 다 벗어쓰우며
수령님을 추모하여 동상을 찾고 또 찾는
이 나라 인민의 충효의 세계도 헤아리시며

영결식은 어떻게 하며
령구차와 연도의 구간문제...
그리고는 당일예 모실
초상화에 생각을 모으신다
어떤 초상화를 새로 형상해야
인민은 수령님의 영생을 믿고
힘과 용기를 되찾을것인가

밤깊도록 그침없이 들려오는
조객들의 피울음소리속에
수령님을 못잊어
애타게 부르며 그리는 마음
가슴에 새겨안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

그리움에 젖은 그 눈동자마다에서
눈물을 가져주고 기쁨을 담아줄
수령님의 모습을 찾아
이밤도 지새이신다
머나먼 혁명의 길에 수령님 남기신
수백수천의 사진원본자료들에서
이윽도록 시선을 못떼신다

한장 또 한장
번지시는 사진들속에
수령님의 한생이 되살아오는가
타향에서 봄을 맞으시며
지으시던 그 미소
해방후 토지개혁 밭머리에서
환히 빛나시던 그 영상

떠오르신다
생시인듯 보여오신다
전쟁을 이긴 그날
축포오르는 승리의 언덕에서
높이 손흔들어주시는 모습
새 교복 타입은 연풍땅의 아이들속에
환호하는 검덕의 녀인들속에
둘러싸이시여
밝게 웃으시는 모습

백장
또 몇백장...
끝없이 옮겨가시던 그이의 눈빛
문득
크지 않은 한장의 사진에
못박힌듯 굳어지신다

금시
마음속 짙은 슬픔의 그늘을
건뚫 가셔주시는듯
창가에 무겁게 드리운
어둠도 다 밝혀주시는듯
옆으로 조금 비껴보시는 영상
대만족하여 밝게 지으시는 미소

언제 어디에서 남기셨던
사진자료인가
생각은 번개처럼
수령님 찾고 또 찾으시였던
력사의 지점과 나날들을
더듬으시던 그이

언뜻 눈가에
한줄기 기쁨의 빛이 번쩍 비끼더니
위대한 그 무엇을 발견하신듯
흥분을 억제하지 못하시며
서둘러 일군들을 곁으로 부르시여라

-영결식연도에 모시고 나갈
수령님 초상화문제때문에
동무들을 불렀습니다

이 사진력사자료를 좀 보시오
이 사진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인
완공된 서해갑문을 부감하시며
대만족의 기쁨을 안으신 모습입니다

현명성 락관성 자애성...
우리 수령님의 전형적성격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포착되어있습니다
위대성의 총체가 비껴있는
이 원본자료를 기초로 하여
초상화를 새로
형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 아직은 그 누구도
영결식에 모실 초상화문제에는
생각도 못미쳐
놀라움뿐인데
조용히 창문결으로 다가가시어
밤누리에 서린
슬픈 곡성을 새겨안으시는 그이

-우리 인민은 지금
수령님께서 가셨다는것을
믿으려 하지 않고있습니다
수령님은 영원히
인민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며
행복과 미래를 꽃피워주시는
인간사랑의 화신
만민의 태양이십니다

온 누리가 환하도록
먼 세기가 다 비치도록
반면에 미소 지으시는
빛나는 태양상을 형상하여야 합니다

아직 세계초상미술사에 없는
이 어려운 과업을
나는 우리의 재능있는 창작가들이
꼭 해내리라고 믿습니다
김민동무를 비롯한 그곳 창작집단에
나의 이 의도를 전하도록 하시오

아, 정해진 궤도를 따라돌며
제돌이하는 지구
또 한돌기 감겨지는 자리길 위에
세상이 모르는
력사의 사변을 기록하며
7월 10일의 밤은
이렇게 흘러왔으니

먹구름 두렵던
마음속 하늘이 락 트이는듯

천길땅속도 꿰뚫는 그 예지
비범한 그 통찰력앞에
경탄을 금치 못하며
잠시 굳어졌던 화폭앞에
김민은 신심에 넘쳐 다가서라

가슴에 가득 서린 피설음을 가져줄
태양의 모습
먼저 그려올릴 사람 누구들인데
착상한분 그 님이시며
형상방도도 다 밝혀주신분 님이신가

그이는
안으신 모진 슬픔
가슴깊이 누르시고
인민의 힘과 용기를 안아올리시는
주체위업의 충실한 계승자
김일성민족의 운명
사회주의조국의 생명

이 지구우에
주체적인 문예부흥의 대전성기를 펼치신
문학과 예술의
비범한 천재
예지로온 만재
위대한 **김정일**동지

관습으로 굳어진
초상화기법의 종전관례에서
대담하게 벗어나야 한다고
영상을 위주로
비례관계를 설정하여
앞으로 쏙 당겨와보라고
창작적고충도 깊이 헤아리시고
그 타결방도까지 환히 밝혀주신
그이의 믿음과 예지의 빛발이
불사의 힘이 되어 온몸에 뻗쳐라

룩!- 쏙!-
단필로 그어가는 붓
대담한 그 필치앞에
미묘한 조화를 이루며
살아 움직이는 색깔
방금 눈앞에 다가와서신듯
태양의 빛발 어려 환히 피어나는 미소...

아, 하염없이 샘솟는 눈물을
닦으며 머금으며
심장으로 받들어올린 태양의 초상이여!
만면에 환한 웃음 지으시는
그 한순간에
위대성의 총체가 포착되어 비낀

불멸할 영생의 모습이어!

숨죽이고 소리없이 다가서는
일군들 창작가들 군중들
뜨거이 우러르는 눈가마다
기쁨의 눈물이 잔물결쳐라
마음속에 후-
안도의 숨결이 흘러라

3

7월의 한가위도 중낮
폭양은 내려쬘어
금수산의사당 앞마당을
불판으로 달구는데
풍겨 서리는 고열이
진땀을 교란지으며 등골을 지지는데

수령님께서 생시에
외국의 수반들을 맞으시던 곳
열광의 환호가 흐르는
연도행사에 나서실 때 타시던
그 승용차우에
숙연한 손길들 서두르며
수령님의 새 초상화를 모신다

높이도 조절하고
바람 세기도 가늠해가는
일손도 채 끝나지 않았는데
일군들의 도촬보고를 받으신 장군님
조의식장에서 나오시여
이리로 걸어오신다

순간 김민은
가슴이 저리었다
얼마나 큰 상실의 아픔을 당하시었으면
저리도 수척해지셨을가
예민한 미술가의 눈길로도
자칫 착각할만한
극도의 피로가 내배인 모습

한걸음 두걸음-
천천히 초상화앞으로 다가가신 그이
숨얼한 자세로 마주서시여
청명경이 지나도록
움직이지도 않으시고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

어찌된 일인가
심원하신 의도를 못따라서인가
꿈인듯 생시인듯
밝게 웃으시며 맞아주시는 수령님

다시 몸가까이에서
뵈옵는듯싶어서인가

가슴 조이며 지켜보는 눈길들은 초조한데
남모를 그리움의 감회속을 걸으시듯
승용차앞으로
바투 다가서시는 그이
화면을 유심히 살펴도 보시고
저만치 뒤로 비켜서시여
여저도 보시고

차를 저기 그늘속으로
이쪽 양지로
여기저기 위치를 바꾸어 세워보시고는
무엇을 확인하신듯
피득 돌아서며
누군가를 찾으시여라

번쩍-
섬팡이 비끼는 안광
이렇듯 가까이에서
처음 뵈는 김민
무한히도 따듯이 비껴흐르는 인자함
한없는 자애로움이 어리는 눈매
어찌면 수령님과 꼭 같아
대번에 확 마음이 끌려 서있는데

미술작업차림 그대로라
색감묻어 어지러운 손
꼭 잡아주시며
갈리신 음성으로 하시는 말씀

-동무가 화가로우면
김민동무, 수고했소, 잘 그렸소!
결작이요
대결작!
세상에 없는 명작이요!

만족하신듯
그의 어깨를 두드려주시며
결에 선 투사들과 일군들에게
흥분하여 물으시는 말씀
-이제 영결식날
이 초상화를 모시면
어떨것 같습니까?

-장군님 우리 인민들과 온 세상이
감짝 놀랄것 같습니다
-수령님은 세월과 더불어
만민의 태양으로 영생하신다는것을
굳게 확신하게 될것입니다

-그렇단 말이지요...
 나직이 외우시는 가슴속에
 뜨거운 회억이 서리는듯
 초상화를 향해 돌아서시는 눈가에
 물기가 어리는데
 손수건을 대이시며
 젖으신 음성으로 조용히 말씀하시여라

-우리 수령님 생전에
 환히 웃으시는 이 초상화를
 보여드렸더라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얼마나...

한평생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겪으시며
 피로움과 눈물은
 가슴속에 깊이 묻어두시고
 인민들앞에서는
 내내 밝은 웃음만 지어보이시며
 그처럼 바라고 바라시던
 통일의 날도 못보시고 가셨습니다

정말 원통합니다
 가슴속에선 피눈물이 흐릅니다
 자신께서 웃으시고 락천적으로 살아야
 인민이 기뻐하고
 나라가 밝아진다고 하시며
 안으신 만시름 다 감춰오시느라
 그렇듯 머리가 희어지셨는데...

글쎄... 어째서...
 수령님 생시에
 저 환한 태양의 초상화를 보여드려
 쌓이신 로고의 한가닥이라도
 더 덜어드리지 못했던지...

넌로한 항일의 투사들
 몸가까이 보좌하는 일군들
 미술가 김민이도
 가슴이 미여지는듯
 심장이 찢기는듯
 어깨들을 들먹이며 흐느끼는데

초상화를 어루쓰다듬으시며
 그만에야 실신하실듯
 목메여 터치시는 오열

-수령님!
 저희들이 이렇게 앞에 와 있는데도
 어찌하여 모르시는듯
 한마디 말씀도 없이
 웃으시기만 하십니까!

수령님은 하늘이 내신 성인이신데
 숨죽있던 나라도 겨레도
 다 살려내신
 신성한 그 태양의 심장이
 꺼진다는 말
 이 웬일이십니까...

안되십니다
 인민이 목메여 부르고
 조선이 가슴치며 찾습니다
 온 세상이 피터지게 웨칩니다
 어서... 어서 저희들속으로
 돌아와주십시오... 수령님!

아 무심토다
 하늘이여
 땅이여
 입이 있다면 열어 대답해다오
 기적이란 그 어느때에 있는것이나
 천지조화를 일으키는 퇴성을 터쳐
 멎었던 태양의 심장 다시 높뛰우라!
 위대한 삶의 영생을 안아오라!

작열하는 불별은
 마음속에 확확 열기를 더해주고
 들먹이는 잔등이며 몸들에
 땀은 무젖어 흐르는데
 눈굽을 흠치시며
 애써 의지를 모두어세우시는 장군님

지금에 와서라도
 빛나는 태양의 초상을
 높이 모시게 되었으니
 마음이 한결 풀린다고 하시며
 첫눈에 헤아려보셨던
 미흡한 점
 화가에게 일깨워주시여라

옷색갈을 좀 고쳐야 하겠다고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전에 제일 많이 입으시던
 약간 캄캄하고
 가는 줄이 간 옷으로 형상해야
 강한 색대조도 오면서
 영상이 더 밝게
 부각될것이라고 이르고

넥타이도 제일 즐겨 매시던
 빛을 받으면
 연한 미색바탕에
 작은 점박이들이 돋보이는
 그 넥타이로 하자시며

자신께서 끌라주시겠다 하시여라

그러시고는

영상부분은 잘 형상되었는데
어쩐지 주위가 좀 허전하다고 하시며
세심히 가르쳐주시는 말씀

-아버이수령님께서

생전에 가장 사랑하시던 꽃으로
테두리를 장식합시다
그 꽃은 흰색의 꽃
조선의 국화 목란입니다
영생축원의 목란꽃 송이송이로
수령님의 영상을
더 환히 빛내입시다!

아, 사람들이여

어떻게 되어
이 나라 강산에 태양은 지지 않고
인민의 마음속 하늘가에 빛나는가
수도의 거리거리
조국땅 방방곡곡에
영생의 빛발을 뿌리고뿌리는가

생각도 깊은 가슴들마다

뜨거운 불꽃이 흐르고
해별도 누리를 붉게 익히던 그날
불멸의 태양을 안아올린 그 저녁에야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
아버이수령님 서거이후
간소한 첫 식사를 드시었다

4

깊은 밤을 이어

새벽을 맞아
슬픔을 안고
슬픔에 잠겨
사람들의 물결이
끝없이 흘러드는 100여리 연도

길가의 잎푸른 나무아지들도

강변의 버들숲도
깊은 애도에 잠겨 머리를 풀었는듯
수백만이 총총이 운집하였어도
슬픔속에 무겁게 흐르는
침묵 침묵-
수도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사람바다속에

그 대오의 한자리에
미술가 김민이도 서있다

충혈진 눈빛
혈썩해진 모색

이제나저제나

오지 말아야 할 시각을 기다리는
그의 눈앞에 어려왔다
장군님 손수 끌라 보내주신 그 넥타이
이손저손 소중히 옮겨가며
온 창작집단이
얼굴을 비비며 몸부림치던 광경

보여왔다

누구는 의롱밀에 간수했던
눈처럼 하얀 은초사
누구는 물려받은
희디흰 본견
너도나도 다 들고나와
눈물속에 가득 꽃피워놓은 목란꽃바다...

희복한 새벽 대기속에

뿌듯이 떠올랐다
두번째로 초상화를 모시고 간 잊저녁
그리도 대만족하시여
완벽한 만점이라시며
결작중의 최대결작이라시며
웃음을 보이시던 장군님

귀전에 생생히 들려왔다

래일 영결식에서
이 초상화가 기본이라고
연도행렬의 가운데자리에
높이 모시고 나가야 한다니던 그 음성

가슴에 뜨겁게 울려왔다

이번에 김민동무가
나에게 큰 힘을 주고 기쁨을 주었다고
세계초상미술력사에 없는
최대결작을 창작한
재능높은 일류의 미술가라시며
믿음담아 하시던 말씀

-김민동무를 높이 평가합시다

영웅칭호도 수여하고
줄수 있는것을 다 줍시다

아 위대한 발견으로

불멸의 명작을 창조하시고도
화가에게 그 영광 다 돌려주시는
사랑의 음성
상기도 심장을 진동하는데

저기

멀리서부터 터져나와
점차 커지며
삼시에 공간을 꽉 채우며 울려오는
절통한 통곡소리 통곡소리
슬픔에 젖어 뒤설레이는
피눈물의 바다 바다

다가온다 서서히
영결식행렬이
들려온다 들려온다
기쁨의 날
행복의 날
이 거리거리에 넘쳐흐르던
영생불멸의 혁명송가의 장엄한 선물이

한대 두대...
줄지어 늘어선 화환차들
엄숙히 뒤편하는 위장대차들...
그다음은

아 그다음은
봄빛마냥 따뜻이 슬픔을 가져주고
한품에 다 안아주실듯
태양처럼 환히 웃으시는
수령님, 우리 수령님!

아 장강의 폭이 터진듯
인파가 사태친다
앞사람을 밀어내치고
두팔을 허우적이며 어푸러지며
물밀듯이 길을 막는
늙은이들
녀인들
철부지들...

-못갑니다!
수령님 안됩니다...

-이대로 가시면
우리들은 어찌하랴니까
수령님 너무하십니다
못가셔요 못가셔!...

사람들은 억이 막혀 가슴을 쥐어뜯고
기절해 쓰러지는데
차들은 달리고
행렬은 흐르고...

그래도 어디까지라도 따르려는듯
기여서라도 끝까지 함께 가려는듯
엎치며 겹치며
사품쳐 뒤끓어 번지는속에서
창자를 찢으며 터져나오는

애끓는 소리소리

-돌아오십시오 수령님!
아이들과 약속하신
설맞이 공연무대가 기다리고
잇자고 하시던 통일의 철길이 부릅니다
수-령-님!

아, 시간이여 멈춰서라
세월이여 지구의 공전을 돌려세우라
피설음 안고 하늘에 땅에 뒹치는데
왜서들 이러느냐고
슬퍼들 말고
어서 눈물을 닦고 일어나라고
따뜻이 타이르시는듯

전승광장을 지나
천리마거리
통일거리를 누비며
문수거리
김일성광장
개신문가에서도
환히 웃으시며 가시는 수령님

떨려야 떨수 없는
인민의 마음속에 계시며
그 마음의 하늘가에 밝게 웃고계시니
어찌 우리 수령님 가시는것이라
우리결을 영영 떠나시는것이라

아 떠나시는것 아니여라
빛나는 태양의 영상 높이 안아올리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속에
수령님은 함께 계시며
인민들의 마음속으로
더 가까이 오시는것이여라

다 젖은 손수건으로
열열한 눈굽을 닦으며
허둥지둥-
어디에 발이 놓이는지도
미처 가늠하지 못하며
김민은 영결식장을 떠나오는데

어디서 누구에게 알았는지
번쩍이는 촬영기들을 들고 다가와
마이크를 들이대며
회견을 청하는
《씨 엔 엔》
《엔 에취 케이》
《비 비 씨》 텔레비존 및 방송기자들

-력사를 거슬러
세계왕실초상미술력사를 보아도 그렇고
그 어떤 나라 대통령들의 경우에도
위엄과 위선을 돌구는데
형상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더우기 영결식이라면
비장성을 살리는 방향에서
부각해야 하겠는데
어떻게 되어 환히 웃으시는
초상화를 창작하게 되었는지?...

무엇을 어떻게 일깨워주어야
관권과 개인취미에 기초한
이들의 부르조아적미학관을
바로잡아줄수 있겠는지
잠시 생각을 더듬더니
확신에 넘쳐 대답하는 김민

-당신들은 이런것을 알고있는지
명화가가 걸작을 낳는가
예술의 천재인 수령이
일류의 미술가도 키우고
세계적인 명작도 창조하는가...

그렇소, 만민의 태양!
불멸의 이 초상화는
어느 한 미술가의 착상도
그의 창작적결실도 결코 아니오

이는
사상과 령도의 거장
주체적문학예술의 대가이신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한 인민적발견이며
그이의 불후의 대결작입니다!

천만뜻밖인듯
믿어지지 않는다는듯
안내일군들과 한동안 웅성이더니
그제야 알겠다는듯
고개를 끄덕이며
엄지손가락을 내보이며 하는 궁정

-우리 《씨 엔 엔》은
세계 백수십여개 나라 시청자들에게
영결식장면을
전면에 걸쳐
반복 또 반복 방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조선과 그의 수령들을
새롭게 알게 된것을
인생의 대행운으로 생각합니다
김일성 그이는 **김정일**!
김정일 그이는 **김일성**!

태양의 위엄을
태양으로 빛나게 이어가시는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계시어
사회주의조선은 승승장구하고
김일성동지는 영생불멸할것입니다!

아, 우주에 전파들이 날았다
지구가 쬔었다
적대국의 대통령들조차 애도성명을 내고
추모의 조전을 보내오는
텔레비죤 화면앞에 마주앉아
김민은 눈굽이 찢어 젖어왔다

기적의 신화같은 발견으로
환히 웃으시는
태양의 초상을 누리에 펼치시어
슬픔어린 눈동자마다
기쁨의 밝은 빛을 담아주시고
조선을 다시 억세게 일떠세우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이 세상 온 천지에
폭풍같은 환희와 경탄을 불러일으키시며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사상과 위엄의 영원으로
조선의 위력
만방에 펼쳐가시는 빛나는 령도여!

아아-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아버이수령님 높이 받들어모시고
그 유훈 만대에 꽃피워가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드림없는 충효의 의지속에
이 땅에 태양은 영원해라

위대한 수령님의 제자
경애하는 장군님의 전사답게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나아가는
내 나라, 내 조국의 무궁한 세월속에
만민의 태양은 빛나라!
만민의 태양은 빛나라!



립장문제

1977년 6월 13일에 있는 일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이날 오후 2시 경부터 해질녘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게 될 건물을 돌아보시었다.

먼저 건물주변을 돌아보시던 그이께서는 크지 않은 폭포앞에 이르시여 만족한 미소를 지으시었다.

《폭포가 좋습니다.》

그이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피곤을 푸시려 산책하시다가 이 폭포앞에 서계실 장면을 그려보시는 듯 잠시 사색에 잠겨계시더니 다시금 물소리도 좋고 폭포의 광경도 시원해서 좋다고 하시었다.

일군들은 크지 않은 하나의 물줄기, 구슬같은 그 물방울과 정다운 그 물소리를 두고도 어버이수령님의 안녕과 기쁨을 생각하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그 고결한 품모앞에 뜨거워지는 가슴을 진정할수 없었다.

이날 그이께서는 건물을 쭉 돌아보시고 이윽고 온돌로 된 서재에 이르시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모기나 하루살이가 새여들 어오지 않도록 단단히 대책을 세울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온돌방에 앉으시여 창밖을 내다보시었다. 문득 그이의 안광에 한줄기 그늘이 비끼기 시작하였다.

일군들은 무엇때문에 그러실가 하고 밖을 내다보았다.

록음길은 산천의 아름다운 풍경만 내다보일뿐 별 다른것은 없는것 같았다.

《서서 내다보지 말고 동무도 내옆에 와서 앉아서 한번 내다보오.》

일군은 그제야 어렴풋이 불안의 원인을 느끼며 그이의 옆에 앉았다. 앉아서 밖을 내다보니 로대의 란간에 가리워져서 밖의 경치가 보이지 않았다.

《어떻습니까. 온돌방이란거야 울방자를 틀고앉아서 일하는 방인데 동무는 앉아서 내다보는것을 설계에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보시오. 란판이 막히니 경치가 가리워지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그는 자기의 실책을 깨닫게 되었다.

방의 특성에 맞게 설계를 엄밀히 하지 못하고 온돌방을 다른 사무실과 같은 형식으로 설계했던것이다.

심려어린 그이의 음성이 나직이 울리었다.

《설계에서 관점이 서지 않았습니까. 관점, 체계문제입니다. 수령님을 중심으로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설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일군은 고개를 들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실 건물을 설계하면서 불편을 드리게 만들어놓았으니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잘못인가.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지적을 받고보니 그에겐 언제인가 그이께서 들려주시던 이야기가 생각났다.

어느날 그이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숙소에 들어가시였을 때 마침 수령님께서 텔레비존을 보고계시었다고 한다.

그런데 텔레비존수상기가 바람벽위치에 놓여있지 않고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는 침대쪽가까이 놓여있었다.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일군에게 심각히 말씀하시었다.

《우리가 아직 멀었습니다. 텔레비존위치 하나 제대로 놓이지 못하게 건설했으니 어찌겠습니까. 방이 지내 큼니다. 설계와 건설에서 모든것을 수령님께 편리하게 해야 합니다.》

그때 일군은 느끼는바가 컸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같은 류형의 잘못을 범하게 된것이다.

그리고보면 이것은 결코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받드는 열도의 크기에 관계되는 문제였다.

바로 경애하는 그이께서 지니신 충성과 효성의 높이에서 보고 판단하고 사색하고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었다.

실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지니신 충성과 효성은 일군들이 따라배워야 할 삶의 거울이었고 사업의 리정표였다.

영원히 비쳐주시네

아이자이아 콰오 모리슨

비쳐주시네
아 비쳐주시네
조선의 태양
전세계를 비쳐주시네
태평양에서 대서양까지
사람들 심장마다를 비쳐주시네

우리 시대의 영명한 령도자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길로
우리를 확고히 이끄시기에
시대의 어둠 아무리 깊어도
우리 가는 앞길 못막으리

비쳐주시네
아 비쳐주시네

희망의 등대
김정일 장군
온 나라를 밝게 비쳐주시네
인민생활의 구석구석
어린이들의 밝은 미래
따뜻한 빛발로 비쳐주시네

오 **김정일** 장군
우리의 밝은 등대
우리의 역센 기둥
우리의 희망의 구세주
자주위업의 승리의 길
영원히 영원히 밝혀주시네

(필자는 가나시인임)

복이 쌍으로 겹친 나라

조세프 므제마

수령복 타고난 조선인민
인민복 누리는 조선로동당
수령 당 인민이 한가정 이룬
조선은 사회주의 대가정
조선은 복이 쌍으로 겹쳤네

인민은 수령을 따르고
충성으로 받들어모시네
수령은 인민을 아끼고 사랑하며
힘있는 존재로 키워주시네
아 조선은 복이 쌍으로 겹쳤네

반동들 조선앞에 무릎 꿇었네
조미회담에서 또 승리한
조선은 세계평화의 수호자
아 쌍으로 겹친복 화를 이겼네

수령 당 대중은 혼연일체
일심단결은 조선의 위력
세상이 부러워하는 복중의 복
수령복 인민복은 조선의 상징
아 조선의 사회주의 불패라네

(필자는 조선-탄자니아농업합영회사
직원임)

《핵사찰》 《특별사찰》 떠들던

나의 조국

김상오

알지못해라
언제부터 나의 가슴에 깃들었는지
아마도 그것은 나의 첫삶과 함께
이미 조용히 자리잡은것이리

언제나 나의 심장에 가득차있어
기쁨과 아픔
그 모든 운명을 함께 사는것

조국이어 너는 무엇이기에
가만히 네 이름 부르면
가슴은 터질듯 궁지로 부풀고
눈굽은 찢듯이 젖어드는것이나

어찌하여 때로 이국의 거리를 거닐다가도
문득 솟구치는 그리움에
마음은 한달음에 달려와
너를 안는것이나

조국은 고향마을 정든 집이라더라
동구박 오리나무숲
그 정겨운 설레임
새벽녘 들가에 피는 너인들의 웃음소리
송아지떼 풀을 뜯는 언덕을 넘어
지줄대며 흐르는 여울물소리

조국은 그리운 얼굴들이더라
다심하신 고향어머니
모래불에 덩굴던 어릴적 동무
물결치는 이랑속에 벼단을 안고
땀을 씻는 처녀의 그윽한 눈길

지난날 네 그리 가난하고 억눌러
슬픔과 고통만을 줄 때에도
너의 운명으로 내 가슴이 아팠고
살길찾아 너를 떠나면서도
눈물속에 돌아보고 또 돌아보았거니

조국이어 너는 무엇이기에
저 눈덮힌 이국의 광야
비내리는 타향의 부두에 서면
두고온 네하늘이 그리도 푸르려
살아서 너를 떠나간이들

죽어서도 돌아오길 소원했더나

한번 너를 잃으면
네게로 돌아가는길 그리도 멀어
피로써 눈보라 만리길을 헤쳐야 했고
죽음과 함께 불바다를 건너야 했거니

조국이어 진정 너는 무엇이기에
너의 한치의 땅을 위해
애어린 청춘들 웃으며 꽃처럼 졌고
쓰러지면서도 못잊어
두팔 가득 너를 끌어안고 갔더나

한줌 흙속에
너를 싸안고 간 투사들도 있었더라
한떨기 진달래 꽃향기에 눈감고
너의 모습 그려본 너대원도 있었더라
아마도 조국은 어머니

그렇다 조국은
더없이 신성하고 숭엄한 그무엇
위대하신 수령님 한생을 바치시는
겨레의 삶이어 그 무궁한 미래
죽어서도 안겨사는 영원한 품

그것은 그대를 바라보는 깊은 눈동자
맑은 거울앞에서처럼
부끄러움없이 그앞에 서기 쉽지 않으리
오직 그의 영광속에 그대의 삶이 있고
그를 저버림은 곧 그대의 죽음인
조국이란 그러한것

뜨거운 심장없이 안을수 없고
진실한 사랑없이 부를수 없는
위대하고 신성한 이름...
조국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
조국에 그대의 심장을 주기전에는!

오 조국이어 조국이어
너는 손이 짧도록
쓰다듬고싶은 우리의 땅
바라보아도 바라보아도 더 바라보고싶은
우리의 푸른하늘

조국이며
그때 묻이 아니냐
일을 해도 일을 해도 더하고싶어
하루를 십년으로 살고싶은 이 갈망은
지혜와 힘과 뜨거운 열정을
있는껏 다 쏟아바치며
바치는것이 기쁨인 이 아름다운 삶은

가는곳마다 들끓는 생활과
끊임없이 탄생하는 환희의 노래
강토를 굽이치는 철의 흐름우에
소용돌이치는 열풍을 안고

조국이며, 너는
세계의 하늘높이 나래쳐오르는
세찬 퍼덕임

평론

서정시 《나의 조국》을 다시 읽으며

방금 텔레비전에서 방송된 시 《나의 조국》이
준 충격을 누를길 없어 나는 책장에서 시인 김상오
의 시집을 뽑아들고 시 《나의 조국》을 다시 펼치
였다.

시 《나의 조국》으로 말하면 그것이 세상에 나
온지 15년 세월이 더 지났고 또 잘된 시여서 그 시
상이며 웅만한 시구절까지도 뜬금으로 외울수 있건
만 다시 펼쳐든 시를 읽어내려가느라니 자기도 모
르는 사이에 시세계에 끌려들어가고 흥분되어 나중
에는 제법 소리내어 읊기까지 하였다. 마치도 새로
한편의 훌륭한 시를 접한듯-

조국을 노래한 많은 시들가운데서도 시 《나의
조국》은 유난한 광채 가지고있다.

시 《나의 조국》이 주는 깊은 인상, 그것이 주는
은 파연 어데서 오는것이겠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
적하시였다.

《서정시 〈나의 조국〉은 조국애를 노래한 우
수한 작품으로서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을 깊이있
게 형상한 본보기로 된다.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
정을 읊은 시가 많지만 서정시 〈나의 조국〉 처
럼 조국애를 우리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에 기초
하여 훌륭히 노래한 작품은 흔치 않다. 서정시
〈나의조국〉은 조국애를 노래하였지만 단순히
나서자란 어머니조국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인간

그 아득한 높이의 빛깔
찬란한 우리의 미래

그대를 바라보며
온갖 시름 잊은 얼굴들이
로동의 기쁨안고 돌아오는 락원의 거리
무수한 배움의 창문을 비쳐드는 해살과
보육원들이 지켜선 애기들의 고요한 숨결...

그렇다 조국은
수령님 찾아주신 우리의 삶
수령님 안겨주신 우리의 궁지
영원한 영원한 그이의 품

그품이여라!
조국이며 나의 조국이며

류 만

의 자주성과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보장된 조
국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고있으며 조국에 대한 사
랑을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하여 생활적으로 감동
깊게 형상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서정시 《나의 조
국》은 시대의 주도적감정을 반영하고있는 조국애
를 노래한 우수한 작품일뿐아니라 조국에 대한 사
랑을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하여 생활적으로 감동깊
게 형상하고있다고 가르치시였다.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한 조국애의 구현, 생활적인
감정정서에 의한 개성적인 시형상의 창조, 이것은
시 《나의 조국》의 시정신, 형상체계의 새로운 경
지와 높이를 표상할수 있게 하는 특징화라고 말할
수 있다.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하여 조국애를 구현한것은
시 《나의 조국》에서 우리 시대의 주도적감정에
대한 창조적탐구과정에 이룩된 새로운 성과의 하나
이다.

우리 시대의 주도적감정에는 풍부하고 다양한 내
용이 포괄되어있다. 풍부하고 다양한 내용의 시대
의 주도적감정을 혁명적수령관으로 일관시키는것
은 주도적감정의 본질로부터 제기되는 문제인 동시
에 우리 시문학의 사상정서적지향과 관련된 필수적
요구이다.

우리 시대 주도적감정의 하나로 되는 조국에도

혁명적수령관으로부터 출발하고 그로 일관될 때 그것은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경지에 이르게 된다.

시 《나의 조국》에서 조국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 으로부터 시작하여 조국이란 이런것이다라는 해답이 주어지기까지 시형상에는 조국에 대한 숭고한 사랑의 감정이 심오하게 펼쳐지고있다. 그것은 시에서 보는바와 같이 때로 향수질은 고향의 모습에 대한 회억이기도 하고 망국노의 설음비꼰던 조국을 두고 가졌던 뼈저린 아픔이기도 하며 조국의 귀중함을 생각하는 다감한 심정이기도 하다.

시인은 마치도 갈래많은 내물이 모이고 합쳐져 모두 바다로 흘러들듯이 조국을 두고 느끼는 그 모든 체험과 사색을 하나의 감정정서로 집약하여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한 숭고한 경지에도 승화시킴으로써 조국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라는 심오하고도 철학적인 사상감정을 구현하였다.

조국이며, 너는
세기의 하늘높이 나래쳐오르는
세찬 퍼덕임
그 아득한 높이의 빛발
찬란한 우리의 미래
그 미래를 바라보며
온갖 시름 잊은 얼굴들이
로동의 기쁨 안고 돌아오는 락원의 거리
무수한 배움의 창문을 비쳐드는 해살과
보육원들이 지켜선 애기들의 고요한 숨결

그렇다, 조국은
수령님 찾아주신 우리의 삶
수령님 안겨주신 우리의 궁지
영원한 영원한 그이의 품

그 품이여라!
조국이며 나의 조국이며

지난 시기 많은 시들이 조국을 노래하였지만 시 《나의 조국》에서는 단순히 나서자란 어머니조국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자주성과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최성기에 이른 조국에 대한 사랑, 그 조국을 찾아주시고 빛내여주신 위대한 품에 대한 사랑을 한껏 터치면서 조국을 곧 위대한 수령님의 품으로, 수령님의 품을 곧 조국으로 노래하였다.

조국에 대한 다른 시작품들의 느낌이 채 미치지 못하였던 그런 느낌의 섬세성과 폭과 심도, 높이에서, 조국의 귀중함에 대한 그 시작품들의 깨우침이 미처 닿지 못한 새로운 세계에서 조국에 대한 숭고한 느낌과 열렬한 사랑을 토로하면서 조국을 위대한 수령님의 품으로 노래한 여기에 시 《나의 조국》

이 보여준 우리 시대 주도적감정의 새로운 높이가 있다. 조국에 대하여 느끼는 모든 숭고하고 아름다운 감정을 토로하면서 조국을 위대한 수령님의 품으로 노래함으로써 이 시는 오늘 우리 시대 인민들의 조국에 대한 새로운 감정, 조국을 나서자란 정든 고향산천이나 친척, 친지들이 있고 하많은 사연과 추억이 깃들어있는 고향만이 아닌 모두의 삶과 생명과 미래, 그 모든 소중한것과 련결시키는 새로운 주체의 조국관, 조국의 보다 귀중함과 그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심오하게 일반화할수 있었다.

시 《나의 조국》에는 이처럼 우리 시대 인민들이 조국에 대하여, 조국을 위한 참된 삶에 대하여 느끼는 사상감정이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하여 깊이있게 노래되었다. 이것으로 하여 이 작품은 시대정신의 새로운 높은 경지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되었으며 훌륭한 사상예술성을 체현할수 있게 되었다.

시인의 심오한 체험세계에 기초하여 우리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으로 되는 숭고한 조국애를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깊은 서정을 가지고 개성적으로 훌륭히 형상한것은 시 《나의 조국》의 창조적탐구과정에서 이룩된 또 하나의 귀중한 성과이다.

우리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은 그것이 생활적인 감정을 통하여 정서적으로, 심오한 시형상으로 깊이있게 천명될 때 갑절 힘있고 웅심깊은것으로, 고상하고 아름다운것으로 감동깊게 노래될수 있다.

시 《나의 조국》에서는 조국은 곧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라는 숭고한 사상적지향을 깊은 체험과 생활을 통하여 정서적으로 심화하여 심오하게 일반화함으로써 풍부한 서정성을 구현하고 시형상의 높은 경지를 보여주었다.

시 《나의 조국》에서의 체험의 심오성과 생활에 대한 깊은 정서적파악은 주로 조국이란 무엇인가하는 명백한것 같으면서도 의미심장한 물음에 대한 해답을 감정정서적으로 추구하는 사색속에서 철학적으로 심화시키는데서 나타나고있다.

조국이며!
너는 무엇이기에
가만히 네 이름 부르면
가슴은 터질듯 궁지로 부풀고
눈굽은 찢듯이 젖어드는것이나

...
조국이며, 너는 무엇이기에
...
조국이며, 진정 너는 무엇이기에

시인이 그렇듯 사색을 모으고 심장을 두드리면서 뜨겁게 부르는 조국, 진정 조국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몇마디 말로써 대답하기에는, 더우기 길지 않은 서정시로서 해답을 주기에는 너무도 크고 아름찬 과제라 하지 않을수 없다. 더우기 조국을 두고 느끼는 사람들의 마음이 한결같지 않고 조국에 대하여 누구나 제 나름의 사연있는 말을 할수 있을진대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시 《나의 조국》에서 시인은 사람마다 다를수 있는 조국에 대한 느낌, 생각을 안고 누구나 공감할수 있게 《조국이란 무엇인가》하는 물음에 심오한 철학적해답을 주었다.

시인에게 있어서 조국은 무엇보다도 나서자란 고향과 땀수 없이 련결되어있으며 그 고향의 향취, 인정에 대한 못잊을 추억과 사무친 그리움과 결부되어있다.

조국은
고향마을 정든 집이라더라
동구밖 오리나무숲
그 정겨운 설레임
새벽녘 들가에 피는
너인들의 웃음소리
송아지떼 풀을 뜯는 언덕을 넘어
지출대며 흐르는 여울물소리

조국은
그리운 얼굴들이라더라
다심하신 고향어머니
모래불에 덩굴던 어릴적동무
물결치는 이랑속에 벼단을 안고
땀을 씻는 처녀의 그윽한 눈길

시인에게 있어서 조국은 고향마을 정든 집이며 못잊을 그리운 얼굴들이다. 이것은 누구나 가질수 있는 생각이며 조국에 대한 일반적인 표상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시인은 그런 표상을 제시하는데 그친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생활감정으로, 정서도 느껴지게 개성적인 체험세계를 통하여 형상을 심화하였다.

그리하여 동구밖 오리나무숲의 정겨운 설레임, 새벽녘 들가에 피는 너인들의 웃음소리, 송아지떼 풀을 뜯는 언덕이며 지출대며 흐르는 여울물소리, 다심하신 고향어머니와 모래불에 덩굴던 어릴적동무, 물결치는 이랑속에 벼단을 안고 땀을 씻는 처녀의 모습 등은 얼마나 짙은 생활적인 정서로 채색되어있으며 거기에서 조국을 느끼는 시인의 체험세계는 얼마나 섬세하고 절절하며 감성적인가.

이 시의 깊은 서정세계는 바로 이런 독창적인 깊은 체험세계를 꾸밈도 보렘도 없이 그 감정의 급선을 텅기며 섬세하게 절절하게 퍼나간데 있다.

우에 인용한 시줄에서 벌써 조국을 폐부로, 생활로 느끼게 되는것은 바로 시인의 심오한 체험세계와 그 체험세계를 절절한 느낌을 가지고 개성적으로 표현한것과 관련되어있다.

그러나 감성적인 이런 체험세계의 서정적인 토로에만 그쳤다면 조국애의 승고한 높이를 다는 보여줄수 없었을것이다.

시인은 지금까지의 보다 감성적인 체험세계의 개방에 기초하면서 그에 더하여 시의 후반부에 오면서 리성적인 사색을 심화시키고있는바 이것은 조국에 대한 그 중심에 가까운 표상에 조국이란 생활과 성장의 자취가 어려있어서만이 아닌 더없이 신성하고 숭엄한 그 무엇이라는 깊은 의미를 더하여준다.

그리하여 시인의 정서적체험과 사색은 조국을 잃고 타향살이에 눈물 많고 설음겹던 지난날과 결부되기도 하고 한치 조국땅을 위해 목숨을 바친 청춘들, 한줌 흙속에 조국을 싸안고 간 투사들과 한떨기 진달래 꽃향기에 조국을 그려본 녀대원들의 승고한 모습과 결부되기도 한다.

여기서 시인의 느낌은 강렬한 리성의 조명을 받으면서도 그 바탕에 깊은 생활감정을 안반침하고있는것을 볼수 있다. 때문에 조국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깨우치는 서정토로는 그자체의 강조로 그치는것이 아니라 조국을 위해 목숨바친 청춘들과 조국의 흙과 진달래를 가슴뜨겁게 부여안은 투사들의 승고한 모습속에서 그들의 아름다운 정신에 대한 깊은 공감과 찬양의 정서속에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감수된다.

이처럼 시에서는 감성적인 체험세계의 개방을 통하여 조국에 대한 생활적인 표상을 주고있으며 보다 리성적인 사색을 펴나가면서 조국이 얼마나 귀중한것인가를 절절히 깨우쳐주고있다.

감성적인 느낌과 리성적인 사색의 유기적인 결합은 이 시의 심오한 사상감정을 풍부한 서정속에서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천명할수 있게 한 새로운 탐구적성과로 된다.

그리하여 시에서 조국애의 감정은 일반적이며 추상적인 웨침에 의한 강조로서가 아니라 깊은 체험과 느낌속에서 자연스럽게, 강렬하게 터져오르는 서정세계의 철학적심오성으로 진실하고 깊이있게 노래될수 있었다.

그렇다, 조국은
더없이 신성하고 숭엄한 그 무엇
위대하신 수령님 한생을 바치시는
겨레의 삶이며 그 무궁한 미래
죽어서도 안기여사는 영원한 품

그것은 그대를 바라보는 깊은 눈동자
 맑은 거울앞처럼
 부끄러움없이 그 앞에 서기 쉽지 않으리
 오직 그의 영광속에 그대의 삶이 있고
 그를 저버림은 곧 그대의 죽음인
 조국이란 그러한것

뜨거운 심장없이 안을수 없고
 진실한 사랑없이 부를수 없는
 위대하고 신성한 이름...
 조국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
 조국에 그대의 심장을 주기전에는!

조국이란 바로 이런것이다. 고향마을 정든 집과
 못잊을 그리운 얼굴들로부터 조국이란 표상은 언제
 얼마나 크고 숭엄해졌는가.

설사 어릴적 자취와 추억이 깃들어 조국을 못잊어
 하고 생각할수는 있어도 조국이라는 그 뿔뿔한 부
 림은 아무나 할수없다는것, 조국에 심장을 바치기
 전에는 나서자란 고향산천과 그에 대한 추억은 있
 을수 있어도 참된 인생의 보금자리와 마음의 기둥,
 정신적지탱점과 죽어서도 영원히 안기여사는 품은
 없다는것, 바로 이것이 조국에 대한 시인의 감성적
 인 느낌으로부터 도달한 시의 사상적높이이다.

여기에는 심오한 생활체험과 심각한 교훈이 있으
 며 주체형의 인간이 도달하여야 할 조국애의 숭고
 한 높이가 있다. 조국을 어릴적의 숨결과 체취로 간
 직하는것도 좋지만 거기에 조국과 일체를 이룬 심
 장을 더하지 않을 때 그것은 참다운 조국애로 될수
 없을것이다. 조국에서 살든 해외에서 살든 귀중한
 조국애는 바로 조국에 심장을 주는데 있다.

이것은 단순한 형상문제에 귀착되는것이 아니라
 시인의 높은 리상에 의한 작품의 심오한 사상적내
 용과 관련된 문제이다.

심장을 주지 않는 조국에 대한 《사랑》은 조국에
 대한 참사랑일수 없다.

조국에 심장을 주기전에는 조국에 대한 사랑을 말
 하지 말라는 시인의 절절한 호소는 조국은 곧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라는 숭엄한 사상감정과 직접적으로
 련관되어있다. 조국에 심장을 준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과 운명을 같이 하며 영원히 수령
 과 당을 위한 한길에서 심장은 고동치고 불타야 한
 다는 혁명적수령관의 높이에서 시의 사상적지향을
 한껏 승화시키고있다.

바로 여기에 이 시에서 새롭게 탐구된 혁명적수령
 관에 기초한 조국애의 참다운 높이와 숭고한 경지
 가 있으며 그것을 감동적으로 그려낸 시형상의 새
 로운 탐구가 있다.

이 시의 형상에서 또한 특징적인것은 서정적주인

공-시인이 때로는 《나》로, 때로는 《우리》로 나
 타나고있는것이다. 한편의 서정시에서 《나》와
 《우리》의 병존은 시에서 흔히 찾아볼수 있는 현상
 도 아니며 또 그것이 시형상의 집약성과 통일성을
 보장하는데서 일정하게 우려도 자아내지만 이 시에
 서는 그것이 서정의 나래를 자유분방하게 펼치고
 시의 공간을 확대하면서도 시의 초점과 사상적지향
 을 명백히, 심오하게 밝힐수 있게 한 담보로 되었다
 고 생각한다.

시에서 《나》가 씌인 경우를 보면 대체로 그 형
 상의 감성적인 측면과 련결되어있으며 《우리》의
 경우는 보다 이성적인 측면과 련결되어있다. 우리
 는 이 시의 형상에서 감성적인것과 이성적인것의
 유기적통일에 대하여 말하였는데 바로 《나》와
 《우리》의 병존이 시의 이러한 형상적구성에 맞게
 탐구된 효과적인 측면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시에서 《나》를 《우리》로, 《우리》를
 《나》로 통일시킬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그런 경
 우를 가상하면 현재 이 시가 주고있는 그런 사상정
 서적의미와 향기가 살아날수 없게 된다. 사실상 이
 시에서는 《나》와 《우리》가 함께 씌였지만 서정
 적주인공-시인의 조국에 대한 숭고한 사랑의 감정
 을 노래하는데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이바지하는것
 으로 하여 시형상의 사상정서적 심오성과 풍부성을
 확고히 담보하는데서 서정적주인공의 한모습으로
 통일체를 이루고있는것이다.

시에서는 이와 함께 평범하면서도 정서가 짙고 뜻
 이 깊은 시어들을 잘 골라쓰고있는데 그 모든것이
 시인의 깊은 체취세계와 느낌을 표현하는데 맞게
 쓰고있는것으로 하여 그리고 거기에 생활을 보다
 정서적으로 감수표현하면서도 높은 지성으로 투시
 하고 철학적의미를 부여할줄 아는 시인의 개성적인
 체취가 잘 조화되고있는것으로 하여 형상의 높고
 심오한 경지를 보여준다.

보는바와 같이 시 《나의 조국》의 시상으로부터
 언어표현 하나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은 그 어디서
 본딴것도, 빌려온것도, 이미전에 새겨진 표상을 서
 툴게 가공한것도 아니며 누구나 가질수 있는 범박
 한 생각의 한계속에 있는것도 아니다.

모든것이 시인자신이 새롭게 탐구하고 사색해서
 엮어놓은것이다.

우리 시인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원
 히 높이 모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의 존엄과 위용
 을 세계에 떨치며 조국에 대한 불타는 사랑의 정신
 을 고취하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시를 많이 창작함
 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수행에 적극 이바
 지하여야 할것이다.

봄, 가을

김유권

이 나라 동부 태백산줄기의 한 갈피에 사람들이
퍼져들기 시작하였다.

어디를 둘러보나 산과 산, 산너머 또 산이다.

수리개가 떠도는 하늘에 둥근테를 두른 바위부리
들이 고대의 성벽인양 침중하니 솟고 차디찬 벽계
수가 물보라를 흘날리며 바위짜를 짓쳐내리다가 사
철 푸르러 설레이는 윤택한 산죽숲을 살같이 꺾여
지나서 우중충한 검은 수림속으로 가뭇없이 잦아든
다. 하늘을 가리운 처녀림의 짙은 그늘속에서 미끈
거리는 고목들과 그우에 돌아난 연한 버섯들이 퍼
런 린광을 발산하는데 이 어둠과 혼돈이 서린 혼성
림을 휘이칭칭 엮으며 타래쳐온 동아줄같은 쉼녕
쿨과 머루다래덤불... 그밑에 쌓인 부근부근한 락엽
을 헤치고 흙을 한웅큼 떠들면 억년걸구어진 옥토
가 기름에 젖은 떡가루처럼 손가락잡으로 미끄러져
내린다. 귀기울이면 들리느니 거칠고 음울한 자연
의 노래뿐...

왜놈의 등쌀을 피해서 살기엔 그중 합당한곳이
아닌가!

사람들은 드디어 무지러진 지평이를 던지고 피나
리보집채 엉덩방아를 찢으며 주저앉아 정없는 산골
에 한줄기 어설픈 웃음을 날렸다. 이곳에 생업을 펴
는데는 씨앗과 가축, 쇠붙이만 얼마간 있으면 그만
인지라 미구하여 골안에는 집터를 닦는 달구질타령
이 흥겨이 넘어가고 화전의 불길이 번지더니 어느
덧 발방아로 조를 찢고 무릎에 삼을 비벼 베를 짜
며 고콜불로 밥상머리를 밝히는 생활이 펼쳐졌다.
화폐이전의 자연경제가 이 골안에 복귀된 것이었다.
한해에 한두차례 바깥세상과 이어진 험한 외줄기
통로로 모피와 숯, 마른 산채와 약초 그리고 찌리,
산죽따위를 쪼개어 결은 초물들을 지고나가 소금을
바꿔오는 일이 일중에서도 고된 일이었다. 어느해
인가는 소금섬을 지고들어간 발자취를 추적하여 여
원 정갱이에 가죽각반을 두른 먼서기가 이 《무법
한》 산사람들을 호적명부에 기재해보겠노라고 수
선을 떨며 수고로이 산발을 헤매다가 향방을 잃어
무주고혼이 되고 그 까닭을 캐고저 칼 찬 순사가
산길을 탔다가 수리봉중턱에서 밤을 맞아 돌베개를
하고 잔탄인지 입이 찌그러져 돌아간 뒤로는 한동
안 그 무엇도 뿌연 운무에 싸인 이 심산속의 동네
를 범하려 하지 않았다. 세상은 그들을 잊은듯하였
다. 몇해 지나는 사이에 이곳 농가는 열다섯호로 늘
어나고 그럭저럭 안착이 되어 제법 마을꼴이 잡히
였다. 새벽이면 닭이 울고 때때로 이웃끼리 어울려

조찰떡치는 소리도 들렸다. 이야말로 꿈꾸어오던
삶이 아닌가!... 골안에는 무의미한 생을 이으며 세
상과 자기를 모르는 까막눈이 자손들이 태어나고
성장했다. 그들이 바로 침성대를 쌓아올리고 남면
저 하늘의 별을 세기 시작한 이 나라 조상의 후손
들이었다...

골안에는 예나 다름없는 자연의 력사가 덧없이
흐르고있었다.

1948년 늦은봄 어느날이었다.

스무살전후로 보이는 처녀와 총각이 길아닌 길을
더듬어 아득한 수리봉을 뚫아오르고있었다. 둘다
읍 고급중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바라보는 한창시절
의 남녀였다. 등산모를 눌러쓰고 한끝이 예리한 금
속손잡이가 달린 탐승지팡이를 더위잡은 키 큰 청년
이 처녀를 부축하여 오르는데 새로 맞춘 모시적삼
에 까만 치마를 받쳐입은 처녀는 얇은 홍조가 떠오
른 얼굴에 눈물받이김이 박인것이 어딘가 가냘프고
아련해보였다. 힘겹게 수리봉 정점에 오른 등산모
는 중천의 태양을 향하여 탐승지팡이를 내저으며
한소리 뽐고나서 린근부락사람들이 그려준 손바닥
만한 지형도를 펴들고 다시 방향을 가늠하였다. 발
밑에는 구름호수가 펼쳐지고 그밑의 끝모를 심연
어느곳에 그들이 찾아가는 마을이 있었다.

《마을이름을 짓는것도 탐험가의 특전이겠지. 골
안이 구름에 잠겼으니 운곡리라고 부르는것이 어떻
가?》

청년의 열띤 소리에 처녀는 땀에 젖은 귀밑머리
를 쓸어넘기며 방긋 웃을뿐이다.

처녀와 총각은 다시 지형도를 따라 발길을 더듬
으며 내리막길에 들어섰다. 걸음걸음 눈앞에 펼쳐
지는 이채로운 풍경앞에서 등산모는 연송 감탄사를
련발하였다....

그들이 가갸스로 마을에 당도한 때는 어슬턱이었
다. 벌써 집집의 고콜불들이 사위여지고 동네가 피
자누룩한가운데 조짚이영을 인 한 처마밑에서 잠에
취한 주인의 가슴을 굶는 기침소리가 들렸다. 이
산촌의 밤은 마치도 검은 나락갈다.

그날밤, 동리사람들은 정결한 집들의 옷방에 각
기 모신, 해방이 보내준 선남, 선녀같은 선생들의
잠을 지키며 기분에 떠서 밤을 지새웠다.

앞산마루에 희뵈히 동이 텄다.

안개 걷히는 새벽에 물동이를 끼고 부엌문을 나
서던 처녀는 주인할머니에게 손목을 붙들리었다.

《아니, 원 세상에!... 훈장님이 동자질을 하다니...》

산마루에 류다른 해가 떠올랐다.

두 청년은 장포수네 사랑채를 립시교사로 정하고 칠판에 먹칠을 해서 내걸었다. 낮에는 여라문명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성인학교》를 열었다.

저녁이면 동네에는 은은한 달빛을 타고 노래소리가 울렸다.

바다를 건너건너 언덕을 넘어넘어

해방 조국에 봄빛이 빛나네

실실이 드리운 시내가 버들

풀피리 불어불어 새 나라 노래하세

...

나날이 흘렀다.

현수는 명희의 조교원노릇을 한다고 할수 있었지만 짬짬이 대학입학시험문제도 들여다보는 한편 이 골안에 력사학도의 진정한 첫걸음을 인찍고저하였다. 사실 현수가 문맹퇴치운동에 나선 명희와 함께 그 어떤 신비에 싸인 이 심산속을 자진하여 찾아온 데는 탐험가나 고고학자에게 고유한 호기심과 흥분도 적지 않게 작용했다고 볼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가끔 찬물에 발목을 적시며 험한 골짜기로 거슬러오르다가 끊어진 산허리에 로출된 여러겹의 굴은 지층을 지평이로 때리고 쭈시며 인류화석같은것을 찾느라고 먼지를 들쓰기도 하였다. 이 생소한 골짜기에서 인까문화 비슷한 유적유물이나 혹은 더 소급하여 인류최초의 흔적을 발견하려는 그의 열망은 그렇듯 장한것이였으나 이곳 농군들이 동네북판에 장대기를 세워만든 어설픈 《해시계》를 스케치한 것밖에는 거의 소득이 없었다.

현수의 고민은 컸다.

《기막힌 일이구만, 명희동무...》

《참 기막힌 일이예요...》

명희 역시 제나름의 고민에 잠겨있었다. 그는 여전히 《도망군》 아이때문에 속을 태우고있었다. 그애는 이 동네에서도 5리가량 골짜기로 더 올라가 외따로 자리잡은 숲막집에 얹혀사는 고아였다. 동네아이들은 그를 최인성이란 좋은 이름대신 《잔내비》라고 불렀다. 나무가지사이를 날아넘는 그 재주에는 누구도 혀를 차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그대신 사고방식이 이상하여 동네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외토리로 놀았다. 그애는 가끔 새가 말을 주고받으며 나무가 슬퍼한다는식의 동에 닿지 않는 엉뚱한 소리를 꺼내어 어른들까지 웃기였다. 《성인학교》 학급장이며 건국운동에서 이 마을의 선각자로 나선 김상철이라는 청년이 아침이면 인성이의 손목을 이끌어 학교에 데려오곤하였다. 칠판 앞에 앉아서도 그애는 창너머 숲만 바라보았다. 때

일과 같이 도망을 쳤다. 한번은 명희자신이 그애를 뒤쫓아 숲막으로 올라가다가 홀연 머리우의 나무가지가 어지러이 흔들리고 기괴한 짐승의 울음소리가 숲을 진동하는바람에 그만 자지러진 비명을 울리며 혼비백산하여 돌쳐오고말았다. 자기 세계를 지켜내려는 아홉살난 인성이의 작간이였다. 겁에 질려 뒤걸음치는 처녀를 본뒤에는 그를 다른 학생들처럼 무조건 숭배하지는 않았다. 인성이는 명희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유일한 학생이였다.

현수도 곁에서 그애를 구슬려보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허사였다.

《어쩔수가 없는 아이더군! 하기야 나무우에서 자란 애한테 고급한 사유가 깃들리 만무지.》

현수는 끝내 두손을 들고말았다.

어느날 아침 명희는 인성이를 데리고 학교를 찾아온 김상철청년한테서 슬픈 과거이야기를 들었다.

인성이는 숲막집로인이 수리봉밖으로 소금바꾸러 나갔다가 어느 산비탈에서 얻어온 아이였다. 쫓뿌리를 캐다가 숨이 끊어진 너인의 등에서 꿈지럭거리는 갓난애를 돌쳐업고 운곡리에 들어온 그는 심봉사처럼 동냥젖을 얻어먹다가 이어 젖을 떼자 숲구이골안에 데리고 들어가버렸다. 그후 인성이는 숲구이막두리에 거접한 네발가진 들짐승, 못새들과 친동기처럼 이웃하고 자라났다.

《인성이는 우리 동네가 젖을 먹여키운 아이입니다. 선생님, 이애는 정말이지 바보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상철이의 목소리는 갈리였다. 제동생을 두둔하는 형님앞에서 명희는 눈물을 가가스로 참으며 한숨을 지었다. 《그런데 저는 어째서 인성이를 동생처럼 생각 못할가요?》

안타까움에 젖은 명희를 보고 상철이는 싱긋 웃었다.

《그렇게 늘 자기에게 물어보는것이 누이의 마음이었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년은 자기의 체험인듯 명희를 위로하였다.

명희는 그 청년이 고마왔다.

그는 이번엔 인성이가 수업도중에 도망치지 못하게 단단히 단속을 하였다. 그애를 돌려보낼 때는 함께 갔다. 인성이의 손목을 잡고 머루덤불속으로 걸느라니 7월의 해빛이 넓은 잎새사이로 번뜩이고 음달의 푸른 기운이 감도는속에 더덕, 싱아 냄새가 떠돌았다. 머리우 어데선가 못새들이 조잘거렸다.

《참 좋구나.》 하고 명희는 말했다. 《며칠전에 난 여기서 혼이 났단다. 무서운 짐승들이 여기저기서 울더구나...》

《...》

인성이는 자기가 한것이 생각났는지 쑥스러운듯이 목을 움츠렸다.

《인성이가 곁에 있으니 오늘은 무섭질 않구나.》

《선생님도 무섭을 타나요뉘.》

소년은 입속말로 중얼거렸다.

《선생님은 무서운걸 모를거야.》 하고 명희는 낮을 붉히었다. 《그런데 난 선생님이 아니란다.》

《?》

《그저 자기가 먼저 배운걸 배워주러 왔지. 난 집안에서 막내란다. 늘 너만한 동생이 있었으면 했어. 어머나, 넌 누이가 있었으면 하지?》

《...》

소년은 까만 오목눈을 들어 명희를 뵈히 마주보더니 알릴듯말듯 고개를 끄덕이었다. 어떤 거룩한 우상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현실적인 인간, 숨쉬는 인간만이 인성의 세계에 접수될수 있는듯했다.

숫막집로인은 꽃강냉이를 타개서 바가지분투에 누른 《울챙이국수》를 선생에게 대접하였다. 오후에 명희는 숫가마두리의 참나무숲에서 인성과 함께 작은 옹노로 다람쥐를 훔치기도 하고 나무가지에 앉아 앞발을 쳐들고 반기는 눈이 큰 청서와 손짓 몸짓으로 의사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석양녘숲가에 깃드는 고운 새들의 울음소리를 가려듣는법도 배웠다. 인성의 세계에서는 동물들과 식물들이 혈연적인 편제를 이루고있었는데 지어 식물들까지도 제 나름으로 기쁨과 슬픔을 느낄줄 알며 그것을 서로 하소하고 그에 화답하기도 한다고 그애는 믿고있었다. 앞으로 생물학이 해명할 문제여서 누구나 지금은 어처구니없어 웃지만 인성이한테는 확실히 자기 특유의 감각이 있고 《일가견》이 있었다. 명희는 비록 소박하고 협소하지만 하나의 세계를 본것 같았다...

그후 며칠간 인성은 학교의 구속이 아니라 누이의 정을 느끼는듯하였다.

《명희동무, 이제 돌아갈 때가 되지 않았을가?》

성인학교를 필한 어느날 밤에 손에 묻은 백묵가루를 털며 현수가 하는 소리였다.

산봉우리에는 배부른 만월달이 등실 떠오르고있었다.

명희는 놀랐다.

《벌써 두달이 되였는가요?》

《나는 두달이 아니라 두해가 지난것 같소!》

그러자 명희는 나직이 한숨을 지었다.

《그런데 어떻게 군에 보고를 할가요? 인성은 요즘 학교에 재미를 붙인것 같지만 아직 열까지도 쓸줄을 몰라요.》

《글쎄 그런 애는 별도로 침시다. 이 골안에서 교육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거의 국문을 깨쳤소. 이진성파요. 우리 립시 동원된 학생으로서 할바를 했다고보우. 그리구 대학수험통지서가 지금쯤 읍에 와달았을거요.》

《...》

드디어 현수와 명희가 떠나는 아침이 왔다.

열다섯호가 모두 떨쳐나서서 바래우는 가운데 좌

상인 장포수가 거둬 고맙다는 사례를 하였다. 눈물이 혜온 한 아낙네는 눈굽에 웃고름을 가져갔다. 아이들의 얼굴도 흐려졌다. 빛을 가져온 젊은 선생들이 그 빛과 함께 떠나가는것이다.

《새 선생님이 이제 또 오신대요!...》 하고 위안하듯 큰소리를 하던 상철이는 그만 말끝을 흐리었다.

그들과 작별한 현수와 명희는 어느덧 산비탈을 툭아오르기 시작했다. 두렵게 머리우를 덮은 나무 잎새사이로 실날같이 비쳐내리는 해별은 오히려 숲속에 웅크린 어둠을 더욱 확인해주는듯하였다. 발 밑에 미끄러지는 무른 이끼와 락엽, 얼굴을 휘감는 덤불과 나무잎과 거미줄... 그 심연 어느 귀퉁이에서 후웅후웅-하는 쉼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깹깹깹》 까투리가 나래를 치며 곁에서 튕겨났다. 가슴이 썩늘해졌다. 그런중에도 무시무시한것은 버섯버섯 어두운 숲을 헤치며 그들의 주위를 감도는 소리였다. 알수 없는 괴이한 형체가 두사람을 노리고 그 두리를 빙빙 돌며 머리속에 무서운 환상을 불어넣었다. 그들은 걸음을 멈추었다. 골짜기에서 줄줄줄 물소리가 들렸다. 다시 걸음을 내짚으려는데 눈앞에서 딱-하고 삭정이 부러지는 소리가 귀청을 찢었다.

《어마나, 현수동무!...》

《음?!》

현수는 자기 팔에 와락 매여달리는 처녀앞에서 침착한 자기를 유지하려 애썼다. 그는 연약한 처녀를 보호하려는 숭고한 일념으로 의지를 가다듬으며 끝이 예리한 탐승지팡이를 꼬나들고 연거퍼 고향을 질러 환상속의 위험을 격퇴하였다. 그러나 숲을 헤치는 버스럭소리는 그들을 감돌며 쉽사리 떨어지지 않았다. 처녀와 총각은 다같이 식은땀을 흘리며 서로 의지하여 한걸음두걸음 산마루로 올라갔다.

무시무시한 숲속의 소음이 불현듯 멎고 넋출과 어둠이 뒤엉킨 수림을 벗어나 해빛넘치는 수리봉정점에 올라섰을 때 그들은 안도의 숨을 내뿜다가 흠칫하며 굳어졌다. 앞에는 한 소년이 오통 서서 까만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있었다. 바지가랭이에는 도깨비바늘들이 점점이 붙어있었다. 인성이였다.

명희는 휘청거리며 그에게 다가갔다.

《인성아!...네가 어떻게 여길...?》

《후유-》 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땅에 박으며 무너지듯 그자리에 주저앉았다. 초긴장으로 굳어졌던 안면근육이 풀리자 허허-하고 김빠진 소리가 터져나왔다.

명희는 소년의 형클어진 더벅머리를 살뜰히 쓸어주었다.

《우릴 따라온게 너였구나?》 하고 명희는 방긋 웃었다. 《난 그런줄도 모르고 혼이 났구나.》

소년은 고개를 떨구고 발우물을 파다가 떠들거

는 소리로 증얼거렸다.

《전번에 누나를 … 놀래운것도 내가 … 그랬어요…》

소년의 때늦은 고백에 명희는 가슴이 뭉클하였다.

《응, 난 알고있었지. 알고있었어…》

《그래서 나때문에 … 속이 타서 … 누나 떠나지요?》

《…》

명희는 쏘아지려는 눈물을 참으며 머리를 저었다. 바람에 뜬 소년의 두볼에는 눈물이 구울러 맺혔다. 명희는 물결치는 소년의 어린 어깨를 꼭 그리안았다. 형언키 어려운 그 무엇에 목이 메었다.

그러나 헤어지지 않을수도 없었다.

거센 바람에 휩쓸려 땅을 밟으며 누워자란 참나무들이 뿌리박은 수리봉우에는 소년만이 홀로 남았다.

명희는 눈물을 머금고 현수를 따라 산을 내리었다. 가파른 산은 오르기보다 내리기가 더 힘들었다.

은은한 산울림이 홀연 그들을 휩쌌다. 그 메아리는 다시 메아리를 낳으며 푸른 산발들을 울리었다.

《누나!-》

《누-나-잘-가-세-요-》

아, 떠나는 이 누나를 용서해다오. 나를 잊어다오!…

그들은 군인민위원회 교육부에 들러서 운곡리의 문맹퇴치정형을 보고하고 대학수험통지서들을 받았다.

《운곡리의 교원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현수가 묻자 교육부시학은 편수책상을 짚고 일어서서 침울하게 그들을 마주보더니 사무실구석을 두벅두벅 오가기 시작하였다. 왜정때 무산아동들을 가르치면서 《히라가나》는 우리 글이 아니라는 소리를 했다가 옥고를 치를 때 생긴 습관인듯했다.

그는 두 짚은이를 돌아보며 《생각같아서는 지금 이몸이 홍길동이처럼 열, 백으로 변했으면 좋겠소.》 하고 서글프게 웃다가 옆구리를 짚고 줄달아가침을 껏었다.

웅글은 기침소리는 그날밤이 지새도록 명희의 귀전을 울렸다. 어디선가 울려오는 은은한 메아리가 그를 부르기도 하였다. 아, 운곡리의 전부가 비낀것 같은 소년의 까만눈, 그 눈길을 어디에 간들 피할수가 있을까…

《그건 가냘픈련민의 정이요.》

이튿날 아침에 만난 현수는 이런 규정을 내렸다.

가냘픈련민의 정… 련민의 정…

그런데 이런 감정은 그 어떤 맹렬한 리성으로도 누르기 어려웠다.

《련민의 정이라…》 교육부시학은 다시 찾아온 명희앞에서 오래간만에 활기를 띠고 미소를 지었다.

《그게 어째서 한갓 가냘픈련민의 정이겠소. 그

건 눈뜨기 시작한 거대한 사회적자각이요. 자기를 알아야 하오. 아이들에 대한 그런 애정을 떠나서 교육을 생각할수 없고 교육을 떠나서 민주건국의 장래를 논할수 없지.》

그는 한동안 사무실을 거닐다가 해방의 은인이신 **김일성** 장군님의 초상화앞에서 삼가 걸음을 멈추었다.

《장군님의 부친이신 김형직선생님은 반일민족해방운동의 걸출한 지도자로서 후대교육에도 큰힘을 넣으시였소. 직접 교편을 잡기도 하시였다오. 그분께서는 늘 〈지원〉의 애국사상을 주장하시였소…》

그후 명희는 립시교원이 되었다.

대학으로 혼자 떠나게 된 현수의 얼굴은 어두웠다.

《명희동무, 우린 순간적인 감정을 누르고 보다 리성적으로 사고할수도 있지 않았을가. 결국 수학에 뜻을 두었던 동무는…》

《현수동무, 너무 심각하게 그러지 마세요.》 하고 명희는 웃어보였다. 《래년에는 자격교원들이 많이 온대요. 저는 그때 대학시험을 치겠어요.》

그들은 이렇게 헤어졌다.

운곡리에 인민학교 분교가 서고 명희가 교원으로 임명되어 여러문명의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한지도 1년하고 또 몇달이 지났다. 그간 동네북판에 세칸짜리 학교건물이 일떠섰다. 세번째칸은 동네어른들이 저녁마다 모여드는 갈노전을 간 온돌방이었는데 거기에도 칠판이 붙어있고 남포등이 걸려있었다. 교사앞에 장바 뒤기장되게 운동장도 닦고 뒤산비탈에는 장포수가 고성읍에서 떠다가 기증한 감나무 모를 심었다. 두리에는 귀한 소금까지 뿌렸다. 그때 열두명의 학생들은 마치도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듯하였다. 교재원의 첫 과일나무에는 어느덧 봄물이 오르고 움이 트며 어디선가 그윽한 봄향기를 실어오는듯하였다.

명희도 이 기간에 퍼그나 숙성해졌다. 구름같이 귀전을 덮는 검은 머리를 쌍태지어 따내렸는데 가냘프던 어깨는 풍만해지고 흰 이마는 고요하고 부드러운 빛을 담고있었다. 1950년도 봄방학을 내려온 현수가 교구비품을 타러 읍으로 나온 명희를 보고 놀란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그런데 다감한 심정이 그대로 내비치는 처녀의 두눈에는 한가닥 그들이 비껴있었다. 역시 최인성이때문이었다. 그애는 아직 《점》을 리해하지 못하고있었다.

《점이라니?》 현수는 잠시 얼떨떨해졌다. 《실마수학에서 면, 선, 점… 하는 그 기초적인 〈점〉은 아니겠지?》

《바로 그 〈점〉을 리해 못하는군요…》

수십에 잠긴 명희앞에서 현수는 하늘을 우러러 웃지 않을수 없었다.

점이란 가장 단순한 개념이 아닌가! 수학에서는 평면이 직선들로 이루어졌고 그 직선은 또한 무수한 점들의 모임이라고 보고있다. 말하자면 점이란 가장 원초적인 개념인것이다. 그런데 그 《점》을 리해 못한다?

어이없어 껄껄 웃는 현수앞에서 명희는 민망한듯 두볼을 활짝 붉혔다.

《그래 명희동문 아직도 그애한테 미련을 두고있소?》

기가 막힌듯한 현수의 물음에 명희는 순박한 어린애처럼 고개를 끄덕이었다.

《두고보세요. 인성이는 장차 큰사람이 될거예요.》

《그걸 민소? 그 산골에서 1년사이에 명희동무가 이토록 단순해졌단말이요? 더이상 거기에 눌러있다면 아주 산골사람이 되고말겠소. 수학계의 하우스가 되리라던 스승과 동창들의 기대를 이렇게 저버릴셈이요?... 명희동무, 대학진학은 아직 늦지 않았소. 올해엔 자격교원들도 퍼그나 늘었다는데 이제 명희동무가 그 산골을 뜨지 못할 리유란 없지 않소?》

《그애를 정각 남한테 맡기고 떠나자니 이젠...》 명희는 눈을 감고 머리를 저었다. 《...그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혹시 인성이를 물리해하는 교원이 맡게 되면... 인성이는 남달리 생각이 엉뚱한 애인데...》

《생각이 엉뚱하다? 하...》

《그렇게 자주 웃기만하니 어디...》

명희의 낯은 더욱 붉어졌다. 그제야 현수는 웃음을 거두었다.

《혹시 그 인성이라는 애가 비상한 아이일수도 있겠지. 아주 천치거나!... 하지만 명희동무, 그런 가혹한 정성이 언제면 은을 낼가. 결실을 보거나 할가? 그걸 바라고 사서 고생하느니 차라리...》

《그게 고생일가요. 왜 그런지 인성이한테 점점더 정이 가요. 정에 끌려서 하는 일은 기쁜 일이 아닐가요?》

《사랑은 희생이기도 하다는 말이 있소.》

애젊은 두 청년은 아직 체험으로 굳어지지 못한 관념으로 인생을, 미래를 론하고있었다. 때로 어성이 높아지며 격렬한 론점에 도달하기도 하였지만 이어 가라앉곤하였다.

헤여지기전에 명희는 말하였다.

《이제 인성이네를 한해 더 배워주고는 저도 운곡리를 뜨겠어요.》

《어제 오늘 못떠난 사람이 래일은 떠날것 같소?》

《...》

명희는 자기 내부를 응시하듯 한동안 대답이 없었다.

그 말이 옳을지도 모른다. 래년에도, 후년에도 그리고 영영 이곳을 뜨지 못할런지도 모른다.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닐가! 그렇다면... 그렇다면 허리굽은 할머니가 되도록 철부지 아이들속에 남아있어야 하나...

명희는 이런 객관적인 판단과 결론에 스스로 당황해났다. 그는 저도 모르게 머리를 저으며 방긋 웃었다.

《래년엔 이곳을 떠나겠어요.》

《그럼 그렇겠지.》

새 조선의 두 젊은이는 약간한 언쟁후에도 웃으며 헤어질수 있었다. 그들은 그런 시절에 살았다. 앞길은 멀었고 그우에는 아름다운 노을이 비껴있었다.

그로부터 두달이 지난 6월의 네번째 일요일 명희는 인성이네를 데리고 들꽃을 꺾으러 나갔다.

그날 새벽에 전쟁이 일어났다는것을 그들은 저녁녘에야 알게 되었다. 며칠후 동네사람들은 해빛을 가리며 날아지나는 낫선 비행기떼를 보았다.

운곡리에서는 두명의 아들들이 전선으로 나갔다. 천일수라는 애기아버지와 김상철청년이였다. 그들은 동리좌상인 장포수에게 큰절을 한뒤 성인학교 교원인 명희와 마감으로 작별하였다. 손우 오빠벌되는 장정들이였지만 모자를 벗어두고 깍듯이 하직인사를 하였다.

《선생님, 몸성히 계십시오.》

《선생님, 전쟁을 이기고 돌아와서 마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인성이를 부탁합니다.》

청년들은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하여, 살뜰한 녀선생을 보내준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총을 메고 떠나갔다.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비겁하지 않을것이다.

명희는 눈물을 머금고 첫 제자들을 배래웠다.

《인성이를 부탁합니다!...》

그리하여 명희는 무거운 어깨를 추스르며 마음속으로 화답하였다.

념려마세요... 녀려마세요!...

전쟁의 불구름은 이 심산골을 에둘러 흐르는듯했다. 그러나 전쟁 제4계단에 이르러 전선이 이곳에서 남쪽으로 얼마 멀지 않은 까칠봉과 1211 고지부근에 고착되자 이 동네는 전선지구나 다름없었다. 매일과 같이 폭탄과 눈먼 포탄이 떨어졌다. 학교가 위태로웠다. 마을사람들은 어린 감나무를 심었던 뒤산중턱을 파고 반토굴교실을 지었다. 칠칠한 소나무아지를 지붕에 얼기설기 얹어 위장을 하고 좁은 피창에는 차광막을 드리웠다. 명희는 밤이면 탄약과 음식보통이를 이고지고 전선원호대에 끼여 산발을 뒀고 때로는 부상자들을 돌본후 밀려드는 줄음을 재촉하듯 까뭇거리는 교실의 등잔불밑에서 교수안을 짰다. 급하게 달리던 펜끝은 때때로 멈춰서

곤하였다.

《점이란 무엇인가?》

점... 기초과학인 수학의 기저에 놓인 하나의 점!... 한 학생은 여전히 이해를 못하고있다.

인성이가 1학년때 명희는 점에 대해서 이미 교수 하였었다.

《학생들이 보는것처럼 백묵이나 연필로 이렇게 찍어놓은것이 바로 점입니다.》

학생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였다.

《작으면 작을수록 그것은 진짜 점에 가까와집니다.》

설명을 덧붙인 교원이 이번에는 직선에 대한 교수에로 넘어가려 할 때 인성이가 질문하였다.

《진짜 점은 얼마나 작습니까?》

얼마나 작은것인가? 끝없이 끝없이 작은것, 그보다도 더 작은것이다. 령은 아니지만 령과 같은것이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거둬질수록 학생의 의문은 더욱 커졌다.

《그러면 점이란 대체...?》

매번 처음으로 되돌아왔다.

《바본 바보야...》 학생들속에서 키득키득 웃음이 터지자 인성이는 수수떡빛이 되여 고개를 떨구었다가 덜커덕- 의자를 젖히고 교실밖으로 나가버렸다. 내다보니 벌써 종적이 없었다. 또 도망군이 되고말았는가!

수업을 마친 명희는 숲막으로 찾아갔다. 인성이는 없었다. 성이 똑같이 오른 숲막집로인과 함께 참나무숲을 헤매며 그를 소리소리 목놓아 불렀다.

숲속에 땅거미가 깃들었다.

이어 캄캄해졌다.

명희는 목이 짹 잠겼다.

불현듯 골짜기 아래쪽에서 나무우에 숨어있는 인성이를 끌어내리는 숲막집로인의 고탍소리가 들려왔다. 명희가 허둥지둥 덩불에 걸쳐며 달려가보니 로인은 벌써 회초리를 꺾어 들고 인성이의 종아리를 치고있었다.

《이 빌어먹을 녀석!... 사람구실 못할녀석!...》

그 때운 회초리는 명희를 후려치는듯했다. 온몸이 떨렸다.

《이러지 마세요!》

명희는 바지가랭이를 당겨올린채 떨고있는 인성이를 감싸안았다.

《내버려두시우. 이놈은...별수가 없는놈이웨다... 천생 멍텅구리지요!...》

로인의 목소리는 마디마디 비감에 젖어 떨리고있었다.

명희는 어둠속에서 머리를 저었다. 목이 짹 잠겨 말이 나가지 않았다. 그는 온 천지에 대고 웨치고싶었다.

아니예요!... 인성이는 바보가 아니예요!...

그날부터 1년간 명희의 교수안에는 《점》이 떠날줄 몰랐다.

인성이는 령과 같으면서도 같지 않은 개념을 이해하려고 애쓰는것이다. 점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고등수학의 문턱에서 이루어진다. 도함수와 극한을 이해하는 경지에 올라야 한다. 험한 이 지름길을 소년이 도약할수 있을까?

《인성아, 힘껏 달려보자!》

명희의 가슴은 편다.

소년은 교원이 밤새워 찾아낸 지름길을 따라 장거리달리기를 하였다. 밤에도 달렸다. 녀교원의 꿈속에서도 달렸다. 점점 작아지는 점을 쫓아 그 점을 붙잡으려고 달렸다. 달리다가는 넘어지고 넘어지면 부축하여 달린다.

전선의 두 제자한테서 때때로 편지가 날아왔다.

《선생님, 몸건강하십시오?》

선생님한테서 배운 글로 이렇게 적습니다. 글씨가 아직 서툴러 부끄럽습니다.

저는 분대장의 임무를 수행하고있습니다. 지금 또 한차례의 전투를 치르고 갱도에서 무기소제를 하는 짬에 강릉태생친구에게 짜증을 내며 〈가가표〉를 익혀주느라니 자연 선생님생각이 납니다. 우리 까막눈들을 퇴워주시느라고 그처럼 속을 태우셨지요. 참 그때는 매일매일이 명절이었지요...》

상철의 편지우에 명희의 눈물이 점점이 떨어졌다. 잘 싸워주세요, 우리 고장사람들 부끄럽지 않게 싸우세요. 그리고 꼭 돌아오세요!

저는 동무들을 배워주었지만 오늘은 도리어 큰것을 배웁니다. 고마워요, 이 세상에 나처럼 행복한 교원이 있을까요!...

어느날 밤에 전선원호대를 따라갔다가 새벽녘에 돌아와보니 반토굴교실 지붕은 소이탄의 불길에 산산이 흩날려버렸다. 꺼명게 탄 교실벽과 불탄뒤의 초연이 려명속에 푸르스름히 떠오를뿐...

포연에 그슬린 명희의 검은 두볼을 씻으며 눈물이 굴러내렸다. 그는 만신이 증오로 빚어진 석상처럼 그앞에 굳어져있었다.

책상도 결상도 교수안도 풍금도 칠판도 타버리고 없다.

그러나 교원이 있고 학생이 있다.

그는 자신을 수습하며 흩어진 반토굴교실을 거두어내고 백묵조각을 주어들었다.

해뜰무렵에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12명 전원출석이다.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는 백묵을 들어 포연에 검은 교실벽에 수학공식을 썼다. 학생들은 책상순서대로 줄을 맞추어서서 학습장에 받아썼다.

수업은 계속되였다.

인성이의 개별지도도 계속되였다.

《점이란 무엇인가?》

령은 아니지만 령으로 끊임없이 다가가는 그것, 그 미지의 형체를 붙잡으려고 소년은 내달린다. 도함수의 극한, 령으로 수렴하는 경계로 육박한다. 점은 잡힐듯말듯 손끝에 가칠거리다가는 또다시 멀어진다.

산너머에서는 장시간의 둔중한 포성에 이어 우뢰같은 메아리가 연줄연줄 파도쳐온다. 돌격의 함성이 들리는것만 같다. 불비속에서 군악이 울린다. 김인택영웅의 뒤를 이어 김룡택이 351고지중턱의 불뿔은 화점을 노려보며 일어선다.

소년은 5년의 과정을 비약하고있다. 점점 눈앞에 가까워지는 점의 정체를 찾아...

승리의 날은 다가오고있었다.

《선생님, 이제 알겠습니다.》

고등수학의 대문가에 이르러 독립변수의 증분이 령으로 다가갈 때 평균속도의 극한을 구하고 그를 일반화하는 공식을 써나가던 소년은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그의 학습장에는 《점이란 너비와 길이는 없고 위치만 있는것》이라고 조선말사전에 오른 몇마디의 말을 수학적으로 이해하기까지의 기나긴 로정이 간단히 1계도함수식으로 표시되어있었다. 그것은 1953년의 어느 여름날이었다...

며칠후 운곡인민학교의 제1기 졸업식이 열리었다.

물날은 양복에 전선원호의 공로로 받은 군공메달을 단 명희가 열두명의 학생들과 여러 학부형들이 모인 졸업식장에서 학사보고를 하였다.

《김병호, 리옥순, 최인성 학생들은 1948년 5월 3일에 입학하여 오늘까지 인민학교 5학년 전과정을 마치였습니다...》

졸업증이 수여되었다. 인성이는 전 과목이 5점이였다. 더이상 평가할수 있는 점수는 없었다.

세명의 졸업생들은 초급중학교로 떠나기전에 반토굴학교두리를 한바퀴 돌았다. 8월은 이른 수확의 계절이다. 그러나 몇년전에 심은 감나무엔 열매가 없었다. 잎은 무성하나 키는 여전히 무릎을 치니 이제 가을을 몇번 더 맞으면 인성이네 동생들은 열매를 보게 될것이다.

《그애들은 감을 따겠지요. 누가 심었는지도 모르구...》

졸업생들은 서운한듯 교원을 바라보았다.

《그래 인성인 기쁘지 않느냐?》

《저야 뭐...》

《기쁨은 두가지란다. 주는 기쁨이 있구 받는 기쁨이 있지.》

《그러니 저도 기뻐해야겠지요.》

《기쁨은 아는게 아니라 느끼는거란다.》

세 졸업생들은 교원이 몇해전에 사다두었던 흰줄두른 중학생모자를 쓰고 장포수령감의 길안내를 받

으며 수리봉너머 초급중학교로 떠나갔다. 거기서 기숙을 하면서 공부하다가 방학때면 찾아올것이다.

인성이네는 두결에 한번씩 뒤를 돌아보았다. 산비탈의 잡관목숲에서 모자들만 언뜻거리다가 이어 가뭇없이 사라져버렸다.

(인성이는 이제 어떤 교원을 만나게 될가?! 그애의 개성을 리해하는 선생을 만났으면 좋으련만...)

인성이네가 떠난지 이윽하여 수리봉중턱에 떠를 두른 안개밭속에서 은은한 음향이 들려왔다. 메아리는 메아리를 낚으며 산발을 울렸다.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

명희는 가슴한끝이 뭉쳐 떨어져나가는듯했다. 기쁨에 겨우리라 기다리고기다리던 이날이 아니었던가. 마감이란 이런것인가.

그러나 며칠후 9월 1일에는 신입생들이, 기쁨과 시름의 새로운 세계가 찾아와 마음의 문을 두드릴것이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채 여물지 못한 애된 목소리가 또랑또랑 울릴것이다. 다만 전쟁을 끝내고 다시 돌아와 공부를 마쳐 하겠다던 이 마을의 두 젊은이는 영영 돌아오지 못하였다.

개교준비로 바쁜 8월 31일에 전사의 영예훈장을 단 제대군인이 명희를 찾아왔다. 낮이 설었다. 전사의 칼끝이 새겨놓은것 같은 날카로운 얼굴... 상철의 편지에서 알게 된 강룡태생의 의용군청년이었다.

《저는 김상철분대장동지한테서 글을 배웠습니다...》 전쟁을 이긴 청년의 말소리는 젖어있었다. 《분대장동지 대신... 제가 왔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돌아왔다.

명희는 말없이 그의 굳센 손을 잡았다.

이듬해 봄에 마을에서는 다섯칸짜리 학교건물을 세우고있었다. 서까래를 얹고 진재를 올리는 일을 거들고있는 명희앞에 현수가 불쑥 나타났다.

대학졸업장을 받고 찾아온 그는 3년간에 엄숙해지고 눈만 남은것 같이 수척해진 명희앞에서 떠오르는 동정심을 애써 감추려는듯 노상 소탈하게 웃는 얼굴이었다.

《최인성이라는 애가 이제는 〈점〉을 리해하였소?》 하고 묻는 현수는 확실히 기억력이 좋았다.

명희의 얼굴은 소박한 기쁨으로 환해졌다. 몇년간의 노력은 단 한마디로 응축할수 있었다.

《끝내 점을 리해하였어요.》

《다행이구만.》

현수는 위안하듯 고개를 끄덕이였다.

《수학자의 푸른 꿈은 어디로 가고... 참, 이제보니 명희동문 타고난 교원처럼 보이누만. 하하하...》

《교원처럼 보어요?》

명희의 눈동자에는 천진하던 시절의 동심과 희망

과 그리고 희한의 얇은 그림자가 한순간 언뜻언뜻 비껴가는듯하더니 그 무엇을 초월한 사람다운 평온한 미소가 흘렀다.

《이제 명희동무에게 교원이외의 다른 어떤 직업을 권고한다는것은 아마 부질없는 일이겠지.》

《저는 교원을 계속하겠어요.》

《그 길밖에 없을테지. 인젠 늦었거든! 그런데 내일두 별로 시원치는 못하우.》

현수는 부지중 한숨을 내뿜었다. 그는 자기의 배치문제로 골을 앓고있었다. 실력을 인정받은탓에 대학에 《주저앉게》 되었다는것이였다.

《저도 현수동무의 천직은 고고학자라고 생각했어요.》 하고 명희는 아쉬운듯 중얼거렸다. 《하지만 지금 우리한테 교원이 너무 부족해요. 현실이 달리 요구한다면…》

《교원이 되는것두 나쁘지야 않지. 숭고한 사업이니까. 그런데 우리끼리니 말이지만 개체발전은 교원이 되는 그것으로 끝이란 말이요. 노력한 대가는 교원에게 돌아오지 않소. 결국 손실뿐이지.》

《현수동무…》 명희는 안타까웠다. 《그걸 어쩌서 손실로만 생각하세요.》

《바치는것만큼 후에 돌아온다는거요?》

《…》

동문서답이였다.

《명희동문 이자 무슨 대가와 보상을 말하는것 같는데…》

《아니예요… 그 말이 아니예요…》

《그럼 무어란 말이요? 교원을 추동하는 의욕이라는것도 있을것 아니겠소.》

《그건…》

명희는 떠듬거렸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였다. 눈앞에는 골짜기를 휩싸는 포연과 불길과 상철분대장의 편지와 크고작은 여러 점들이 일시에 떠올랐다가 뻥얇게 흐려졌다. 더운 눈물이 찡하니 감돌면서 가슴은 그 어떤 격동과 환희로 다시금 끓어오르는듯하였다. 그는 그때의 벽찬 심정을 전달하려고 애썼다.

현수는 명희의 소박한 기쁨의 세계를 굽어보며 빙긋이 웃었다.

《그건 일종의 자기 위안이요. 명희동문 현재에만 집착하지 말구 일생을 총화하는 기점에 자기를 세워보는것이 좋겠소. 인생의 가을을 생각해봤소?》

인생의 가을!… 명희는 말문이 막혔다. 그것은 미처 내다보지 못한 세계였다.

현수는 눈을 들어 구름이 피는 하늘가를 바라보았다.

《문제는 교원에게 그 수확의 계절이 돌아오지 않는다는데 있소. 교원을 열매가 아니라 흔히 뿌리에 비유하는데 역시 일리가 있는 소리요. 가을이 온다면 그건 쓸쓸한 가을일거요. 나는 그때의 명희동무

가 눈에 보이는것 같소. 학생들에게 자기의것을 다 나누어주고 허전한 심정으로 서있는 명희동무가…》

현수의 말소리는 동정에 넘쳐있었다.

명희는 자기앞에 락엽이 덩구는 처량한 가을이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한적이 없었다.

《저는 그런 앞날을 믿을수가 없어요.》

《순진한 생각이요. 자기를 위안하는 소리거나… 바로 그 엄연한 진실을 보려 하지 않기때문에 명희동문 희망이 기다리는 길에서 물러선거요. 용서하오만… 나는 그렇게 되고싶진 않소.》

《현수동무…》

명희는 말끝을 맺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현수의 생각이 옳지 않다는것을, 그런 리해로부터 출발해서는 안된다는것을 이자리에서 증명하고싶었다. 그리하여 현수가 가려는 그 길이 진정한 성공과 행복의 길과는 인연이 멀다는것을 말해주고싶었다. 그러나 설복해낼수는 없었다.

《우리는 서로 리해할수 없는가보우.》

현수는 떠나갔다.

몇달후 그의 편지가 날아왔다.

《모든 일이 제대로 되었소. 고고학연구사로 배치되었소. 동창생인 한 녀동무의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었소…》

짙막한 편지였다.

명희는 늦었지만 그의 길에 성공이 있기를 멀리서 기원하였다. 그러면서도 인생의 성공에 대하여 보다 중요한것을 벗에게 말하지 못했다는것을 느꼈다. 환희로운 기쁨의 가을에 대하여… 그러나 아직 어렴풋했다. 그 수확의 계절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것인가, 인생은 또 어떤것을 그에게 줄수있단 말인가. 그것은 시간이 보여줄것이였다.

1년, 또 1년이 지나갔다.

졸업생들이 떠나가고 신입생들이 들어왔다.

저녁이면 제대군인청년 윤학선은 명희를 찾아와 공부를 하였다.

그는 속성교육과정안에 따라 벌써 초중2학년 교재를 배우고있었다. 그러나 헤어날길 없는 절망에 빠지기도 하였다.

《선생님, 저는 안되겠습니다.…》

그런 뒤로는 장기 《결석》을 하였다. 그를 돌려세우기가 힘에 부칠 때면 명희는 상철분대장을 생각하며 눈물을 지었다. 그가 돌아왔더라면 자기를 도와 학선을 꾸짖고 이끌어주었을것이다.…”

마침내 방조자가 나타났다. 원산에서 산림조사를 내려온 채희정이라는 원림기사였다. 그는 산림보호원인 학선의 실력과 학업에도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리해력이 있고 기품있는 청년이였다. 그는 명희네 학교 교재원을 꾸려주면서 인간을 키우는 교원이 부럽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두 교사의 도

움을 받으면서 학선은 다시 학업에 힘을 썼다.

점차 동네에서는 뒤소리가 돌아왔다.

《선생님도 시집을 가나?》

《선생님은 사람아니우?》

《님이 나타났으니 상은 우리가 채려야지요.》

눈치없는 아낙네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에 학생들은 교원도 사람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 이 기상천외한 발견앞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이를 알게 된 명희는 저도 모르게 채기사를 피하였다. 그리하여 채기사는 사랑의 고통을 체험하며 홀로 괴로와하였다. 그가 떠나간뒤 명희는 자기감정을 확인하였다. 그리고는 남모르는 수심에 잠기었다.

장포수는 동네 중대사를 그르칠번한 입빠른 아낙네들을 호되게 꾸짖었다. 마을사람들은 중대군을 업선하고 신칙한 다음 원산으로 떠나보내었다.

그해 가을 명희는 채기사와 결혼하였다. 그는 남편을 따라 원산에 가서도 교편을 놓지 않았다. 50고개를 넘어서서도 여전히 인민학교 교원이었다. 출가한 외동딸도 역시 탐사대마을의 수학교원이었다.

《38년간에 800명의 제자라...》

리력문건을 훑던 시교육과의 젊은 지도원은 자기 스승의 스승별되는 너교원을 경건한 눈으로 마주보았다.

《인젠 국가의 혜택을 받을 때가 되었지요. 년로 보장말입니다.》

리명희는 자기가 무엇을 착각한것 같았다. 귀전에서 징-하는 소리가 감돌고 오색별찌가 날아가던 눈앞이 점차 트이며 지도원책상우의 엄나무옹이가 눈을 찔렀다. 그것은 호수에 던진 돌맹이마냥 책상우에 년륜의 파문을 그리었다.

은퇴라!... 벌써 은퇴란 말이지!...

대답이 없이 학교로 돌아간 그는 퇴근후에도 교원실창가에 홀로 서있었다. 어둠이 물드는 창문에는 빛이 바랜 자화상이 넓게 떠올랐다. 일생에 맞고 보낸 학생들은 그 얼마인가. 결실인들 없으랴. 알찬 열매가 있는가 하면 때로 속이 빈 열매도 있었다. 그래도 수확은 수확이었다. 그러나 무거운 열매는 뒤늦게 무르익는 법이다. 그렇다. 인생의 진정한 가을, 기쁨의 계절은 아직 앞에 있다고 그의 예감은 소리쳐 귀뜸하는듯했다.

또다시 교원생활의 1년, 2년이 흘러갔다. 그는 여전히 왕성한 기운으로 학생들과 어울릴수 있었다. 분주한 날들이 흘러갔다.

그날도 퇴근후에 밥을 갖쳐놓고 숙제장들을 검열하고나서 늦어지는 남편을 기다리며 텔레비존에 나타난 유전학계의 중진인 50객의 점잖은 사나이를 지켜보며 그는 자기 귀를 의심하였다.

《최인성??》

인성이라니, 그럴리가 없다. 텔레비존좌담회의 주인공은 40여년전의 제자와 비슷치도 않았다. 그러나 그 오목눈만은... 누구나 무조건 존대하던 교원을 먼저 한 인간으로 받아들이던 눈, 현상의 갈피를 헤치고 본질을 응시하던 눈, 한 《점》의 정체를 집요하게 추구하던 까만 오목눈은 점점 확대되어 명희를 향하여 다가왔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태고의 정적, 뛰엄질하는 벽계수와 칭칭 뒤엉킨 칙넝쿨, 검은 그늘속에서 울리던 못짐승의 울음소리...

《나는 강원도 산골에서 나서 자랐습니다.》 하고 텔레비존의 최인성은 말을 이었다. 《당과 조국의 고마운 손길이 없었더라면 나는 그 산골에서. 체 이름조차 쓸줄을 모르는 완전한 산 사람이 되었을것입니다...》

이때 원산에서 멀지 않은 황룡산마루의 방수포천막에서도 고고학자들이 텔레비존을 보고있었다. 그중 머리가 희끗희끗한 년장자가 상아물부리를 떨구며 눈을 홑떴다. 그는 무심히 스쳐지났던 태고적의 비밀에 다시 접한 때처럼 놀라고 흥분되었다.

《인성이라니?!...》

《세계유전학계를 뒤흔든 이번 연구성과는...》 하고 텔레비존좌담회에 참석한 연구소 소장이 감회에 젖어 설명하였다. 《...최인성동무가 대학졸업후 30년간에 걸쳐 이룩한 고심참담한 탐구의 열매입니다.》

《응당한 귀결이다.》 현수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명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 과연 헛되지 않았어...》

《나는 이 기회에 소장으로서 최인성동무의 연구를 물심량면으로 뒤받침하는 사업에 헌신한 여러 선배들과 동지들 그리고 연구집단의 노력을 두고 이야기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만... 이자리에는 유전학자의 첫걸음을 떼여준 옛스승도 참석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기자가 그 말을 받았다. 《훌륭한 제자의 뒤에 서있는 스승을 우리가 어찌 잊을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교원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수십년이 지난 뒤에 비로소 이루어진다고해도 과언이 아니군요.》

《웁은 말씀입니다!》

좌담회참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수궁하는데 한켠에 앉아있던 유전학전문가인 대학교원은 먼구한듯 대머리를 붉혔다. 그는 굳이 마이크를 사양하다가 나중에 떠엄떠엄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최인성학생은 대학초기에 벌써 장래가 촉망되

는 과학도로 단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를 배워주면 둘을 깨우쳤습니다. 교원으로서 내가 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유전학계의 유망한 싹을 그때 확인한것뿐입니다.》

《축하합니다!》 기자는 여러 사람을 대신하여 교원에게 찬사를 보냈다. 박수소리가 울렸다.

《선생님은 오늘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기쁩니다. ...정말이지 내 제자가 ...잘되었을 때처럼 그렇게 기쁜 순간은 더는... 없는가봅니다...》

대학교원은 저도 모르게 눈곱에 손을 가져갔다.

(인성이를 떠나보낼 때 난 종시 마음을 놓칠 못했지. 계모의 손에 동생을 말기는 누이처럼... 친누이는 나혼자뿐이라고만 생각했지, 나혼자뿐이라고!... 그건 자기를 믿지 못하는거나 같았어. 다른 사람들의 높은 세계를 인정하려면 나자신 그 높이에 올라야 했지.)

《옛 담임교원에게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기자의 말에 박수가 터져올랐다.

박수소리는 오래동안 울렸다.

(장하다. 인성아, 너는 끝내 오늘을 맞이했구나!)

박수소리는 고고학자들의 천막에서도 오래도록 울리었다.

현수는 텔레비존화면에서 얼굴을 돌리고말았다.

(기막힌 일이군. 저 사람들은 유전학의 근처에 수학이 놓여있다는 엄연한 리치는 생각 못하는가. 세상일이 이럴수가 있나!...)

리명희교원은 몇달후에 40년간의 공로로 높은 국가수훈을 받았다. 여기에는 대를 두고 전해질 이야기가 있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공로있는 과학자들과 기술인군들을 접견하신 석상에서 교아로 자라난 최인성학자의 과거이야기를 들으시다 그의 인민학교시절 담임교원이 누구인가고 친히 관심하시였다. 최인성은 그때 어린애처럼 울먹이며 리명희교원에 대하여 말씀울리었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나에게도 고마운 스승들이 있습니다라고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리명희교원은 영광의 절정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각지에서 수백통의 편지와 전보와 가까운곳의 제자들이 꽃보라처럼 날아들었다. 그중에는 림현수의 편지도 있었다.

《리명희선생, 옛 친우의 축하를 받아주시요!

나는 이전에, 바로 얼마전까지만해도 명희선생의 일을 축은하게 여겼댔소. 고고학자의 지평이를 버려두고 대학문을 나선뒤에 전국각지를 편답하면서 검은모루의 타계석기나 《력포사람》의 화석을 감정하기도 하고 선봉군 굴포리유적을 발굴하는 등 학계의 사변적인 일들에 분주히 참여하여 학자의

명성을 얻으면서도 나는 가끔 산골아이들에게 청춘을 바친 한 녀교원의 수고가 속절없이 묻혀버리지 않겠는가 하고 어둡게 생각했댔소. 이런 생각은 몇 달전 텔레비존좌담회를 시청할 때 절정에 달하였소.

그때 어느 누구도 수십년전의 리명희교원을 상기하는 사람은 없었소. 모든것이 거기서 시작되며 또한 모든 의미가 비껴있는 하나의 점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었소. 세상일이 이럴수가 있겠소!

나는 친우의 의리만이 아니라 한 시청자로서의 도의심을 누를수 없어 마침내 최인성학자에게 장문의 편지를 썼소.

〈...셈세기를 배워준 스승을 잊었는가, 명희선생은 노력에 상응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터놓고 말해서 이것을 바람이 없이 자기를 바칠 그런 사람이 있겠는가, 인간은 일반이다...〉

너무도 서두른 편지였소. 당과 국가에서는 그 공로를 잊지 않고있었소. 리명희선생에게 큰 국가수훈을 내리는 정령에 접했을 때 나는 감격을 제어할수가 없었소. 바치면 바치는 그만큼 대가와 보상이 돌아오는것이 우리 사회, 우리의 현실이 아니겠소!

눈물겨웠던 자기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소. 인생의 가을을 다시 한번 축하하오!...》

리명희는 그이듬해 가을에 교단을 떠났다.

은퇴의 첫날에도 그는 습관처럼 새벽 4시 30분에 눈을 떴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서둘것이가 없다는 것을 느끼며 다시 잠자리에 눕자마자 눈이 초롱초롱해졌다.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었다.

하루종일 그러하였다.

귀따갑게 떠들썩하는 어린 학생들의 소요가 없는 적막은 오히려 그를 불안케 하였다.

(이건 어제날의 타성이다. 차차 습관되겠지! 40년간의 리즘이 변하려면 아마 시일이 퍼그나 걸려야 할것이다.)

그는 이렇게 자기를 달래며 매일처럼 저도 모르게 학교길로 내짚어지는 자기의 발걸음을 강잉히 멈춰세웠다. 은퇴한 선수권보유자가 경기장에 다시 뛰어들고싶은 로년기의 만용을 억제하는것과도 비슷하였다. 자칫하면 이전의 기록과 명예와 좋은 인상을 흐릴수 있기때문이다. 사실 리명희는 힘이 전과 같지 못함을 때때로 느끼면서 젊은 교원들의 짐이 될가봐 원심을 쓰며 어제까지 자기를 견제해온 터였다.

(차차 나아지겠지...)

그는 책도 보고 산책도 하였다. 송도원의 시원한 해풍과 모래볼의 해별을 쬔었다.

안정...추억...휴식... 명예에 대한 기꺼운 의식으로 충만된 나날이 흘러갔다.

수백명의 제자들은 갑자기 철이 든듯 더 자주 안부를 물어오고 온천과 안경과 여행을 권하였다. 원산 시내에서 교원을 하는 제자들은 교육절에 스승의

집을 찾아왔다. 영예칭호를 수여받는 학교에 초대되기도 하였다. 그는 때로 묵은 일기장을 꺼내놓고 《인민교육》 잡지에 보낼 무슨 간단한 저술같은것을 시도해보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모든것은 어떤 경우이나 오로지 지난 날과 결부될것들뿐이었다. 《선생님, 생각나십니까!...》, 《그때 저는 몹시도 선생님의 애를 태웠지요...》, 《참 다시 올수 없는 시절입니다...》

《그리운 리명희선생님!...》 하고 최인성학자도 편지에 썼었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운곡인민학교로 찾아가니 모두 낯선 교원들뿐이었습니다. 1기졸업생이 왔다고 반기며 두손을 잡아주는 그들속에 낯익은 담임선생님은 없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바로 리명희선생님이었지요... 8월이라 교재원에서 올라파를 따더군요. 49년도에 우리가 심은 감나무에 푸른 감알들이 가지가 휘게 열렸습니다. 그 두리에서 떠들썩하는 학생들을 보느라니 발길을 땔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인성이는 기쁘지 않으나!... 어디선가 부드러운 목소리가 다시금 들려오는것 같아 뜨거운 눈물이 앞을 가리었습니다.

대학을 나온지도 몇십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운곡리시절의 명희선생님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날밤 명희는 꿈에서 어린 인성이를 보았다.

소년은 축구공만한 《점》을 쫓아 달리고있었다. 그 《점》은 점점 작아지며 멀어졌다. 기를 쓰며 따라 달리는 인성이의 모습도 점점 멀어졌다. 처녀교원은 그뒤를 따라가며 무어라고 웨친다. 어느덧 점도 인성이도 보이지 않는다. 어디선가 점을 붙잡았다고 웨치는 소리가 들려온다. 기쁨에 가슴이 터질듯하여 그애를 부르다가 소스라치듯 잠에서 깨면 모진 아픔이 가슴을 휘저었다. 그만큼 꿈은 달콤하였다. 그런 날은 아침부터 온종일 울적하였다.

무엇때문에 나는 존재하는가, 반기 위해서?... 추억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라던 생활인가!

가슴이 옥죄여들며 날이 갈수록 맥박이 불규칙적으로 뛰었다. 심장신경증이 생긴것 같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 증세를 두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속담을 들면서 장난곳은 수백명의 철부지들을 키워내느라 심장이 파로한것이라고 설명하였고 또 어떤이는 그 지론을 반박하면서 은퇴후의 고독이야말로 심화병을 초래케 하는 근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모를 소리들이었다. 그는 동네이웃들과도 인차 어울릴수 있었던것이다. 예순을 전후한 동년배들은 리명희를 공로가 있는 옷사람으로 환대를 하며 그를 자기들의 두레에 받아들였다. 어떤 날은 동네 늙은이들이 일쑤질쑤하며 이웃집 머느리흥을 보기도 하였다. 땅이 꺼지게 한숨을 짓는 축도 있었다.

가지를 쳐가며 점점 열이 오르는 화제의 번두리에 앉아있던 리명희는 묵묵히 그자리를 떠났다.

《여보, 웬일이요?》 어느날 퇴근한 남편은 부뚜막앞에 멍하니 서있는 리명희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반년사이에 흰머리가 생겼소그려!》

설핀 귀밑머리에 떨리는 손을 가져가는 남편앞에서 리명희는 소녀처럼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떨구었다.

그후 리명희는 꿈에서 더 자주 운곡리를 보았다.

눈이 까만 소년의 손을 잡고 숲속을 걸어가는 자기를 보았다. 실날같이 비껴내리는 해빛, 못새들의 울음소리, 빨강게 물이 오른 나무가지를 건드리는 녹녹한 봄의 대기... 이것이, 이 모든것이 누가 말하듯 눈물겨운 자기 희생의 나날이었던가.

아, 그 꿈에 다시 잠길수만 있다면!...

이런 생각은 끝내 그를 질식시킬것 같았다.

그의 꿈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남편은 몇달동안 말이 없더니 하루는 이사집을 싸자고 하였다.

《나도 년로보장을 받겠소. 이제 젊은 지도원들한테 자리를 넘겨줄 때가 된것 같소. 지금까지 짬짬이 써오던 산림경영학도서를 현지에 틀고앉아서 완성하겠소. 운곡리에 립산사업소가 들어왔은지도 퍼그나 되었으니 별목뒤그루로 나무심을 일거리도 많을거요. 그리로 갑시다. 우리가 처음 만난곳도 운곡리였지...》

리명희는 운곡리에 첫걸음을 질은지 42년만에 남편과 함께 두번째로 수리봉을 넘었다. 원목들을 그득히 실은 추레라차들이 드넓은 령길로 달리고있었다.

봄... 때는 다시 봄이었다. 흰눈을 인 해발 1,400미터의 산정점으로 연두색 봄빛이 거슬러 흐르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활기를 띠는 립산사업소의 주택지구에 배정받은 두칸짜리 단층주택의 안팎을 털어내고 이사집을 풀어 대충 정리한 뒤에도 리명희는 생소한 교장에 온듯 서먹서먹했다. 꿈은 꿈이었다. 그를 알아보는 이웃조차 없었다.

그는 산림조사를 떠나는 남편에게 점심그릇을 들려보내고나서 한동안 우두커니 서있다가 텅빈 마당을 두번째로 쓸기 시작하였다.

문득 울타리너머 이웃집 프락에서 나 많은 녀인의 버락치듯하는 욕설이 들려왔다. 아이들을 꾸짖는 소리에 리명희는 저도 모르게 가슴이 후두두 뛰었다.

《이녀석들아, 운동장 내놓구 하필 이 좁은 마당에서 갈껌질이나 갈껌질! 썩 사라지지들 못할가! 정말이지 꼴이 울려서 못살겠구나.》

일여덟살의 조무래기들이 쫓긴 참새때처럼 풍거나 이편 마당으로 뛰어들었다. 그애들은 갓 이사온 낯선 녀인을 흘끔흘끔 바라보더니 뭔가 안심이 되

는지 이 마당에서 승부를 마저 겨루기 시작하였다. 구겨진 학생모자채양을 뒤통수에 붙이고 얼음이 갇혀 죽신죽신한 땅에 대고 팔을 휘둘러 못치기를 하였다. 대개 이 계절이면 어린 학생들은 이 망할 놀음에 여념이 없다.

《맞혔어!》

《빛나잖어. 내 모다가가 자빠지질 않았거든.》

《자빠지진 않았지만 스쳤어, 스쳤단 말이야.》

이때 명희가 주심격으로 한마디 끼여들었다.

《스쳤다. 나두 곁에서 보았다.》

《자, 어때!》

제삼자의 지지를 얻은 애는 기고만장하여 제가 맞힌 한뼘짜리 못을 바지춤에 쪽 문대고 불룩한 호주머니에 쑤셔넣더니 《사람은 솔직해야 해.》 하고 점잖게 친구를 훈계하였다.

《너희들 몇학년이냐?》

《1학년 1반이라우.》 이웃집 나 많은 녀인이 울너머에서 큰소리로 대답하였다. 《동네서두 소문난 애군들이지요. 오늘두 학교를 뚜꺼먹었다우. 새로운 체네선생이 늘 울며 지낸답디다.》

어린 학생들은 자기 담임교원의 이야기가 나오자 흥심없이 못을 뽑아든채 서로 눈을 맞추며 아래입술을 비쭉 내밀었다.

리명희는 이튿날 1학년 1반 담임교원을 찾아 학교로 갔다. 행길에 나서니 이전날의 추억을 깨치며 제재톱소리, 기계대패질소리가 들리고 생약관리소 마당에서 약초말리는 냄새가 떠돌았다. 튀어오르는 공을 따라 벽작 떠들어올리는 학생들의 웨침소리와 호각소리가 울리는 학교운동장에 들어선 명희는 갑판우에서 투박한 무쇠덧신을 신고 어기적거리다가 마침내 물에 든 잠수부처럼 몸이 가벼워짐을 느꼈다.

《할머니, 누굴 찾습니까?》

(할머니라니... 내가?...) 리명희는 《일직》 완장을 두른 처녀교원의 물음에 놀랐다. (할머니라... 그 래 할머니라고 부를수 있지. 학교에선 아이들의 눈으로 학부형들을 대하니까...)

그는 서운한감을 누르려고 애쓰며 2층교사를 바라보았다. 눈에 설었다.

《처음 오시는데요?》 얼굴이 동그란 일직교원처녀가 상냥하게 물었다.

리명희는 흥분에 젖어 인차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였다.

《예... 이 교사는 언제 지냈는데요?》

《건물은 67년도에 세웠어요.》 하고 처녀교원은 친절히 설명해주었다. 《우리 학교가 선것은 펍이 전이었지요. 1948년 봄에 한 녀교원이 이 골안에 찾아왔어요. 초대교원이었지요. 아이들도 배워주고 어른들도 배워주었는데 그들모두가 처음엔 1학년생이었답니다. 전쟁때 세차레나 학교가 폭격을 맞

았어요. 그래도 수업은 계속되었지요...》

처녀교원의 말소리는 저으기 자부심에 넘쳐있었다.

《...그때 전쟁을 겪으면서 공부한 열두학생중에 최인성학자도 있었어요. 그분도 우리 학교 졸업생이지요. 1기생들이 심은 나무가 지금도 교재원에 남아있어요...》

학교 뒤산의 물매져내린 교재원비탈로 묵은 땅딸기덤불이 기여올랐는데 반토굴교실이 있던 어방이라고 짐작되는곳에는 줄차게 가지를 뻗친 감나무가 유묘하게 서있었다. 거칠은 검은 껍질사이로 희뿌연 살이 터질듯 부른 나무밑둥에서는 지심깊이에서 자양분을 빨아올리는 소리가 들리는것같았다. 붉은 물이 오른 가지끝에는 봄의 생명력이 뻗치여 망울이 터치며 금시... 금시라도 태동하는 봄의 음향이, 생의 서곡이 울려올듯싶었다.

그밑에는 흰 표말이 박혀있었다.

나무이름; 감나무

심은날; 1949년 3월 5일

관리자; 3학년 2반 김옥이

《그애들은 감을 따겠지요. 누가 심었는지도 모르구...》

어디선가 귀익은 제자의 목소리가 울려왔다.

《그래 인성이는 기쁘지 않으나?》

그날의 처녀교원인듯 다정히 속삭이는 리명희의 입가에 더운 눈물이 구울려내렸다.

다시 돌아온 인생의 지점이였다. ...한생을 두고 추구해온 세계, 먼 앞날의 안개속에 가리워졌던 기쁨의 세계는 바로 움트는 이 계절에 있었다.심장을 불태우며 내 나라, 내 조국의 래일을 위하여 자기를 바치는 삶은 봄철의 꽃과 같다.

그는 드디어 자기 존재의 의미를 깨달았다. 아, 자기를 알기까지는 또 얼마나 오랜 로정이 필요했단가!...

또다시 오는 봄에 40여년전의 제자가 운곡리로 찾아왔다.

이미 50고개를 넘어선 유전학계의 중진인 최인성은 고향산촌에서 어제날의 풍경과 어제날의 처녀교원을 찾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친히 이름을 알고계시는 자랑스러운 그의 담임선생이였다.

그는 옛스승이 살고있다는 단층집 트락에서 한동안 서성거렸다. 텅 비여있었다. 터발의 닻을 쫓는 아낙네의 새된 소리가 울너머에서 들려왔다.

최인성은 어쩔수 없는 세월의 흐름을 다시 감수하는듯했다. 서름서름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던 그는 몸에 익은 체취를 느끼며 천천히 눈길을 들었다. 옷방문우에는 작은 현판이 걸려있었다.

《운곡인민학교 2학년 1반 학습반집》

붓글씨의 매 획들에는 그 어떤 벽찬 생이 뛰노는 듯하였다.

《여전하시구나!!...》

최인성은 학생들을 데리고 나비를 쫓아나갔다는 선생님을 찾아 트랙을 나섰다.

가지가지의 추억에 떠밀린 그는 발길이 닿는대로 옛날 솟구어골짜기로 올라갔다. 얼음같이 찬 벽계수에 기꺼이 발목을 적시며 오르던 그는 끊어진 산허리에 로출된 여러겹의 굳은 지층과 마주치자 걸음을 멈추었다. 풍화된 바위에는 탐험지평이로 때리고 쑤신 40여년전의 흔적이 생생히 남아있었다. 그때 미래의 고고학자 림현수는 호기심에 끌려 모여드는 산골동네 아이들과 농군들 앞에서 자기가 찾으려는 태고적의 역사를 즐겨 설명해주곤하였다. 나무에서 내려온 인류의 조상이 두발로 대지를 디디고 서서 머리위의 열매가 떨어지리라는 확실한 타산을 가지고 돌을 던지던 그때로부터 인간의 로정이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열매가 떨어지지 않을것 같으면 애당초 돌을 던지지 않았을것이지요.》

벌써 오래전의 일이다. 그때부터 고고학자 림현수는 인간을 그의 유구한 역사속에서 파악하고자 세월의 흐름을 거슬러 멀리도 걸었으리라. 드디어 그는 자기가 인간을 알고있다고 자부하게 되었다.

《인간은 일반입니다.》 하고 그는 최인성에게 편지를 썼었다. 《명희선생은 노력에 상응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더놓고 말해서 이것을 바람이 없이

자기를 바칠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사위는 여전히 고요하였다.

칼벼랑 메부리우로 수리개들이 나래를 펴고 감돌았다.

(사람이란 그런 존재인가? 단순한 리해관계의 노예인가? 인간의 행위가 오늘도 이런 저급한 타산에 의해 좌우된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골짜기를 거슬러오르는 소슬한 바람결에 집요한 목소리가 다시금 떠실려오는듯하였다.

...이것을 바람이 없이 자기를 바칠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최인성은 오르던 걸음을 멈추었다. 그의 가슴은 인간에 대한 찬가로 터질듯 높뛰었다.

《있습니다. 그런 인간은...있습니다!》

그는 솟구치는 눈물을 억제하며 머리를 들었다. 눈부신 해별속에 흰구름이 떠돌았다. 하늘가에 둥근테를 두른 바위부리들이 고대의 성벽인양 침중하니 솟고 차디찬 벽계수가 물바래를 흘날리며 바위 짙을 짓쳐내리다가 사시절 푸른 산죽의 숲을 살같이 꺾여흐른다. 멀리 골짜기 옷쪽에서 손에 손을 잡은 소년들이 한 녀인을 에워싸고 나타났다. 아이들은 거미줄을 감아 자작 만든 포충망에 나비들을 붙여가지고 왁자지껄 떠들며 깨끔질을 치기도 한다.

《선생님!...》

어제날의 소년은 선생님을 부르며 마주 달려갔다. 서리가 불린 리명희교원의 귀밑머리에는 아이들이 이 꽃아준 들꽃 한송이가 춤추고있었다...

글 읽는 소리

박재주

꽃향기에 취한 사람처럼
시내물소리에 이끌린 사람처럼
이 아침도 선뜻 지나지 못하겠네
아이들 글읽는 소리 랑랑한
학교앞을

글소리 어제 들어도 오늘 들어도
처음 듣는듯 듣고만싶어
내 발걸음 멈춰서네
들을수록 듣는 마음 새로워

저 글소리가 좋아서
파아란 하늘가 봄종다리
머리위에 따라 우짖고
산굽이 에도는 꼬리긴 렬차도
글소리 깨칠가봐 기적소리 낮추는듯

저 벽찬 글소리가 좋아
창가의 햇빛도 밝게 웃는가
정원의 나무잎도 기쁨에 설레고
천만 꽃송이도 진한 향기 풍기거니

오, 글소리
정녕 아이들 저 글읽는 소리는
락원의 땅 꽃피갈 마음안은
조국의 미래가 크는 소리여서
빛나는 래일을 불러오는 소리여서

내 마음도 즐거워 즐거워
노래처럼 따라외우네
어제 들어도 오늘 들어도
처음 듣는듯 듣고만싶어 듣고만싶어

여기서 내가 산다

박두전

하루가 시작될 때
아침!
안해의 마음에 받들려
집을 나서니
출근길에 오른 인민반사람들
저저마다 다투어 나를 부축하누나
달려가 현관문도 열어주고
계단계단 이몸을 받들어 주며

옷층의 국장아바이
이제는 습관처럼 되셨나보다
나의 팔을 꼭 껴들어주며
대학공부 잘하라 아침마다 하시는 당부
이럴 때면 나는 다만
뜨거운것 삼키며 고개를 끄덕일뿐

대학생이 된 나를 보면
절로 힘이 난다고
그래서 이 아침도 삼륜차에 올라주교서야
후련히 웃음짓는 옆집 건설차청년
나비처럼 나풀 허리굽혀 인사하며
고운 손 흔들어주는 귀염둥이들...

고맙구나 고마워
나를 위해주는 뜨거운 손길

이들의 마음에 뚝뚝 떠실려
아침해도 후더웁게 솟아오르는가
이렇게 시작된다 등교길에 오르는
영예군인 대학생 나의 하루하루는

대학생복 처음 입던 날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가고
내 가슴 눈물로 적시던 은실이 할머니
온 동네가 명절처럼 흥성흥성
만년필도 학습장도... 너도나도 안겨주며
함께 기뻐하던 이웃들의 모습

이들속에서 내가 사누나
이런 마음들이 공기가 되고 빛이 되고
푸르른 조국의 하늘이 되어
나의 머리우에 축복의 아침 펼쳐주누나

아침!
등교길로 달리는 아침
온 누리가 나를 향해 웃어주는 아침
이렇게 또 하루가 시작될 때
내 가슴속에도 뜨거운 감사의 불덩이
아침해처럼 뚫어쫓는다
고마운 당의 품 조국의 품이 고마워

교실엔 나의 책상 의자가 있네

아침마다
동무들의 등에 업혀 들어서는
4층 10호 우리 교실엔
류다른
나의 책상 의자가 있네

키는 낮아도
책상을 마주하면 이 마음 든든하네
병사시절 못잊을 그 전호같아
의자에 앉으면
총잡은 병사인듯 새힘이 솟네

상치입은 몸으로
정든 초소를 떠나올 때

영영 헤어졌다 생각했던 전호
그래서 늘 사진첩을 번지며
그 시절로 마음은 달려갔네

앞가슴에 빛나는 영예군인메달은
사랑만 받아야 할 증표는 아니기에
침상을 전호마냥
보답의 무기로 잡고싶었네
시대의 가수가 되고싶었네

침상에서 헤매이던 이몸을 안아
탐구의 대오에 세워준 그 품
못잊을 병사시절 열정으로 살라고
사랑으로 안겨준 시가의 붓

또다시 찾아준 새 전호라네

총으로 지켜온 우리 당을
붓으로 빛내는 나는 대학생

4층 10호 우리 교실의
류다른 나의 책상 의자는
이몸을 일으켜준 사랑의 요람
보답의 전호라네

강의시간에도

강의에 열정을 쏟아붓다가도
선생님은 하던 강의를 멈추고
나의 책상에 자주 오네
알겠는가
힘들지 않는가고 물으며...

이럴 때는 대답보다도
스스로 눈곱이 뜨거워지네
수많은 학생들에게 쏟아부어야 할 귀중한 시간
나에게 바쳐지는 선생님의 마음
그 마음이 다심한 어머니의 손길처럼 느껴져

떨어질세라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는 어머니의 사랑인가
한글자 한글자
칠판우에 큼직큼직하게 글을 쓰다가도
또다시 나를 돌아보네
잘 보이는가고...

불편한 자식에게 쏟아붓는 어머니의 사랑
그 끝은 어디인가
새로운 교재가 나오면 남먼저 안겨도 주고
감기에 걸려 대학에 못나오며는
나의 침상을
그대로 강의실로 만들어주던 우리 선생님

오, 조국 위해 바친 병사의 작은 위훈
백배천배로 안아올려 내세워주는 사랑의 품
나의 배움의 나날은
이처럼 고마움에 목메이며 이어지나니

조국 위해 바친것은 한순간
그것으로 하여
조국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을 안겨주어라
수업의 그 짧은 시간도
어머니조국이 부여주는 사랑의 시간이구나

소낙비

역수로 쏟아지는
소낙비 소낙비
오늘도 나를 밀고갈 동무들의 수고
근심소나기도 쏟아지는데
비옷에 우산들고 나타난 연희동무

어서 가자고
머리우에 우산을 얹어주는 고운 손길
고마웁구나
집에서 예까지 연연 시오리
나를 위해 비속을 달려오다니

내 어릴적
이렇게 비오는 날이면
출근길 에돌며 비옷속에 감싸주던
어머니 그 사랑 네가 다 안고온듯

장난질에 발목이 시그러져
오도가도 못하고 울고있을 때

나를 업고 달리던 누이의 모습
삼륜차 두손길로 떠밀어주는
너의 그 마음에서 다시 보누나

이 가슴 후더웁게 적시누나
대학정문에 들어설 때마다
먼길에 불편이 많았겠다고
다투어 나를 업고 충계를 오르던
학급동무들의 수고도 헤아려져서

통일거리 건설장 실습지에서도
땀땀이 한대오에 함께 서자고
내 삼륜차결에 기발대 세워주던
동지들의 그 믿음 뜨거운 그 사랑

아 이토록 좋은 동무들이 많고많은
사회주의 내 나라
상치입은 이 아들 비 한방울 맞을세라
이렇듯 은혜론 새하늘 펼쳐주누나

역수로 쏘아지는
소낙비 소낙비
허나 연희동무와 함께

삼륜차 몰아가는 내 마음속엔
따뜻이 쏘아지네 쏘아져내리네
행복의 소낙비 감사의 소낙비가

여기서 내가 산다

이 나라 모든 길은 나를 위해 열려졌는가
대학으로 오고갈 때면
삼륜차에 앉은 나를 향해 미소하며
지휘봉 높이 드는 안전원치너
달리던 차들은 흰하니 길을 낸다
그 한복판으로 내가 간다

이 거리에 어찌 언덕이 있으랴만
자그마한 구배길이 나서면
어느새 달려오는 귀염둥이들
새처럼 지저귀는 그애들의 웃음에 묻혀
내 삼륜차는 나래가 돌힌듯
내 마음 동심에 부른다

어찌다 흑간 밤길에 나서며는
퇴근길도 마다하고 나를 떠밀어주는 뜨거운 손길
들
저저마다 나를 향해 보내는 축복의 눈인사
그네들의 고운 마음이 이웃하고 사는 거리
여기서 내가 산다

누구나 친형제로 살뜰하다
담당의사가 생일상도 차려주고
봉사자가 가수가 되어
나를 위해 부르는 축복의 노래
나는 삼륜차에 앉은 불구가 아니다

수도의 한복판을 조국의 대지 한가운데를
누구보다 쿵쿵 밟구르며 나는 산다

이 좋은 사람들
눈물겹도록 고마운 사람들
그대들의 뜨거운 마음에 떠받들려
내가 가는 앞길엔 아침해도 가깝다
누구보다도 나에게서는 더욱 후덥다

오 나는 행복한 사람
내 삶은 만복을 받은 인생
바친것보다 받은것이 더 많기에
이 거리는 나를 향해 저렇듯 눈부시다
영예군인들을 금방석에 앉혀준
어머니 우리 당이 아니고서야
이처럼 빛나는 앞길
어찌 내 앞에 펼쳐질수 있으랴

우리 당이 열어준 길
사회주의가 마련해준 길
이 길은 진정 내 삶의 젖줄기
이 길을 버리면 나는 못살아
나는 이 길따라 끝까지 가리라
어머니당을 받들어
사회주의 내 조국을 받들어!

이삭은 속삭이네

홍기풍

벼바다 물결치는 백리 연백벌
온 나라 마음들이 달려오는곳
벌이 생겨 처음 보는 만풍년소식
친애하는 그이께 아뢰이고싶어
아 이삭은 속삭이네

아버이수령님 찾아오시여
기쁘게 웃으시며 걸으시던 벌
그 사랑이 가꿔주신 황금의 파도

친애하는 그이께 보이고싶어
아 이삭은 속삭이네

수령님 그 은덕을 잊을수 없어
무겁게 고개숙인 금빛 벼이삭
연백벌의 간절한 소원을 안고
친애하는 그이를 모시고싶어
아 이삭은 속삭이네

평양의 숨결

박동철

나의 고향은 평양이다.
대동강기슭에 거연히 솟아오른 주체사상탑봉화의 밝은 빛이 나의 집 창가에까지 비쳐드는 평양!
나는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났다.
대동강의 맑은 물에 미역을 감으며 학생소년궁전의 화려한 무대우에서 춤과 노래를 배우며 세상에 부럼없이 자라났다. 일요일이면 동무들과 손잡고 만수대언덕에 올라 천리마가 나래치는 모란봉기슭이며 흰구름 등실 떠오른 가없이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내 나라가 제일임을 알았고 그래서 군복도 남먼저 입었다.
떠나고보니 어머니의 모습처럼 그림고 보고싶은 평양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인민군대에서 제대된후 평양으로 간것이 아니라 여기 북부지대에 새로 개발된 탄광으로 왔다.
탄광에서는 나를 막장도 구경시키기전에 휴가부터 보내주었다.
내가 집에 들어서자 어머니는 무척 반가와했다.
치마자락을 펄펄 날리며 식료상점ियो, 국수집ियो 분주히 드나들었다.
평양의 모습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대동강의 한복판에 멋쟁이로 들어앉은 5월1일경기장, 룡라다리,
게다가 지금은 또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의 명령으로 금룡2동굴과 청류다리 2단계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다.
혁명의 요람 만경대를 향해 쭉 뻗어간간 궤도전차선과 그 좌우에 웅장화려하게 일떠선 광복거리, 그 길을 오가며 행복의 웃음짓는 사람들...
그 무엇으로도 값을 계산하지 못할 고급살림집마다에는 인민이 살고있다.
즐비하게 늘어선 봉사망도 인민을 위한것, 무리등 휘황한 화려한 극장도 인민을 위한것, 달리는 궤도전차에 새겨진 글발도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그야말로 평양은 인민을 위함이라는 큰뜻을 금문자로 아로새기며 천지가 조화를 부려놓은듯이 달라졌다.
하지만 절대로 달라지지 말아야 할것이 달라진것이 있었으니 나는 여기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만민의 축원을 담아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꽃송이들로 바구니를 엮어 삼가 안아올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의 글발 대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로 바뀌어진것이다.
수령님 안계시는 평양이라 생각하니 절통한 마음그지없고 가슴은 찢기는듯했다.
지구가 열백번 뒤바뀌어도 언제나 한모습으로만 제실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가슴에 새겨안고 그칠새없이 만수대언덕으로 흐르는 사람들의 물결속에 묻힐 때에도 비통한 그 마음우에 맹세의 불길이 황황 가슴속에 타번졌다.
이틀이 지난 아침이었다.
휴지통을 들고 밖으로 나가던 나는 같은 현관에서 사는 옥별이 아버지를 만났다. 그는 출근하는 길이었다.
《아 평남이로구만, 왔다는 말을 들었소. 바쁘다나니 그만 찾아가보지 못해 안됐소. 래일저녁에 우리 집으로 건너오오. 내 일찍 들어오겠소. 자 그럼...》
옥별이 아버지는 내가 군대에 나갈 때 역에까지 따라나와 배려준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군대복무를 할적에 종종 평양소식을 담은 편지도 보내주었다. 그런탓에 나는 그를 삼촌처럼 따랐었다. 집에 도착하자바람으로 몇번 찾아갔었다. 그때마다 그는 집에 없었다. 옥별이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무슨 건물확장공사를 하느라고 늘 거기에 붙어산다고 했다. 걸보기에도 그는 무척 바쁜 사람이었다.
거리를 내다보아도 모두 그렇게 바빠 뛰고있었다. 이 거리에서 한가한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는듯이 생각되었다.
늘 시간시간하며 바쁘게 살던 병사시절이 회억되었다.
나의 병사시절은 갈매기소리 정답게 들려오는 동해바다가의 자그마한 섬에서 흘러갔다.
나는 지금도 바다의 한복판에 등실 떠있는 큰 함선과도 같은 그 섬초소를 그려보느라면 마치 옛날무사들이 《도》를 닦았다는 그런 섬을 상상해보게 된다.
처음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인민군대에 입대한 나는 동지들앞에 하나의 《짐》에 불과했었다. 철봉대에 매여달리며 체몸 하나를 끌어올리는 동작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던 나였고 동작 또한 굼떠서 온 대오를 멈춰세웠던 일이 한두번만 있지 않았다.
체력, 답력, 의지, 투지, 용감성 등을 차례로가 아니라 한꺼번에 키워야 하는 병사의 의무를 나는 지

휘관들의 《빨리!》라는 구령속에서 해결하였다.

신발을 신고벗는 일도 빨리, 모포를 개어놓는 일도 빨리, 《적함선》에 뛰어오르는 훈련동작도 빨리...

움직이는 대오에는 언제나 《급보랏!》, 《속도빨리!》 구령이 하달되었다. 이것은 군대의 생명과도 같은것이였다.

그렇게 살아온 내가 이틀째나 제정된 일과도 없이 멍랑하게 시간을 보내고있었으니 왜 따분하지 않으랴...

창박을 내다보던 나는 문득 재봉기와 마주앉은 어머니쪽에 눈길이 갔다.

어머니는 장갑을 만들고있었다. 어느 건설장에 지원할거라고 했다.

나는 그 일이라도 도울 생각을 했다. 가위를 들고 어머니가 견본을 그려놓은대로 잘랐다. 억센 손아귀에 가위를 끼워넣고 철판을 오려내듯이 서거덕서 거덕 잘라내는 나의 가위질모양을 슬며시 건너다보던 어머니가 히죽이 웃었다.

《옛날 한가한 시골샌님 찰바가지 들고 부뚜막에 나앉았다더니 네가 꼭 그 격이로구나 호...》

《예?》

나는 가위질하던 손을 툇 멈추고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아, 아무것도 아니다.》

어머니는 살그머니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남새구령을 들고 나가는것이였다.

남새상점에서 돌아온 어머니의 손에는 구경표한 장이 들려있었다.

《평남아! 오후에 김일성경기장에서 압록강팀과 기관차팀간에 축구경기를 한다더라. 구경이나 가려무나. 체육추첨제까지 한다던데...》

구경표에는 추첨제표까지 끼여있었다.

나는 싫지 않았다. 구경표를 병사생활의 습관대로 해병모의 속팍에 끼워넣었다.

어머니는 옷장앞에 앉아서 나를 찾았다.

《너 이걸 입지 않겠느냐?》

어머니가 미리 준비해두었던 고급양복이였다.

나는 왜그런지 군복을 벗고싶지 않았다. 휴가기간만이라도 더 입고지내고싶었다.

《전 이 군복이 더 좋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밤사이에 깨끗이 빨아 다림질까지 해서 옷걸개에 걸어놓은 해병복을 산뜻하게 차려입었다.

어머니는 뺨스정류소로 나가는 나에게 당부했다.

《애, 저녁에 옥별이 아버지가 집에서 기다리겠다고 했다. 늦지 말고 돌아오너라.》

《알겠어요, 어머니.》

뺨스정류소에는 앞서온 사람들이 질서있게 렬을 지어 서있었다.

나도 그들뒤에 꼬리를 달고섰다. 저앞에 뺨스가 오는것이 보였다. 나는 습관대로 뺨스표를 준비하기 위해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런데 뺨스표가 없었다. 뺨스표를 넣는것을 잊었던것이다. 난처한 일이었다. 뺨스는 벌써 정류소에 멎어섰다. 나는 뺨스에 오르는 사람들을 따라 앞으로 나가면서도 행여나 하고 호주머니의 여기저기를 다시 뒤져보았다. 나는 당황해났다. 표없이 뺨스에 오른다는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였거니와 그렇다고 집에까지 다시 갔다온다는 일도 난감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채 황황히 헤덤비던 나는 다행히도 구경표를 해병모의 속팍에 끼여넣을 때에 10전짜리 우표한 장을 띄여보았던 기억을 되살려냈다. 나는 그것도 10전의 가치가 있는것만큼 뺨스표대용으로 쓸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해보았으나 인차 단념하고말았다. 내앞에서 줄이 뭉청 끊어졌다. 내가 오를 차례가 되었던것이다. 주춤주춤하던 나는 옆으로 나서고말았다. 이때 누구인가 나의 등을 가볍게 떠미는 사람이 있었다.

《어서 오르세요, 저한테 표가 있습니다.》

뺨스줄에서부터 뒤에 서서 나의 딱한 사정을 알아본 녀자가 내뭇까지 표를 넣어주었다.

《고맙소.》

인사말과 함께 뺨스에 오른 나는 그 사람을 돌아보았다. 나 어린 처녀였다.

《뺨스표를 깜빡 잊었다가 그만...》

나의 입에서는 변명비슷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저도 바쁠 땐 더러 그런 일을 당해봤어요.》

항용 바쁜 사람들속에서 그런 일이 있을수 있다고 너그러이 리해한다는듯 처녀는 상냥하게 웃어보였다.

《무슨 바쁜 일이 생겼는게지요?》

처녀는 땀방울이 흥건히 내뿜힌 내 이마에 눈길을 주며 물었다.

《아니요... 실은 경기장에 구경을 떠났소.》

《그래요? 저도 거기로 가는 길인데...》

처녀는 같은 동행자를 만난것이 반가운듯 환성을 올렸다.

나는 처녀와 나란히 앉았다.

아직 분첩을 대보지 않은 흰 살결, 석양노을처럼 빨간 볼, 짧은형의 머리...

나는 그와 줄곧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과정에 처녀의 간단한 경력도 알게 되었다.

이름은 송연희.

나이는 스물한살.

철령의 샷갯봉마루가 지척에 바라보이는 자그마한 농촌마을에서 태어난 연희는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지방산업공장에서 일하다가 나라의 곳곳에서 대기념비들이 씌없이 솟아나자 자기도 거기에 기여하고싶어 돌격대에 탄원하여왔던것이다. 그래서 지

금은 당창건기념탑 건설장에서 일하고있었다.

처음 식당에서 배추잎을 씻는 일로부터 시작하여 바람벽에 타일을 붙이고 남자들과 같이 건물에 전기설비까지 설치할줄 아는 당당한 건설자로 자라났다고 한다. 지금은 창고원이라나. 나에게서는 이 자그마한 처녀가 한없이 돋보였다.

《동무도 축구경기를 좋아하는게로구만?》

연희가 방긋이 웃으며 대답했다.

《축구경기를 보는것도 좋아하지만 실은 기관차팀에 속해있는 저의 오빠가 오늘 경기에 출전한답니다. 그래서...》

《그-렇소?》

나의 목소리는 탄성으로 울렸다. 오빠의 뽀차는 모습을 동생이 바라본다는건 얼마나 기쁜 일인가... 대동강의 풍치가 차창으로 비쳐들었다.

강역을 따라 실실이 늘어진 수양버들들이 만수무단덕을 향해 정중히 머리를 숙이었는데 그아래 공원의자에는 재능있는 미술가가 앉아 대동강의 풍치를 화관에 담고있다. 주체사상탑을 배경으로 하늘 높이 솟구쳐오르는 쌍분수는 혁명의 수도 평양에 꽃목걸이를 걸어놓은듯이 칠색무지개를 현란하게 펼쳐놓았는데 그 아름다움에 보탬을 주려는듯이 뽀얗게 피어나는 젖빛안개에 가리워진 우뚝우뚝한 건물들은 마치 수궁궁전처럼 안겨왔다. 나도 저기에 뛰어들어 금붕어처럼 헤엄쳐보고싶은 욕망까지 생기었다. 그야말로 아름다움의 극치로만 빛나는 평양이었다.

빠스는 어느덧 옥류교를 건너 모란봉언덕을 향해 오르고있었다.

이때 우리들을 마주향해오는 화물자동차들의 행렬이 보였다. 적재함들마다에는 멀리 지방들에서 떠보내는 나무들이 밀뿌리를 가마니와 새끼줄로 잘 포장한채 실려있었다.

жат나무, 소나무, 꽃나무 등...

차창밖에 눈길을 준채 앉았던 연희는 반가움에 젖은 가벼운 환성을 올렸다.

《아이야나 꽤나 많이도 오네.》

그러던 연희는 어떤 급한 일에 다몰리운듯이 초조해진 심정으로 몸을 바재이는데있었다.

무슨 일이 생긴것이 분명했다. 내막을 알아볼 사이가 없이 빠스가 경기장을 가까이에 두고 벗어섰다.

나는 연희를 앞에 세우고 빠스에서 내렸다. 술한 군중들이 경기장을 향해 밀려갔다. 그 물결속에 묻히었던 나는 그만 연희를 잃어버리었다. 어쩐지 혼자 가고싶지 않았다. 사람들의 물결을 헤치고 여기저기를 둘러보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연희동무!》

짹막하게 불러보았다. 허사였다. 술한 자동차와 빠스들의 동음속에 내 목소리는 묻혀버리고말았던

것이다. 분주히 오가며 다시 찾아보았다. 그러던 나는 방금 빠스가 벗어섰던 자리에 못박힌듯이 서있는 연희를 알아보았다.

《연희동무!》

나는 연희쪽에 대고 손짓했다. 그가 내쪽으로 머리를 돌리는 모습이 보였다. 그렇지만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목에 드리워진 머리수건만 매만질 뿐...

나는 해병모의 땀기를 펄펄 날리며 그에게로 다가갔다.

《왜 그러고 서있소? 빨리 가세요.》

연희는 아쉬운 눈길로 나를 바라보더니 실로 뜻밖의 말을 했다.

《전... 아무래도 건설장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아니? 돌아가다니?》

연희는 머리를 저었다. 마치 나를 동무해주기 위해 떠났던 사람처럼 사정을 했다.

...방금 빠스와 어긴 화물자동차들에 실렸던 나무들은 당창건기념탑 건설장의 록지와 공원에 심을것들이다. 지금 건설장에서는 그 나무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있다. 연희도 방금 몇구덩이 파놓고 오는 길이다. 오빠가 경기에 출전한다는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련대시공참모가 표까지 구해다주면서 자꾸만 등을 떠미는 바람에 떠나긴 했으나 막상 그쪽으로 실려가는 나무들을 보니 한가하게 앉아서 구경할 생각이 없다. 그 나무 한그루한그루마다에는 당창건기념탑이 더욱 웅장하고 훌륭하게 건설되기를 바라는 우리 인민들의 지성의 마음이 깃들어있다. 한대도 죽이지 말고 잘 심어 가꾸어야 한다. 토양속에 뿌리를 묻어야만 생을 유지할수 있는 그 나무들을 오늘중으로 다 심어야 한다. 그러니 당창건기념탑 건설을 직접 말아나선 건설자로서 어떻게 외면할수 있겠는가...

나는 또다시 연희를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다.

꽃이면 꽃, 노래면 노래, 그저 제눈에 비껴오고 제귀에 들러오는 현상만을 놓고 웃고떠들며 즐기만 하려는 그런 처녀가 아니었다. 자기의 한몸을 그대로 창조라는 거창한 도가니속에서 함께 끓이려는 불같은 처녀였다.

축구경기가 아무리 흥미있는 구경거리라고 할지라도 그를 돌려세울 힘이 나에게에는 없었다.

《일이 섭섭하겐 댔구만.》

연희가 생긋이 웃어보였다.

《섭섭하긴요 뭐... 저녁에 텔레비전으로 보면 됩니다. 자 그럼 구경 잘하세요.》

연희는 깎듯이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몇발자국 옮기려던 그는 다시 내쪽으로 돌아서더니 손에 쥐었던 구경표를 내보였다.

《자, 받으세요.》

《?》

나는 연희가 뺨스정류소에서 있었던 일을 되살려낸 것이라고 생각했다. 뺨스표가 없었으니 구경표도 없을수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나에게도 표가 있소.》

나는 표를 꺼내 연희앞에 내보였다.

《그래도 가지고 가세요. 오래간만에 평양에 오셨는데 혹시 동창생들이나 아는 사람들을 만날수도 있지 않겠나요.》

연희는 기꺼이 표를 내 손에 들려주었다...

두사람이 보아야 할 구경표를 혼자서 모아쥐고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나의 마음은 허전하였다.

하지만 일단 경기에 정신을 쏟고보니 연희에 대한 생각도 아득히 잊어졌다. 축구경기가 어떻게 시작되고 끝났는지도 몰랐다.

경기뒤에 진행된 체육추첨제도 흥미있었다.

당첨번호를 부를 때마다 와! 하고 터쳐올리는 관객들의 함성, 이어 상품을 받아안고 싱글벙글 웃는 사람들의 모습에 내 마음도 흥겨워났다.

추첨제는 계속되었다...

고성기에서 4등에 해당하는 당첨번호를 부를 때였다. 갑자기 객석이 조용해졌다. 고성기에서는 벌써 몇번씩이나 당첨번호를 부르고있었으나 해당하는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어찌된 일인가해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군인동무!》

옆에 앉았던 사람이 나의 어깨를 툭 쳤다.

《동무요! 동무의 번호가 맞았소!》

그 사람이 내 손에 들려진 표의 번호를 알아보았던 것이다. 나는 얼결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주위에서 와! 하고 함성이 터쳐올랐다. 나는 어떻게 시상대까지 나갔는지 알지 못했다. 상품을 받아들고서야 자신을 가늠했다. 당첨에 해당하는 번호가 찍혀진 추첨표는 내것이 아니라 연희의 것이었다. 그렇지만 나의 마음은 기뻐다. 손에 들려진 상품을 내려다보니 더욱 기뻐다. 하늘색바탕에 갖가지 고운 색줄무늬가 격자를 이루고 장식된 나일론꽃양산이었다. 연희또래의 처녀들에게 알맞춤한 것이었다. 나는 그 꽃양산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의무감을 느끼었다. 그것은 철저히 연희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건설장에 돌아가지 않고 관람석에 앉아있었더라면 그한테 차례졌을 것이 아니겠는가...

나의 마음은 벌써 건설장에 가있었다.

×

깨끗한 종이에 동실하게 말아서 싼 꽃양산은 마치 룡상선수들이 손에 들고뛰는 《제주봉》처럼 보였다.

나는 그 《제주봉》을 넘겨줄 연희를 찾을 일이

아득히 생각되었다. 당창건기념탑 건설장에서 일한다는 것만을 가지고 그를 찾아낸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포기하고 돌아서야 하는가?)

손에 들려진 《제주봉》이 그걸 허락치 않았다.

어쨌든 당창건기념탑 건설장에 있을터인데 왜 못 찾는단 말인가...

해병시절 어뢰정뒤에 몰스키를 달고 바다를 날아보겠다던 배심이 살아났다.

내가 건설장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녘이었다.

대동강수면우를 거슬러 불어오는 습한 저녁바람이 나의 해병모양기를 팔랑팔랑 날려주었다.

그러나 나는 예상외로 연희의 행처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건설장지휘부에 들어서자바람 연희에게 구경표를 구해다주었다는 시공참모를 만났던 것이었다.

우람찬 체구에 바위와 같은 몸무게가 느껴지는 중년의 시공참모는 이 건설장의 사령관인듯이 위풍이 있어보였는데 성격은 아직 20대청년시절의 그대로였다. 그는 내가 연희동무를 찾아왔다고 하자 첫마디부터 능청을 부리었다.

《여 해병! 혹 사람을 잘못 찾아오지 않았소? 우리 연희는 아직 총각을 볼 나이가 못되었는데... 허허.》

아무런들 어머리. 좀 어이가 없기는 했지만 상관하지 않았다. 그저 연희만 만나게 해주기를 바랐다.

시공참모가 나를 연희에게 데려다주려는듯이 모자를 집어쓰는데 전화종소리가 따르릉! 하고 울렸다. 그가 수화기를 들고 대상과 몇마디 이야기를 나누더니 내려놓았다.

《차 이런! 손님을 안내할 짬조차 없군. 해병동무! 이거 안됐소. 참모장이 급히 찾는구만... 미안한대로 혼자서 좀 찾아가보오. 저 골재가 쌓여있는 바로 앞집이 창고요. 거기에 있을거요. 아 이거 정말 미안하게 됐는데...》

사업일지를 들고 사무실을 나선 시공참모는 나와 반대방향으로 헤어져갔다.

나는 시공참모가 가르쳐준 창고로 곧추 갔다. 문에는 자물쇠가 걸려있었다. 마당을 쓸던 경비원아바이가 식당에 가보라고 했다. 저녁을 먹고있을거라고 했다. 식당으로 찾아갔다. 거기에도 없다. 현장에서 전구알을 달라고 찾아왔기에 금방 손가락을 놓고 창고로 또 나갔다는 것이다. 그자리에서 돌아선 나는 다시 창고로 갔다. 문에는 역시 쇠가 잠겨져있었다. 나를 다시 만난 경비원아바이가 난색을 지었다.

《아하... 식당에서 꼭 붙들어야 하는건데... 일이 어렵게 됐군. 방금 전구알을 꺼내주고 골재상차장으로 갔수다. 자동차를 타구... 그랜 늘 바쁜 사람이기에 만나기가 험치 않다니까... 래일 만나면 안되

겠나? 돌아올려면 뒤시간 잘 걸리겠는데...》

난감한 일이었다. 어떻게 그때까지 기다린단 말인가...

해를 넘긴지 오랜 거리에는 벌써 땅거미가 깃들고 가로등과 작업등마다에는 불이 하나 둘 켜지기 시작했다.

경기장에 구경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이제나저제나 하고 기다리고있을 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함께 오늘저녁에 꼭 만나기로 한 옥별이 아버지 생각도 났다.

그렇지만 나는 기다리기로 했다. 연희에게 주어야 할 꽃양산을 그대로 들고 집에 갈 생각은 없었다.

나는 창고와 떨어져 저쪽에 가앉았다.

평양의 밤은 보이는것보다 들려오는것이 더 많다.

아르릉, 다르릉, 사르릉, 부르릉 거리를 드바빠 오가는 자동차들의 엔진 소리와 건설장들에서 들려오는 기중기소리, 혼합기소리가 하나로 융합되어 하나의 관현악을 듣는듯 조화롭게 들려왔다. 거기에 감정을 푹 묻어버린 나는 고층건물의 옥상우에서 명멸하는 글발들을 바라보기도 하고 지나가는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여보기도 하고 때로는 저 멀리 섬초소와 북부지구에 새로 개발된 탄광을 그려보기도 했다. 그러던 나는 문득 맹목적으로 앉아 처녀를 기다리느니보다 거창한 기념탑건설에 땀이라도 뿌리고싶어 슬쩍 삽자루를 찾아들고 혼합기가 있는쪽으로 다가갔다. 그러면서도 눈길은 골재를 싣고 들어오는 차들에 자주 보냈다.

그때까지도 연희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다.

(골재장에서 밤을 새우려는가?)

또다시 들어온 차로로 달려가 운전수에게 물어보니 건설장입구에서 내렸다는것이다. 그다음은 모른다고 했다. 맹랑한 일이었다. 나는 토끼를 찾아 숲을 줄뒤풀듯이 건설장의 여기저기를 간간히 살피며 찾아보았다. 연희를 찾을 일이 점점 더 막연했다.

어느썩에 가배겨서 사람의 속을 이렇게 태운단말인가...

이때 《기적》이 일어났다. 혼합물을 들어올리는 기중기쪽으로 바깥쪽을 들고가는 처녀의 모습이 작업등빛속에 환히 안겨왔다. 연희였다. 날씬한 몸매, 목에 드리워진 머리수건...

나는 반가웠다. 《계주봉》을 휘휘 두르며 달려갔다. 그러나 몇걸음 달려가다 실망한채 벗어섰다. 연희가 아니었던것이다.

처녀는 하늘에 나는 새를 바라본 때처럼 머리를 한껏 뒤로 젖힌채 기중기운전실을 향해 뛰라고 손시늉을 하더니 방금 들고온 바깥쪽을 혼합물을 담은 바가지안에 올려놓았다. 바깥쪽에는 빨간 온실도마도가 담겨져있었다. 이어 기중기가 사롱사롱하

며 쇠바줄을 감아올리자 도마도를 실은 혼합물바가지가 등실 떠올랐다.

그 모습을 마지막까지 지켜보고난 처녀가 내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밤중에 건설장에 나타난 해병차림의 나를 의아한 눈길로 마주보던 그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를 만나려고 그러니까?》

《예, 연희라는 동무를...》

찰나 처녀가 캐드득! 하고 주먹을 입가에 들어올렸다. 그 배풍뎡이 시공참모처럼 애인을 만나러온 사람으로 오해하는것 같았다. 다른때 같으면 《동무! 묻는 말에나 대답하오!》 하고 으름장을 놓았을 나였으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혹시 그런 동무를 모르오?》

《왜 모르겠나요. 온 건설장이 다 아는 처녀인데...》

《온 건설장이?... 그 동무가 지금 어디 있소?》

처녀가 친절하게 가르쳐주었다.

《저앞에 불빛이 반짝거리는 창문이 보이지요? 저게 바로 연희동무가 일하는 창고야요. 방금 그리로 갔어요.》

나는 그쪽을 바라보았다. 거긴 내가 벌써 두번씩이나 찾아갔던곳이 아닌가...

꼭 무슨 도깨비한테 홀리운것처럼 생각되었다.

기중기옆에 있던 처녀가 어데론가 바빠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저쪽 앞에서 기다리던 총각이 그를 나무라는것 같은 말소리가 도간도간 들려왔다.

《식당을 비워놓구 어데로 돌아다녀?... 물을 끓여야겠어. 돼지를 끌어왔다니까... 제길 바쁠 땐 더러 먹지 않고도 사는 수가 있었으면 좋겠군... 참 연희동무가 아직 안돌아왔어? 배고프겠는데... 내가 전구알을 달라고 보채는바람에 밥그릇을 채 비우지 못했다니까...》

총각의 말을 도간도간 새겨들던 나는 문득 정신을 차리었다. 어물거리다가 또 연희를 놓쳐버릴것 같은 위구가 생겼던것이다.

나는 곧 창고앞에까지 다가갔다.

한손에는 《계주봉》처럼 말아친 꽃양산을 들고 다른 한손으로는 출입문을 조용히 두드리었다.

《똑똑똑...》

한번, 두번만에 대답이 울려나왔다.

《예.》

이어 출입문이 방식이 열리더니 불빛을 받아 얼굴이 예쁘게 상형된 연희가 이 집의 주인인듯이 의젓하게 나섰다.

《연희동무!》

《아니? 군인동무가 어떻게?...》

나를 알아본 연희가 깜짝 놀랐다.

나는 무작정 그앞에다 손에 들고온 물건을 내들었다.

《자, 반소.》

《이게 뭐나요?》

얼결에 그것을 받아든 연희가 의아해졌다.

《풀어보면 알게 아니요.》

연희가 포장지를 조심히 벗기었다. 드디어 꽃무늬양산이 불빛을 받아 현란하게 제 모습을 드러냈다.

《아이! 꽃양산!》

연희는 너무 좋아 선자리에서 나폴하고 뽀박질까지 했다. 그 모습을 마주보는 내 마음도 기뻐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되어 저한테…》

연희가 의혹의 눈길을 들었다.

《그건 동무거요. 동무의 추천표가 당첨…》

《그-래요? 야! 시공참모동지네 아주머니가 꽤나 좋아하겠네.》

연희는 너무도 좋아 꽃양산을 펼쳐든채 한바퀴 빙그르르 돌기까지 했다.

《아니 시공참모아주머니라니? 그건 무슨 소리오?》

나는 어리둥절했다. 연희가 꽃양산을 접어 포장지에 다시 싸며 말했다.

《사실 이 물건이야 군인동지거나 다름없지요 뭐… 그렇지만 이렇게 찾아왔으니 반긴 하겠지만 이걸 시공참모동지한테 드려야 합니다. 시공참모동지가 구경표를 구해다주었으니까요… 어쨌든 고마워요, 군인동무, 이것때문에 여기까지…》

나는 그제야 내막을 알아차렸다. 경기장입구에서 하던 연희의 말도 생각났다. 기관차탐에 속해있는 연희의 오빠가 경기에 출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구경표까지 구해다주면서 등을 떠밀었다던 시공참모…

맑고 깨끗한 이슬만을 마시며 자란 참대와 같이 결곡한 성미를 가진 연희였다.

나는 그 꽃양산 하나를 놓고 연희와 시공참모사이에 오고갈 대화들도 상상해보았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있다는걸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나요?》

연희로서는 내가 거기까지 찾아온것이 놀랍게 여겨졌던 모양이다.

《말도 마오. 동무를 만나는 일이 함대의 사령관을 만나는 일보다 더 어렵거구만… 창고, 식당, 골재장… 온 건설장을 다 헤매고야…》

나의 수고를 헤아려본 연희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군인동지, 제 일이 바쁘다니니 그만…》

나는 그제야 연희가 저녁밥그릇도 채 비우지 못하고 뛰어다니고있다는 사실을 되살려냈다.

《헌데 동문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쁘오? 창고원이라면서…》

연희가 눈섭을 살며시 치켜올렸다. 울상을 지을 때처럼 고운 입매가 약간 이그러질사해지며 눈귀와 이마에 잔주름이 그어졌다.

《야! 군인동지두 참… 바쁘지 않게 됐나요. 당창건기념일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는 때에 건설장엔 아직 할일이 많구… 창고만 지키고있을 형편이 못되지요 뭐… 바쁘게 뛰지 않다간 당에서 결심한 날자에 당창건기념탑준공을 못할수도 있거든요. 그게 어디 상상이나 할수 있는 일입니까… 나쁜만이 아닙니다. 우리, 아니 저 청류다리2단계 건설장과 금릉2동굴 건설장에서도 마찬가지랍니다. 바쁘게 사는 여기에 우리 사는 보람이 있는거랍니다.》

나는 말없이 연희를 바라보았다. 건설장을 배경으로 명멸하는 구호글발도 안겨왔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저 구호글발을 그대로 가슴에 새겨안고 바쁘게 사는 처녀!

이런 처녀의 마음을 몰라주었다는건 얼마나 죄스러운 일인가…

그래도 연희는 나에게 랑해를 바라는 말을 했다.

《그렇지만 오늘 일은 정말 미안해요. 내가 식당에서 구물거리지만 앉았어도 혹시 창고에서 인차 만날수 있었겠는데… 군인동진 아직 저녁식사도 못했지요?》

《!》

나는 코허리가 시큰하고 가슴이 쩌해났다.

연희와 오래동안 이야기를 나누고싶어졌다.

그렇지만 더 이상 여기에서 머물거린다면 바쁜 연희의 발목을 붙잡는것으로 될것이다. 새삼스레 자신이 연희에 비해서 무척 뒤떨어졌음을 느꼈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지켜 연희처럼 바쁘게 급보로 달리며 당을 받들어가야 할 나였다.

어서 가자! 나의 새 초소로! 북부지구의 새 탄광으로 가자! 한시라도 빨리!

휴가기간은 아직도 열흘이나 남아있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라…

《자 연희동무! 그럼 수고하오!》

내가 자리를 뜨려고 하자 연희는 펄쩍 뛰었다.

《아니… 그렇게 가시는 법이 어데 있어요. 좀 앉으세요.》

나는 단마디로 거절했다.

《사실은 나도 바쁜 사람ियो. 언제 그럴새가 없소.》

《아이, 그럼 어찌나…》

어쩔줄을 모르고 헤덤비던 연희가 장부책들이 무득히 쌓인 책상서랍을 열더니 빨강색 익은 도마도를 담은 비닐봉지를 꺼내놓았다.

《이거라도 좀 드세요. 그렇게 가시면 내가 너무 섭섭하지 않나요…》

나는 연희가 주는 도마도봉지를 받아들었다.

《연희동무, 너무 섭섭히 생각지 마오. 내 돌아가면 편지를 하겠소. 오늘 다하지 못한 이야기를 길게 답아서... 그때에 회답이나 해주오. 내가 연희동무를 잊지 않고 살도록 말이요.》

편지라는 말에 연희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이나요? 그럼 꼭 기다리겠어요. 회답편지는 넘려마세요. 아무리 바빠도 군인동지한테만은 꼭 편지를 쓰겠어요.》

비로소 나는 나의 정확한 주소를 알려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연희동무! 이제부터는 날보구 군인이라고 부르지 마오. 난 제대군인 탄부요.》

《그-래요?》

연희와 헤어져 몇발자욱 움직이던 나는 다시 돌아섰다. 해병모에서 우표 한장을 꺼내들었다. 빠스 정류소에서 꺼내들었던 그 우표였다.

《연희동무! 받아두오.》

《이건 또 뭐나요?》

《뭐긴 뭐겠소. 꼭 회답을 하라는 당부지.》

사양없이 우표를 받아든 연희가 멀리까지 바래주었다.

그날밤,

나는 북부지구를 향해 떠나는 급행열차에 몸을 실었다.

수도의 야경과 함께 역구내에서 반짝이는 글발들이 나의 눈길을 끌었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여기에서 우리란 누구인가?

수도의 곳곳에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련이어 일떠세워가고있는 수많은 연희들이며 내가 아닌가...

그들이 저 구호의 글발을 지켜 오늘은 당창건기념탑 건설과 금룡2동굴, 청류다리제2단계공사도 것처럼 믿음성있게 밀고나가고있는것이 아닌가...

언제나 바쁘게 급보로 달리며...

붕!

출발을 알리는 급행열차의 기적소리가 수도의 밤하늘에 메아리쳤다.

나는 그 기적소리에 먼저 마음을 실어 북부지구의 탄광으로 떠나보냈다.

연희에게서 받아안은 평양의 숨결을 그대로 담아...

정시로 평양을 떠난 급행열차는 북부지구를 향해 속도를 높이고있었다.

행정경제위원회의 밤

박웅전

밤은 깊어가도
위원회의 창문엔 불이 밝다
새집들이 배정안을 두고
의견은 분분했으나
모두 기쁜 얼굴로 헤어졌다
식구많은 집들에
공로있는 기술자들에게
차려졌기에
그리고 또 다충집 마감공사가
충분히 협의됐기에

로동과장이 제기한
졸업생들의 배치안은 빈틈이
없고
공업부장이 들고온
시제품가방은 생산에 물렸나니
이런 땀 위원장도 기분이 좋아
습관처럼 담배를 피워문다

하나 식료공장 장맛이 떨어지고
읍 변두리 어딘가 수도관이 새고
병원에 중환자가 들어왔을 땐
즉시로 나간다
협의회도 중단하고
병원으로 공장으로 인민반으로

얼마나 찬찬한가
얼마나 극성스러운가
우리 행정경제위원회 일군들
한 영예군인의 삼륜차바퀴를
두고
어느집 갈아끼울 기와를 두고
빼놓을세라 늦어질세라
인민을 위한 끊임없는 심부름
으로
당을 받드는 사람들

이 세상 그 어디에 있으랴
받을 사람도 모르게
성실한 인민의 심부름으로
낮에 밤을 이어 뛰고 달리는
이런 나라 이런 일군들이

인민의 요구는 그들의 일감
심부름이 잦을수록
인민들에게 차려지는것 더
많아
몇밤을 지새며 천리길 달려도
만족을 모르나니

식구들은 편안히 자도
할 일 많은 한가정의 주부처럼
온 군이 깊은 잠에 들어어도
행정경제위원회의 불빛은
꺼질줄 몰라라

병사의 고향소식

김도환

중대교양실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있던 병사들이 갑자기 환성을 올리였다.

너방송원이 아주 친절한 목소리로 조선인민군 아무아무 군부대 팔호안에 아무곳에서 복무하는 하사정광우동무의 고향소식을 전한다고 알려졌기때문이다.

병사들은 법석 끊어대면서 광우에게 선망의 눈길을 보내였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본인 당자는 눈이 덩돌해서 굳어진듯 앉아만 있었다. 그것은 자기의 고향마을이 이렇게 텔레비존화면에 방영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였기때문이었다.

광우는 꼭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그의 고향은 하늘아래 첫 동네라고 하는 상궁리였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막히고 골짜기사이로 흘러내리는 차가운 물소리가 소란스러운 산골중에서도 깊은 산골마을이었다.

그런데 화면에 펼쳐지는 골짜기는 분명 상궁리가 틀림없는것 같은데 크지 않은 언제로 여러갈래의 명주필을 드리운듯 흘러내리는 폭포수라던가 그것을 배경으로 빨간 뽕죽지붕에 동그란 창문을 단 아담한 집들은(소형발전소같았다.) 처음 보는것들이었으며 더우기 골짜기사이에 칠색무지개인양 걸려있는 아치형 다리는 전혀 생소한것이었다.

광우는 한순간 그것이 현실로가 아니라 마치 동화의 세계에서 나오는 행복의 동산을 보는것처럼 느껴졌다.

(저곳이 내 고향 상궁리란 말인가?!)

광우는 그저 놀라움기만 했다. 농장에서 일할 때 아직 공상으로만 그려보던것이 이처럼 빨리도 산 현실이 되어 나타날줄은 미처 예상도 못하였다.

이때 하늘색 달린옷차림에 눈동자가 흑진주처럼 빛나는 처녀의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우며 나타났다.

(어영?! 진옥이가?!... 아, 진옥이!!)

광우는 그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야말았다. 곁에서 동무들이 그런 그를 보고 히죽이들 웃었으나 그는 그에 개의치 않았다.

너방송원이 상궁리 리사로청위원장 김진옥동무라고 소개하자 광우는 숨이 꺾 막히는것만 같았다. 진옥의 얼굴을 이렇게 텔레비존에서 보게 될줄이야 어떻게 알았겠는가.

광우는 마치 활짝 핀 한송이의 아름다운 꽃을 보는듯 황홀하였다. 별처럼 반짝이는 두눈은 긴속눈

섭아래에서 즐거운 빛을 뿜고있었으며 곡선미가 흘러넘치는 성숙된 처녀의 몸에서는 청춘의 활기가 그대로 물결치고있었다. 전이나 다름없이 여전한것은 젖은 딸기같이 빨간 그 입술을 감싸는 버릇이었다.

처녀는 새별처럼 반짝이는 두눈에 정겨운 미소를 짓고 광우를 바라보았다.

《오늘도 조국보위초소를 굳건히 지켜나가있을 광우동무!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에야 비로소 동무가 애타게 기다렸을 소식을, 우리 고향소식을 전하게 되었어요.》

진옥이가 소식을 이렇게 전해오다니?! 그것도 다름아닌 고향소식을...

순간 군대에 입대할 때 달리는 렬차를 따라오며 소리치던 처녀의 심중이 비로소 이해되었다.

호각소리가 귀따갑게 울리고 렬차가 서서히 움직일무렵, 그가 천천히 승강대에 올라섰을 때에야 붉은 머리수건을 날리며 총알같이 역두로 뛰어나온 처녀는 도간도간 끊어지는 소리로 웨쳤다.

《광우동무- ... 소식을- 꼭- 기다려주세요.-》

그 무슨 소식을 기다려달라는것인가?

딱히 알수 없어 귀바퀴에 손을 오그려붙이고 귀를 강구했으나 안타깝게도 속도를 내며 달리는 렬차의 덜커덩거리는 소리가 그 말뜻을 끝내 알아들을수 없게 했다.

무슨 소식이길래 저리도 꼭 기다려달라는것일까?

역두에 늦게 나온 피치 못할 사연을 알리자는것인가, 아니면 아니면...

그런데 그토록 소식을 기다려달라고 따라오며 웨치던 진옥이한테서는 그후 한달이 지나도 두달이 지나도 아니 2년반 세월이 흐르도록 소식이 없더니(새해를 축하하는 신년장만 보내왔을뿐이다.) 뜻밖에도 이렇게 텔레비존화면에 척 나타나서 소식을 전하고있지 않는가!

(아, 진옥이! 진옥이!...)

광우는 마음속으로 처녀를 부르고 또 부르며 안절부절하였다.

얼마나 보고싶은 처녀였던가, 얼마나 기다리고 고대하던 고향소식이던가, 광우와 진옥이는 탁아소 시절부터 함께 자라난 소꿉동무였다.

지금껏 소식 한장 없기에 광우는 처녀가 얼마나 섭섭했고 원망스러웠던지 모른다. 농장에서 일할 때는 늘 같이 붙어다니며 사람들에게서 쌍둥이 남매라는 싫지 않은 소리까지 들던 그들이었다.

스스로 얼굴이 붉어지는 일이지만 광우는 한때 진옥에 대해 일종의 질투비슷한 의혹까지 품었었다.

몇해전 어느 여름날밤에 광우는 골짜기입구에 서 있는 아름답디 소나무밑에서 처녀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같이 읍에 가서 발전기부속을 가져오기로 했던것이다. 그런데 약속된 시간이 퍼그나 지났으나 처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무밑을 오락가락하며 무려 두시간나마 기다렸건만 처녀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광우는 그만 손에 잡히는 소나무아지를 툇 분질러뜨리고야말았다.

《흠, 좋다. 더 기다릴것도 없지.》

이때 어둠속에서 귀에 익은 녀자의 목소리가 울려왔다.

술한 녀인들이 떠드는속에서도 가려낼수 있는 진옥의 그 맑고 명랑한 음성이었다.

광우는 방금전까지 원망으로 흐려졌던 마음이 햇빛을 받아안은듯 맑아지는것 같았다. 그는 확 피어오르는 반가움에 끌려 앞으로 막 달려나가려고 했다. 그러다가 그만 흠칫하며 그자리에 서버리고말았다.

어둠속에서 진옥의 목소리만이 아닌 진중한 남자의 목소리도 들려왔기때문이다. 귀에 설은 남자의 음성이었다.

캄캄한 어둠속에서 녀자와 남자는 분명 어깨를 나란히 하고 즐겁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걸어오는듯싶었다.

(누굴가? 읍에 함께 가자더니 낮에 저 혼자 갔됐구나. 그런데 이밤중에 웬 남자와 함께 올가?)

광우는 소나무뒤에 몸을 숨겼다.

《그 배낭을 달라니까.》 어둠속에서 남자의 목소리는 살뜰하게 울리었다.

《괜찮아요. 아니, 아니. 일없다는데두요.》 사양하는 처녀의 목소리...

그러나 남자는 녀자의 등에서 기어이 배낭을 벗겨서는 제가 더 짚어지는것 같았다.

(흠, 아주 살뜰하고 다정한데...)

광우는 그 순간 그들의 행동과 음성이 범상한 사 이로만 느껴지지 않았다.

(헛병아리같은 진옥이가 벌써련애를?... 이게 어찌된 일이야??)

광우는 어둠속에서 신경을 바싹 도사리며 귀를 강구었다.

《어야나!》

갑자기 처녀의 비명소리가 울려왔다.

《웬일이야? 귀동녀!》

남자의 놀란 부르짖음이었다.

《아이, 하마트면... 돌부리에 걸렸됐어요. 호호.》

처녀는 넘어질번하다가 남자의 도움으로 자세를

수습한것 같았다.

흠, 귀동녀? 진옥에게 언제 이따위 듣기 싫은 이름이 있었는가?... 그렇지 어렸을 때 그의 부모들이 외동딸인 그를 귀동녀라고 불렀었지. 참 아명까지 부르는걸 보니 보통사이는 아닌것 같은데... 흠,

광우에게 모든것이 불보듯 뻔해졌다.

(아, 그런줄도 모르고 이렇게 눈이 빠지게 기다리다니... 에잇, 참.)

광우는 제 이마를 탁 때리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밤에 광우는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소꿉시절부터 쌍둥이 남매처럼 자별하던 우정이 줄지에 풍지박산된듯하여 가슴이 몹시 허전하였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이 산밭으로 올라가는 비탈길어구에서 처녀와 만나기로 되어있었으나 질질 끌었다. 그러나 그날 파제를 해야했기에 할수없이 갔다. 그는 천천히 걸어가면서 처녀와 만나는 장면을 그려보았다.

《미안해요. 오래 기다렸지요?》

진옥이는 분명 이렇게 물을것이다.

《동무같은 사람을 내가 왜 기다린단 말이요!》

광우는 치솟는 울분을 이렇게 내뿔을것이다.

그런데 정작 처녀를 만나자 일은 다르게 번져지고말았다.

진옥은 광우앞으로 고무공 튀듯 퐁퐁 뛰여오더니 젖은 팔기같은 그 빨간 입술을 감쌀며 명랑하게 인사를 건네었다.

《안녕하세요? 광우동무.》

《안녕하오.》

광우는 뜻밖에도 평온하게 대답했다.

《어제 저녁 오래 기다렸겠군요?》

《기다렸소.》

광우는 태연하였다.

(마침 읍으로 가는 차편이 있어 동무한테 알리지 못하고 혼자 갔됐어요. 그게 나을것 같아서...)

《수고했구만.》

역시 태연한 그의 대답이었다.

《성났어요?》

처녀는 눈을 반짝이며 그를 쳐다보았다. 광우는 아무렇지도 않은듯이 웃어보이려 했다. 하지만 웃음이 나가지 않았다.

무슨 자격으로 나에게 물어?... 에라, 모르는체하자. 사실 그한테 성낼 근거도 없지 않는가. 그도 이젠 성년이고 청춘인데...

광우는 머리를 수긏하고 걸으면서 발밑만 내려다보았다.

《왜 말이 없어요? 그냥 걷기만 할셈인가요? 광우동무.》

《아마 그럴것 같소.》

진옥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광우를 쳐다보다가

그만 발을 헛디디어 비칠대였다. 광우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쳐 그의 팔을 잡았다.

《웬일이요? 어제밤부터… 미안하오. 나 말고도 동무를 부축해주는 사람이 있겠지만… 귀동녀동무.》

진옥은 흠칫하였다.

《뒤편구요?!… 동무가 어제 저녁 보았어요?》

《그렇소. 다행히 그런 기회가 생겼소. 그러나 그것은 우연한 기회였소.》

광우는 자신의 얼굴에 비양스러운 웃음이 떠오르고있음을 직감했다.

처녀는 침묵하였다. 그는 할 말이 더 없는지 그저 길옆에 드리운 구름나무가지들 손으로 툭 쳐버리는것으로써 궁지에 빠진 자기의 난처한 처지를 모면해보려는것 같았다.

광우는 힐끔 처녀를 보았다.

(할 말이 없을테지.)

별안간 처녀가 깔깔 웃어대었다. 하늘을 쳐다보며 자지러지게 웃었다. 마가목 가지끝에 앉아있던 다람쥐가 눈이 울롱해서 바라보았다.

(웃어?!)

진옥은 어리둥절해진 광우를 뵈히 쳐다보더니 장난긋은 웃음이 맴도는 레의 그 빨간 입술을 감쌀았다.

《난 지금 동무속을 들여다보고있어요. 참 재미있는데요. 호호.》

광우는 그만 어처구니가 없어 입을 하 벌리고 말았다.

처녀는 그것이 더 재미있어 못견디겠다는듯이 반짝반짝 눈을 빛내이며 손아래 동생을 타하듯 말했다.

《바보, 어제밤 그사람은 군기계공장에서 선반공으로 일하는 저의 사촌오빠예요. 발전기부속품을 메고 떠나는 저를 도와 밤길을 함께 걸어왔지요. 어때요, 이젠 속이 후련해요? 미래의 공화국영웅동지.》(광우는 중학교에 다닐 때부터 동무들앞에서 군대에 나가 꼭 공화국영웅이 되겠노라고 다짐했었다.)

광우는 우뚝 서버렸다. 그자리에 거울같은것이 있어서 그 시각 자신의 표정을 결눈으로라도 보고 싶은 욕망이 일어났다.

처녀는 어제밤에는 비교도 안될 정겨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오늘을 오래도록 기억해두어야겠군요.》

광우는 한동안 진옥을 지켜보다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용서하오. 그런줄도 모르고… 난 우리의 우정이 이젠 끝나고마는구나 했지. 다시는 그 어떤 의심도 품지 않겠소.》

그렇게 한 멍세였다.

하건만 처녀가 소식이 하도 없기에 저도 모르게 가끔 의혹에 잠기곤하던 광우였다.

그는 진옥이를 보며 한없이 미안한 감이 들었다.

텔레비죤화면에서 진옥은 자랑스레 말을 계속하고있었다.

《광우동무, 우리가 것처럼 공상으로 생각했던것이 오늘은 현실이 되어 산골중에서도 산골이던 우리 마을 상공리가 이제는 살기 좋은 행복의 동산으로 전변되었어요. 오래 기다렸지요. 소식을 좀 더 빨리 전한다는것이 그만… 소형발전소와 다리공사를 끝내고 련이어 양어장 그리고 다락밭에 새로운 분수식관수체계를 도입하느라고 이렇게 늦었어요. 미안해요.》

화면에는 크고작은 갖가지 고기들이 무리지어노니는 양어장과 비탈진 산기슭을 따라 규모있게 전개된 다락밭이 아득히 펼쳐졌다.

분수기에서 뿜어져 흘날리는 물보라가 무지개를 걸어놓고 우줄우줄 춤을 추는 강냉이밭에 차분히 내려앉고있었다.

(아, 저곳이 분명 내 고향 상공리란 말인가?!)

진옥이가 화면에서 설명하고있었던것만 광우는 아직도 잘 믿어지지 않았다. 믿자니 너무도 놀랍게만 생각되면서 얼른 납득이 되지 않았다. 정말 기적이란 바로 이런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가! 상공리 골짜기에 어떻게 되어 이런 기적이 일어난것인가?!… 진옥인 소식이 늦어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과연 그가 자신들이 해놓은 일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것인지 모른단 말인가?…

진옥이와 함께 그후 발전기부속품때문에 읍으로 여러차례 다녀본 광우였기에 골짜기에 언체를 쌓는 일에서도 땀을 많이 흘려본 그였었다. 두해반사이에 진옥이들이 해놓은 일이 이처럼 기적에 기적같이 생각되는지도 몰랐다.

진옥이가 그린 상공리의 전망도를 두고 누구보다 감탄과 찬사를 아끼지 않은 광우였지만 그것을 실현하자면 적어도 10년은 걸릴것이라고 생각하였었다.

그래서 발전소언제 석축장에서 크지 않은 언쟁까지 있지 않았던가.

《후- 우리 힘으로 어느 세월에 이 모든것을 끝내겠는지…》

돌배나무집 막내아들이 이마의 땀을 씻으며 한탄조로 말했다. 그때 등에 지고 올라온 땅작같은 돌을 짊 돌러메치면서 광우는 부르짖었다.

《여, 경찰이, 너무 락심말라구. 이제 동무가 장가가서 자식이 생겨 인민반 1학년생이 될 때면 틀림없이 보게 된다구.》

《하하, 경찰이가 아이 아버지가 된단 말이지…》

누구인가 이죽거렸다. 짧은 이들의 웃음소리가 작업장을 들었다놓았다.

이때 그 웃음소리우로 맑고 명랑한 진옥의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실없는 소리들 그만해요. 부끄럽지들 않아요. 새파란 사람들이 벌써… 난 우리들의 청춘시절에 이 모든것을 끝내자는거예요. 눈앞에 그것이 공상으로가 아니라 현실로 보인단 말이에요.》

《정말 누가 실없는 소리를 하는지…》 경찰의 중얼대는 소리였다.

《뭐라구요?!》

진옥은 날카로운 눈초리로 경찰이를 쏘아보았다.

《됐소, 됐소. 그만들 하오. 진옥동문 원래 평양에 갔을 때 그 그림을 보지 말아야 하는건데… 또 공상이 구름처럼 피어오르는 모양이구만.》

광우는 그들을 자제하며 말했다.

《난 그 풍경화를 본것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요!》

진옥이가 맵싸게 되받았다.

그것은 농장에서 견학차로 평양에 올라갔을 때 일이었다. 광우는 진옥이와 같이 미술박물관을 찾아갔다.

진옥은 한쪽의 풍경화앞에서 자리를 뜨지 못하고 몹시 흥분해하였다.

검푸른 골짜기사이로 흘러내리는 맑고 깨끗한 벽계수에서 튀어오르는 오색령롱한 물방울들, 붉게 타는 단풍나무잎사이로 빨강고 뾰족한 지붕에 동그란 창문을 단 아담한 집들이(소형발전소였다.) 멀리 바라보였다. 근경으로 골짜기사이에 아치형 다리가 칠색무지개인양 멋지게 걸려있었는데 그 다리우로는 그림의 주인공인듯한 푸른색 달린옷차림의 멋진 처녀가 붉은 수건을 흔들며 막 달려가고있었다.

《얼마나 멋진 그림이에요요?》

진옥은 황홀한 기색을 금치 못해하였다.

《이건 뭐요? 환상화로구만.》

《저 그림의 다리우로 달려가고있는 처녀는 지금 어디로 가고있을가요?》

《참,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소. 아마 제일보러 가겠지.》

《동문 참, 어쩔 그렇게 아무렇게나 말해요. 저 처녀 방금 소형발전소를 성공적으로 돌린 그 기쁜소식을 마을에 급히 전하려고 달려가고있어요.》

《그럴수도 있겠지.》

《아니 다른 정황일수도 있어요. 저 처녀는 자기 고향을 텔레비존에 담으려고 내려오는 기자들을 반겨맞으려고 저렇게 자랑스레 뛰어가고있어요.》

《동문 참, 상상력이 대단하구만.》

《문제는 상상력에 있는것이 아니지요. 그림을 보

는 사람의 이해와 관점에 있지 않을까요?》

《그럴수도 있겠지.》

사실 그때 광우는 그 풍경화보다 그옆에 나란히 붙어있던 《한치의 땅도 내어줄수 없다!》고 제목을 단 한쪽의 조선화에 정신이 팔려있었다.

그 환상같은 풍경화를 본후부터 진옥은 마치 그 에 미쳐버린 사람처럼 상공리의 래일을 그 그림에서 보고있다고 하면서 밤낮으로 뛰어다니고있었다.

《흠 일이란 공상과 욕망만으로 되는것이 아니요. 우리 역량으로는 적어도 칠년, 이건 과학적수자요! 내가 밤새껏 계산해봤소.》 광우는 확신있게 말했다.

《칠년이요?! 어야나. 어쩔… 난 적어도 삼사년안으로 끝낼수 있다고 생각하고있는데요.》

《삼사년안으로?! 글썄 생각이야 자유지. 그럴바엔 왜 절반 줄িয়ে 2년이라고 하지 않소?》

《그럴수도 있어요. 나도 타산해봤어요.》

《타산해봤다? 헛참, 역시 공상적이었겠지… 그래 진옥인 지금껏 일해놓은 실적을 보면 모르겠소? 불보듯 뻔한데.》

광우는 그사이 별로 축이 간것 같은 처녀의 할끔해진 얼굴을 측은하게 바라보았다.

《어디 두고보지요!》

《글썄 두고보기요!》

그런데 텔레비존에 연속적으로 펼쳐지는 상공리의 놀라운 현실은 진옥이가 주장했던 그 삼사년도 훨씬 줄িয়ে 이년반동안에 이룩해놓은것이 아닌가?!

그래서 더욱 놀랍고 잘 믿어지지 않는것이였다.

어떻게 되어 상공리 골짜기에서 이런 기적에 기적같은것이 창조되었는가?

눈을 깜빡이며 의혹을 풀려고 생각을 거듭하던 광우는 피땀 머오르는 실마리끝을 잡아쥐며 속으로 부르짖었다.

(아하, 그렇지. 군적인 지원을 받을수 있지 않는가. 그래그래. 제일 떨어진 산골농장이니 도와줄수 있지…)

광우는 비로소 이해되는듯싶어 머리를 끄덕끄덕했다.

이때 화면에 진옥의 모습이 다시 나타났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별처럼 빛나던 그의 눈이 정기를 잃고 뿌옇게 흐려지고 깊은 애수와 통분함에 젖어 떨고있었다.

(무슨 일때문에 갑자기 저렇게…)

진옥의 그 빨간 입술이 떨리는 모양을 광우는 두렵게 바라보았다.

《아, 것처럼 우리 산골농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한평생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쉬임없이 험한 길을 걷고걸으신 어버이수령님께 오늘 우리 상공

리의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얼마나 기뻐하시었겠어요...》

진옥은 더 말을 못하고 입술을 깨물며 오열을 참았다.

그것은 거대한 파문인양 즉시에 광우의 가슴에 전달되어 공명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흐느끼듯 숨을 들이쉬었다.

광우만이 아닌 중대교양실안의 모든 병사들이 진옥이와 함께 비감에 잠겨있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몸부림쳐진다.

하늘에서 태양이 꺼진듯 온 누리가 캄캄해졌다. 주인을 잃은 하늘의 눈물인양련일 비가 억수로 쏟아졌고 우뢰소리는 곡성인양 하늘땅에 울리어갔다.

오, 피눈물에 젖었던 력사의 순간이여, 1994년 7월이여! 너 력사의 갈피에서 왜 생겼더라 말이나?!

광우는 온몸이 그대로 갈가리 찢기는듯한 고통과 슬픔을 억센 의지로 씹어삼키며 가슴소리에 떨구었던 머리를 번쩍 추켜들었다.

그 순간 화면에서 나오는 진옥의 눈빛과 마주쳤다. 그 눈빛은 방금전의 그 비분에 떨던 눈빛이 아니라 비장한 각오와 결심으로 불타는 눈빛이었다.

《하여 우리들은 이 크나큰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산악같이 일떠섰어요. 그저 지금까지 어리광을 피우며 배려만 받으면서 철없이 살아온것만 같아 정말 죄스럽게만 생각되어요. 우리들이 더빨리 철이 들어서 일을 잘하였더라면 어버이수령님께서 그렇게 가지시지 않았을것을... 그래서 우리 산골농장을 하루빨리 살기 좋은 행복의 동산으로 꾸리는것이 생전에 어버이수령님께서 것처럼 바라시는것이였음을 똑똑히 명심하고 늦게나마 자식된 도리를 다하고저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던거예요. 우리들은 자신에게 이처럼 큰힘이 있을줄을 미처 몰랐어요. 스스로 자신의 힘에 놀랄지경이였어요. 그리하여 오직 제 힘으로 4년이 아니라 2년반동안에 끝내 해놓고야말았어요.》

아 저것이였구나. 저 힘과 용기가 바로 기적에 기적을 창조한 원천이였구나!

그래 그렇지. 어버이수령님을 잃은 그 비통한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초소에서든 기적이 창조되지 않았던가.

쏟아지는 폭우, 허리를 치는 진펄길, 강행군, 돌덩이같이 무겁던 배낭, 콩마당처럼 물집이 생겨 부풀어오른 발바닥, 때리고 또 때리어 강철같이 굳어진 주먹, 피가 지도록 깨물던 입술, 참으로 십년을 몇달사이에 압축시킨 간고하나 자랑찬 군사훈련의 나날이었다. 적 백놈, 아니 천놈이라도 접어들라!

그렇다. 기적은 초소에서만 일어난것이 아니라 고향땅 상궁리에서도 일어난것이였다.

고맙소, 고맙소, 광우는 초소에 선 자기와 다름없

이 충성의 한마음을 불태워온 처녀가 진정 고마와 화면에 있는 진옥이를 향해 자꾸 되뇌이였다.

진옥이는 그 빛나는 눈길에 선망과 기대를 한껏 담고 광우를 향해 말했다.

《광우동무, 동무는 입대할 때 다진 그 맹세와 결심대로 언제나 살며 싸우고있겠지요. 그날 조선미술박물관에서 보았던 그 불굴의 용사처럼, 저는 그 용사의 모습에서 언제나 광우동무를 그려보군한답니다.》

그때 광우는 진옥이가 보던 그 풍경화열에 붙어있는 《한치의 땅도 내어줄수 없다!》의 조선화앞에 조각상처럼 서있었다.

두손에 수류탄뭉음을 틀어쥐고 적땅크를 맞받아 거연히 일떠선 병사의 모습을 형상한것이였다.

부릅뜬 두눈에서는 원쑤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이 그대로 불이 되어 펄펄 타오르고있었고 드팀없이 서있는 그 자세에선 그 어떤 놈들이 달려들어도 끄떡없을 산악같은 기상이 내뿜치고있었다. 그의 뒤에는 람홍색공화국기발이 펄펄 날리고있었다. 병사의 그 기세앞에 기가 질리운듯 철갑의 적땅크는 겁을 집어먹고 뒤로 물러서며 기우뚱거리고있었다.

《이것이야말로 가슴을 치는 그림이요. 이 불굴의 모습이야말로 병사의 영웅한 풍모와 승리자의 기개를 당당히 보여주고있지 않는가!》

광우는 마침내 이렇게 부르짖었다. 곁에 와선 진옥이도 그에 공감하듯 머리를 끄덕였다.

그 불굴의 용사의 모습은 광우의 심장을 완전히 틀어잡고도 남음이 있었다.

하여 농장에 돌아와서도 그 불굴의 영상은 광우의 꿈속에까지 나타나 자다가도 자리를 차고 벌떡 일어나게 했다.

더우기 그즈음 하늘과 땅에서, 바다에서 놈들이 매일처럼 화약내풍기는 전쟁소동을 벌리고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광우는 온몸에 피가 그대로 마구 끓어번지는것 같았다.

놈들이 당장 우리를 집어삼키자고 저렇듯 날치고 있는데 나는 골짜기의 물이나 막고앉아 행복이 차례지기만 기다리겠는가.

광우의 눈앞에는 적땅크를 맞받아 일떠선 용사의 모습이 그 어느때보다도 장렬하게 안겨오면서 어서 오라 부르는것만 같았다.

그는 분명히 바지에 묻은 석축장의 흙을 털어버리고나서 끝내 군대에 달려나왔다. 그리고 그 거인같은 불굴의 용사의 모습을 언제나 눈앞에 그리며 남모르는 땀을 흘려왔다.

광우는 진옥의 묻는듯한 눈길을 받으며 자신의 자랑같아서 약간 머리를 끄덕이는것으로 대답했다.

텔레비죤화면에는 마지막으로 다시 상궁리의 전경이 펼쳐지고있었다.

쏟아져내리는 폭포수, 그것을 배경으로 마치 동화속에 있는 착한 동무들의 화목한 집인양 빨갛고 뾰족한 지붕에 동그란 창문을 단 소형발전소들, 고기들이 평화로이 무리지어 헤엄치는 양어장, 골짜기에 칠색무지개인양 멋지게 걸려있는 아치형의 다리, 그 다리위로 푸른 달린옷차림에 붉은 수건을 흔들며 처녀가 달려가고있었다. 그 처녀는 진옥이었다.

광우는 저도 모르게 입속으로 탄성을 질렀다. 아! 그것은 상궁리의 모습이 언제인가 미술박물관에서 환상화로만 보았던 그 풍경화와 신통히도 같았기 때문이었다.

텔레비죤에 펼쳐지는 고향의 모습은 환상이 아니라 상궁리의 오늘의 현실이었다.

지금 진옥이는 어디로 저렇게 달려가고있을가?

광우의 눈에는 어버이수령님께서 그처럼 바라시고 또 바라시던 행복한 우리의 미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확고히 이끌어나가시는 광휘로운 우리의 미래, 바로 그 해빛찬란한 언덕을 향해 저처럼 힘차게 달려가고있는것처럼 보였다.

그러자 미술박물관에 나란히 붙어있던 두폭의 그림이 서로 뿔레야 뿔수 없는 하나의 화폭으로 융합되면서 가슴에 절절히 안겨왔다.

×

광우는 병사들과 같이 초소로 나가고있었다. 처절씩 파도가 밀려와 기슭을 쳤다. 붉게 물든 석양녘의 바다는 장엄하게 설렘었다.

광우는 한가슴에 바다를 안은듯 자신이 더없이 크고 담대하게 느껴졌다.

그는 더욱 억세게 총을 틀어잡았다.

병사는 조국의 오늘만이 아니라 래일, 그 먼먼 미래까지 그리고 한 산골농장의 이름없는 처녀의 아름다운 공상까지 지켜서있는것이였다.

그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전에 그처럼 바라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확신성있게 이끌어가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행복한 우리의 미래, 영원무궁할 사회주의 내 나라, 내조국이였다.

화선에 대한 이야기

리정래

훈련의 실참 너도 나도 고향자랑인데
-나에겐 다른 한 고향이 있소
전쟁로병 대좌동지 이야기 시작했네
-군복입은 나에겐 고향보다 화선이 더 그림소...

느끼느니 포연의 매캐한 내음
들리느니 우뢰치는 총포소리
보이느니 불타는 전호가
화선, 고향보다 그림고 먼저 생각나는가?

거기서 나는 마치 인생의 첫 고고성처럼
멸적의 첫 폭음 세상에 울렸소
제국주의 완전소멸에 나선
이 나라 한 전사의 선언을,

조국을 휩쓴 불길앞에선
한몸 바치기를 서슴지 않는
숨지어도 눈을 뜬채 적을 가리킨
그 사랑, 그 증오가 나의 생명이었소

강냉이 한줄을 분대가 나누어도
가랑잎을 담배 삼아 말아피워도
전우들 이야기엔 실망의 티 한점 없었소
바치는 한목숨이 몇몇하였소

전호속의 탄피금소리 구성질 때면
더덩실 실려왔소 선거날 춤이며
에루화 데루화 발같이 노래며...
행복을 수호하는 화선엔 위훈만이 나래렸소

침략자의 주검을 넘어
총탄자욱 승승한 기발을 들어 만세를 웨칠 때
승리와 함께 우린 다시 태어났소
세계가 다 아는 영웅승리자로

나서자란 고향만이 고향이겠소
전우들을 묻으며 맹세도 묻었거니
최후승리를 찾아서 다시 가야만될
아, 화선, 고향보다 못잇는 화선이라오

꿈나라로 가거라

오영재

여름의 한낮 열어놓은 창문으로는 시원한 바람이
흘러듭니다

나는 보던 신문을 잠시 놓고 줄음이 실려 바스락거
리는 손자아기의 요람결으로 다가갑니다

나를 뵈히 올려다보는 아기의 눈과 마주쳤을 때 그
어떤 신비로운 세계에 끌려든듯 눈길을 떼지 못함
니다

눈처럼 희디흰 자위, 그가운데 흑진주처럼 반짝이
고있는 동공, 그것은 마치도 하얀 백사장에 둘러싸
인 티 한점 없이 맑은 호수와도 같았습니다.

나는 그 《호수》를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런
《호수》에 비끼는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와 보일
것인가

나는 방금 신문에서 본 어느 한 기사가 생각되어
아기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야 넓고넓은 이 세상은 네가 바라보는 그런 세
상만이 아니란다 세상엔 흐린 마음도 있고 검은 마
음도 있고 발톱을 쳐들고있는 무서운 괴물도 있단
다 들려오지 않느냐 저쪽 어디에서 울리고있는 대
포소리, 그것은 괴물의 울음소리란다

아기는 근심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것 같았습
니다 창밖에는 햇살처럼 부드러운 흰 구름이 한가
로이 흐르고있었습니다

나는 갑자기 어른스러워진듯한 아기의 모습을 보며
정말로 아기가 내 말을 알아듣지나 않았을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 아기의 살찐 볼을 슬쩍 건드려보았
습니다 그랬더니 아기는 아직 이가 나지않은 빨간
이몸을 드러내며 소리없이 웃었습니다 그지없이 단
순하고도 순결한 그 웃음은 나의 공연한 생각을 순
간에 가벼히 날려버렸습니다

나는 젖살이 부풀은 아기의 가슴을 다독여주었습니
다 자장 자장 우리 아기 갈 자라 우리 아기...

50년전쟁의 날이 떠올랐습니다 원썬들은 이런 아
기의 가슴에 총을 겨누었고 눈에 흠을 뿌렸습니다
그 아기가 조선이라는 이 땅에 태어났다는 단 한가
지 《죄》로 해서...

지금도 우리가 자신들이 선택한 그 제도를 버리지
않고있다는 그 이유로 하여 내가 다독여주는 아기
의 이 작은 가슴도 여전히 적들이 겨냥하고있는 그
파력으로 되고있을것입니다

이제 탁아소를 마치면 유치원이 안아주고 유치원을
마치면 인민학교, 중학교 그리고 대학이 안아주는
이 제도를 우리가 잃는다면 아기는 고아로 먼 나라
에 팔리우는 몸이 될수도 있고 소매치기나 불량아
로 거리를 헤매이게 될것입니다 호수같이 맑은 저
눈에는 공포와 탐욕의 어지러운 물이끼가 낄것이며
오직 한빛으로 붉은 저 단순한 웃음에는 푸르고
검은빛이 깃들게 될것입니다

구름속에 잠시 숨었던 해님이 다시금 얼굴을 내밀
며 방긋이 웃고 아기는 무엇을 그리도 생각하고있
느냐는듯 동그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있습니다
나는 아기를 재웁니다 자장 자장 우리 아기 꿈나라
로 가거라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아기야 너는 알수 없으리 아니 알지 못해도 좋아
우리가 얼마나 바쁜 날을 보내며 너를 지키고있는
지 너의 엄마는 어떻게 뛰여다니며 너를 안아 젖을
물려주고있는지 저기 보라 아기야 우리를 해치려
너를 덮치려 성난 발톱을 추켜들고 교활하게 웃으
며 오고있는 악마가 보이지 않느냐 눈을 크게 뜨고
보려마 저 악마를... 그 순간, 그 순간에 줄음이 실
려 숨벽이던 아기의 눈이 감졌습니다

아기의 얇은 눈꺼풀이 닫기고 까만 속눈썹이 가벼
이 서로 대이는것이 나에게세 세상을 향해 열렸던
육중한 성문이 닫기는것 같이 생각되었습니다
드디어 아기는 아기의 세계-꿈나라로 간것입니다
아기는 악마가 오고있는줄도 모르고 설사 악마가
온다고 해도 자기를 덮치지 않게 크고 역센 손이
지켜주리라는것을 굳게 믿고있는것만 같았습니다

평화가 선녀의 날개옷을 입고 잠든 아기의 얼굴에
소리없이 내려와앉았습니다 달덩이같은 그 얼굴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을 내뿜고있었습니다

아기는 꿈나라로 갔습니다

그 꿈나라는 티 한점 없는 호수와도 같이 투명하여
천리도 만리도 가까이에서처럼 보이는 나라일것입
니다 거것도 속임도 없고 음모도 모략도 없고 설음
도 외로움도 없고 무서움도 위협도 없고 시샘도 싸
움도 피투성기도 락탈도 없는 세계일것입니다 사욕
도 리기도 모르고 모두가 형제로 다정하고 화목한
나라, 아버지는 자식들을 무한히 사랑하고 자식들

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부지런히 배우고 일하
면서 뜻을 키우고 우리의 새 세상을 열어가는 나라,
오직 밝은 미래만이 지평선 저 끝까지 꽃밭으로
펼쳐져 설레이고있는 나라일것입니다

나는 흔들던 요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잠든 아기와 아기를 감싸안고있는 요람을
다시 보았습니다

아기가 꿈꾸고있는 이 요람은 아기의 꿈을 키워주
고 지켜주는 우리 집이었습니다 우리의 숨결과 체
온이 깃든 정든 우리 집- 그것은 우리가 지키는 사
회주의의 모습으로 나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파도가 되어 물결이 되어

(총련)로대영

여기는 이역땅
그리운 마음 달랠길 없어
저 멀리 바라보면 조국이 있을
바다가에 나와 나홀로 거닐면

파도는 밀려와 내 발등을 적시고
적시고는 다시 밀려갈 때
가고싶은 그리운 조국이어
안기고싶은 어머니품이어
간절한 이 심정 파도에 실어보네

파도여, 물결이여
너는 자유로운 바다
하루 그 몇번 이 기슭을 떠나
이랑이랑 연출연줄
그리운 조국의 기슭에 밀려가
구슬구슬 부서지겠지

내 되고싶구나
저 파도 저 물결
파도가 되어 물결이 되어
가고싶어라, 그리운 내 조국으로

이역땅에서 우리 말 배우던 첫 기쁨
그리고 정깊은 선생님들...
못잊을 감사의 내 마음
파도가 되어 물결이 되어
조국땅 기슭을 고이 쓸며
아버이장군님께 큰절 드리고싶구나

한자욱 두자욱 걸음 옮기면
바다가에 새겨지는 발자욱
물이 고였다 지워지는
그 발자욱에 내 생각도 깊어져

달려가고싶구나
달려가 또 아뢰이고싶은 사연-

어제밤에도 나의 아버지
총련사업으로 늦게 돌아와
잠 못드는 나의 머리 쓰다듬어주시며
참된 조국의 아들이 되라 하던
대를 이어 뜨거워지는 조국애의 피줄기
가슴속의 자랑스러운 그 사연도
파도가 되어 물결이 되어
조국땅기슭에 가 전하고싶고

내 머리우에 비낀 하늘은
조국의 하늘, 평양의 하늘
내 숨결 하나 쉬어도
내 일감 하나 잡고 일해도
조국의 품이 나를 안아주고있어
내 마음 든든하거니
내 파도가 되어 물결이 되어
그 심정도 전하고싶구나

내 끝까지 살리라
조국의 아들로
충효로 불라는 장군님의 아들로
조국의 념원을 풀어주려
이 한목숨 바치는 아들로

기쁨 떠나 괴로울 때나
언제나 이 바다가를 거닐면
가슴에 구김없이 티가 없이
내 한생 빛나게 살리라는
그 맹세 뜨거운 자욱자욱을
파도파도 밀려와 적실 때면
더더욱 그리워지는 내 조국
그 품에 전하는 심정의 이야기여
오늘도 래일도
파도가 되어 물결이 되어
파도가 되어 물결이 되어

(필자는 조선대학교 문학과 학생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은 오직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로 굳게 뭉쳐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위업에 몰바쳐 투쟁하는데서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을 체험하게됩니다.》

김정일

실화문학

삶의 보람은 어디에

서진명

1

《똑똑똑...》

초간이 사이두고 문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조금전에 무슨 소리가 난듯싶어 귀를 기울였다가 아무 기척도 없기에 다시 머리를 숙인채 원고지를 들여다보던 나는 조심스럽게 울리는 그 소리에 얼른 문쪽으로 눈길을 보냈다.

《들어오십시오.》

내가 큰 소리로 응답을 해서야 동실한 얼굴에 눈이 억실억실한 처녀가 문을 열고 들어섰다.

나는 그를 반갑게 맞아들였다.

작가동맹과 인연을 맺은지 얼마되지는 않지만 생활적이면서도 개성이 엿보이는 시를 한두편 발표하여 독자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동무였던것이다.

몇마디 인사말을 남긴후 나는 그가 어쭙게 내놓은 시작품을 읽어보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주신 친필서한에서 제시된 과업과 《로동신문》에 실린 공동사설에 담긴 당의 의도를 받들고 들끓어번지는 피복공장의 숨결이 느껴지는 다섯편의 시로 엮어진 시조였다.

아직은 감정이 여물지 못하고 생경한 시구절들도 적지 않았지만 나를 기쁘게 한것은 매편의 시마다에 그가 책상물림으로 로동생활의 첫 발자국을 땀 공장, 재봉기앞에서 갖가지 옷을 안아내는 더없는 긍지와 한공장사람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감정이 진하게 풍기고있는것이였다.

나는 그에게 시들의 우점과 부족점을 일일이 지적해주면서 작품의 수정방도를 알기 쉽게 말해주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배인어머니》라는 제목을 달고 쓴 시는 몇번 곱씹어 읽어보았지만 그에게 종시 신통한 의견을 주지 못하고말았다.

유감스럽게도 나는 그가 일하는 그 공장 지배인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있었던것이다.

아는것이 있다면 성천강피복공장이 해마다 년간 계획을 수행하는 일 잘하는 공장으로 조업 스무덤회 되는 지난해에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받았다는 것과 온 나라에 널리 소개된 대흥광산의 열아홉명의 처녀들과 함주군 동원리의 열명 처녀들이 일하

던 공장이라는것뿐이였다.

참으로 난처한 일이 아닐수 없었다.

나는 그와 헤어지면서 동무네 공장에 한번 찾아가 현장도 돌아보고 지배인동무도 만나보겠다고 말했다.

그가 시에서 표현한바와 같이 공장과 운명을 같이 해오고있는 귀밀머리 희숙한 녀성지배인, 그가 어떤 인생행로를 걸어왔으며 일을 어떻게 잘하고있기에 문학작품의 주인공으로까지 되었을가 하는 작가적인 호기심과 한 문학통신원이 쓴 미완성시가 세상빛을 보게 끝까지 도와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였다.

며칠후 나는 시간을 내어 성천강피복공장을 찾아갔다.

성천강기슭으로 넓게 트인 길옆에 벽체에 흰 다 이루를 붙여 류달리 환한 5층으로 된 기본생산건물을 모체로 하여 모자형으로 보조건물들이 줄느러니 서있는 비교적 큰 공장이였다.

작달막한 키에 다부지게 생긴 몸매, 길거리에서 만났더라면 스쳐지나고 말았을 수수한 보통녀인, 지배인 유귀진에 대한 첫 인상은 바로 이러ру한것이였다.

책상을 마주하고 앉아 내가 찾아온 용건을 말하자 유귀진지배인은 눈가에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겸손하게 사양했다.

《나에 대하여 알고싶다구요. 내게는 작가동무의 흥미를 끝만한 이야기거리가 없답니다.》

좋은 취재대상일수록 자기를 좀처럼 드러내려하지 않는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나는 그럴수록 끈지게 그를 내가 바라는 이야기세계로 이끌어갔다.

...고향은 강원도 안변군 배화리, 가난한 빈농가의 가정에서 태어난 만딸, 그의 어린 시절은 눈물과 한숨 속에 흘러갔다.

할아버지를 비롯한 온 집안식구가 지주놈의 소작지를 손발이 닳도록 가꾸어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있는 형편이였다.

유귀진은 한창 공부해야 할 어린 나이에 고모와 함께 집에서 가마니를 짚었다.

고달픈 하루해가 저물도록 짜고 짤 가마니에 합격을 알리는 도장이 찍히지면 얼마간의 값전이 차례지군했는데 그것이 그에게는 한가닥의 기쁨이였

다.

취구멍에도 벌들 날이 있다고 늦은대로 그의 작은오빠가 소학교에 가게 된 날은 그의 가정에 기쁜 날이었다.

하나 유귀진에게는 이날이 눈물의 날이었다.

그는 자기도 오빠와 같이 소학교에 가게 해달라고 조르면서 슬피 울었다.

그러는 딸의 정상을 젖은 눈길로 바라보며 어머니는 청갈린 어조로 이렇게 말했었다.

《이 철없는것아. 넌 만오빠가 징용에 끌려가던때보다 더 슬피 우는구나. 오빠의 월사금도 대기힘인데 치마두른것까지 어떻게 공부시킨단 말이나.》

그무렵 그는 항학열이 어찌나 높았던지 낮에는 가마니를 짜고 밤이면 야학방에 가서 공부를 하여 소학교 2학년수준의 학력을 소유했었다.

8.15해방은 이 나라 모든 가정이 다 그러했듯이 유귀진의 집창가에도 밝고 따사로운 해빛을 함뿍 뿌려주었었다.

징용에 끌려갔던 만오빠가 돌아온 기쁨에 땅을 무상으로 분여받은 기쁨이 겹쳐지고 멀리 함흥에서 살고있던 아버지에게서도 인민위원회 지도원이 되었다는 희소식이 날아들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이 주신 땅을 알심있게 가꾸어 풍년농사를 지은 이듬해 봄 유귀진이네는 새로 지은 집에 이사하게 되었으며 서발 막대기를 휘둘러도 거칠것이 없던 그의 집안에 가장집물이 늘어나 밤마다 그가 돌리는 재봉기소리가 그 무슨 행복의 노래가락처럼 울려나기 시작했었다.

해방덕에 인민학교 5학년에 편입하여 그 학교를 졸업한 유귀진은 집에서 농사를 짓는 한편 리민청 부위원장으로서 청년들의 앞장에서 크고작은 일을 도맡아하었다.

그 시절로 말하면 처녀나이 19살만 되어도 늙은 처녀라고 할 때였다.

술한 총각들이 언제나 새별눈을 반짝이며 콩당콩당 뛰어다니는 쾌활한 처녀, 자그마한 키에 얼굴이 복성스럽게 생긴 그에게 청혼을 해왔었다. 하지만 이성에 대해, 일생을 같이할 배우자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배울 욕심, 일박에 모르던 순진하고 꿈많은 처녀의 생활속에 뛰어들려는 그 《불청객》들을 그는 매정하게 물리쳐버렸다.

뜨거운 불을 안고 찾아왔던 못총각들은 처녀에게서 뜻밖의 랭대를 받게 되자 하나 둘 그의 곁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었다.

그러나 한 총각만은 검질기다 할 정도로 그의 뒤를 따라다녔다.

...

《따르릉, 따르릉.》

책상우에 놓인 두대의 전화기가 갑자기 승벽내기로 방의 주인을 찾는바람에 유귀진지배인은 저도 몰래 깊이 빠져들었던 추억의 세계에서 현실로 되돌아왔다.

나는 섭섭한대로 취재수첩에 만년필을 놓고 전화통화가 끝나기를 기다리는수밖에 없었다.

기다리는 시간은 짧아도 길게 느껴지기마련이다. 퍼그나 오랜 시간(나에게는 그렇게 생각되었다.)을 기다린 뒤끝에야 통화가 끝났다.

그러자 이번에는 나들문쪽에서 문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수 없었다.

나는 유귀진지배인이 살아온 경위에 대해 알고싶어하는데 들끓는 현실은 그에게 과거를 돌이켜볼 한토막 시간조차 낼수 없게 하고있었던것이다.

문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울리더니 문을 열고 50대의 중년사나이가 들어섰다.

《상호 어머니!》

그 사나이가 탄성에 가까운 큰소리로 방의 주인을 부르며 다가오자 유귀진도 반색을 하며 마주 일어서는것이였다.

《아이구 박사선생이 어떻게!...》

나는 어리둥절한 눈길로 두사람의 해후를 지켜보았다.

책상우에서 전화기가 다시 주인을 불러댔다.

유귀진은 송수화기를 들더니 《알았어요.》 하고 말하며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그는 나와 그 박사라는 사나이를 랑해를 바라는 눈길로 일별하며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정말 미안해요. 현장에 협의회를 소집해놔서... 될수록 빨리 끝내고 오겠어요.》

그리하여 잠간새 지배인방에는 나와 그 박사라는 사나이가 남게 되었다.

2

통성을 하고보니 그 사나이는 과학원에서 함흥에 출장은 박사의 학위를 지닌 연구사 신인철이였다.

역시 안변태생으로서 유귀진지배인의 남편과 먼 친척별이 되는 사람이였다.

내가 방금전에 지배인에게서 처녀시절 그를 열렬히 짝사랑하던 한 총각에 대한 이야기를 듣던참이라고 하자 박사는 싱글싱글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였다.

《그럼 내가 지배인을 대신해 그 이야기를 계속해 드려야겠구만요. 그때 그 총각의 〈방자〉역을 내가 맡아했었으니까요.》

《아 그렇습니까.》

나는 즐겁게 웃으며 취재수첩을 다시 펼쳤다.

...그 총각은 당시 안변고급중학교 졸업반에서 공부하고있던 신도순이란 청년이였다.

당원으로서 학교적으로 제기되는 크고작은 일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대군했으며 군적으로 열리는 회의때마다 학생대표로 연설도 곧잘하군하는 이목구비가 큼직큼직하게 생긴 쾌남아였다.

어느날 신도순은 신인철에게 전에 없이 두툼한

편지를 주며 어떻게 하든 처녀에게서 회답을 받아 오라고 신신당부했었다.

그러나 소년 《특사》는 그날도 빈손으로 돌아오 고말았다.

속이 달아오를대로 달아오른 총각은 이번에는 방법을 바꾸어 저녁마다 처녀의 집이 뻗히 내려다보이는 나지막한 언덕에 앉아 피리를 불곤했는데 고즈넉한 밤의 정적을 깨뜨리며 울리는 피리소리는 밤깊도록 처녀의 집 창문을 울려주었었다.

드디어 3년만에 신도순은 유귀진의 마음을 움직이고야말았었다.

사랑과 행복을 싣고 날과 달이 꿈같이 흘러갔었다.

전쟁의 포성이 그의 집 창문을 두드린것은 그가 안해와 함께 가정생활을 시작한지 1년도 채못되던 때였다.

신도순이 군복을 입고 전선으로 떠나자 유귀진은 임신한 몸으로 재봉기를 이고 읍에서 80리남짓 떨어져있는 미현리를 찾아 떠났었다.

군당에서 그곳 학교자리에 후방가족들로 군인들의 내의를 만들도록 립시 작업장을 꾸려놓았던것이 다.

어느날 그는 시집이 적기가 떨군 폭탄에 맞았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듣고 허둥지둥 읍으로 달려갔었다.

채더미로 된 집과 시할머니와 시어머니의 사망은 그를 오래도록 슬픔의 나락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했었다.

또한 이 참변은 21살의 애젊은 그의 연약한 어깨 위에 시집의 살림살이라는 무거운 짐을 떠실어주는 결과를 빚어냈었다.

모든것이 부족한 전시의 어려운 형편에서 시할아버지와 시아버지, 시동생 일곱명에 갓 태어난 그의 아들까지 합쳐 11 명의 대식구를 거느리고 생활한다는것은 이만저만한 고생이 아니었다.

우선 읍에서 조금 떨어진 오골에다 립시로 살수 있는 토굴집을 지어야 했으며 대식구의 때식을 끓여야 했었다.

또한 아들과 함께 이제 겨우 두살난 막내 시동생을 젖을 먹여 키워야 했으며 마을녀인들과 함께 인민군대원호사업도 해야 했었다.

어렵던 그 시절 그가 때없이 눈물을 흘린것은 자신의 일때문이 아니라 배고파하는 시동생들이 불쌍해서였다.

전쟁은 이 자그마한 녀인에게 가혹하다 할 정도로 불행을 덮쳐워주었다.

남편의 사망통지서가 온날 유귀진은 온밤 소리없이 울며 베개를 눈물로 적시였었다.

허나 이튿날 새벽에는 아무 일도 없은듯 자리를 차고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켰으며 산나물을 뜯으려 산으로 올랐었다.

마을사람들은 남편이 사망한 뒤에도 시집식구들

을 위해주는 마음이 변함없는 유귀진을 동정과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눈길로 지켜보았다.

조국해방전쟁이 우리 인민의 승리로 끝나자 이땅 위에는 해방직후와 같은 행복한 생활이 다시 꽃피 나기 시작했다.

유귀진이네도 오골의 토굴집을 떠나 나라에서 불탄 집터에 새로 지어준 집으로 이사를 했다.

날과 달이 흐를수록 전쟁전과 같은 행복한 생활이 마을과 일터에 차넘치기 시작하였다.

변하지 않은것은 유귀진이 여전히 가정에서 대식구의 주부의 책임을 지고있는것이였고 눈에 때없이 어려오군하는 시할머니와 시어머니 그리고 그리운 남편의 얼굴을 다시 볼수 없는 크나큰 상실의 아픔이였다.

유귀진의 손을 거쳐 시동생들이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군대에도 나가니 몇년사이 집식구가 절반이상 줄어들게 되었었다.

게다가 시아버지가 어리무던한 녀인을 안해로 맞아들이기까지 하니 그는 가정일의 부담에서 완전히 해방되다싶이 되었었다.

어느날 유귀진은 시아버지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렇게 조심스레 자기 의향을 터놓았었다.

《아버님이 허락하신다면 저는 아들을 데리고 함흥에 갈가봐요.》

《아예미를 고생만 시키다 어떻게 그냥 보내겠나. 이제는 살림도 껴이고 새 어머니도 왔으니 갇힌가더라도 몇년이라도 좀 편안히 지내다 가는게 어떻겠나.》

《아버님, 제가 이 집에 있으면서 식구들을 돌봐주어야 할 일이 있다면 전 아마 이런 말을 못꺼낼거야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없어도 걱정할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제 마음은 모르고 곁에서들은 자꾸 재가하라고 하지. ...차라리 함흥에 가서 마음껏 사회생활을 하고싶어요.》

《상호 에미 마음이 정 그렇다면 우린 서로 헤어지는수밖에 없구만.》 이렇게 말하는 시아버지의 눈굽에는 핑그르 뜨거운것이 고였었다....

신인철은 이런 말로 자기 이야기를 끝마쳤다.

유귀진지배인이 방에 들어왔을 때는 점심시간이 거의 되었을무렵이였다.

생각같아서는 저녁까지 공장에 불박혀있으면서 이야기를 계속 듣고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과 인사를 나누고 서둘러 공장을 나섰다.

못다한 취재는 다음날로 미루더라도 오후에 창작실에서 있게 될 작품합평회에 참가해야했기때문이었다.

3

며칠후 나는 시간을 내어 성천강피복공장을 다시

찾아갔다.

유감스럽게도 지배인방에는 열쇠가 잠겨져있었다.

복도에서 주춤거리고있던 나는 마침 지난번에 왔을 때 낫을 익힌바있는 초급당비서를 만났다.

당비서는 지배인이 평양에 출장갔다고 하면서 나를 자기 방으로 이끌었다.

왔던 길에 나는 지배인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 간접취재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당비서와 마주앉았다.

유귀진은 이 땅우에 천리마작업반쟁취운동이 한창 벌어지고있을 때 작업반을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화목한 집단으로 만들어 성천구역적으로 선참으로 천리마작업반칭호를 쟁취하였으며 고등경공업학교 통신생으로 이악하게 공부하여 끝내 피복기수로 되었다.

그가 위대한 수령님의 신임과 배려에 의하여 함흥피복공장 지배인으로 사업하게 되었을 때였다.

한번은 유귀진이 평양에 출장갔다가 화물자동차를 한대 배정받은 일이 있었다 한다.

끝고오자니 운전수가 없었고 두고오자니 꼭 누구에게나 빼앗길것만 같아 그것을 두고는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평양시안의 차사업소들을 거의 다 찾아다니며 수소문해 집이 함흥인 제대군인운전수를 만나게 된 그는 그 운전수청년과 그가 속한 차사업소의 지배인과 당비서를 설복하여 끝내 그 차에 배정받은 천까지 싣고 공장에 돌아왔다는것이였다.

유귀진과 낫을 익히기도전에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헌신적으로 이악하게 해왔는가에 대한 그러루한 이야기를 지내 많이 들은 까닭이라고 해야할는지 사람들은 믿음과 기대가 어린 눈길로 새 지배인의 일거 일동을 지켜보았다.

한데 놀라운것은 유귀진지배인이 지내 성격이 온순한데다 눈물이 많은것이였다.

내놓고 눈물을 흘린적은 없지만 사람들은 때없이 그의 사무실에 들어설 때마다 그가 조금전에 홀로 울고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했다. 이 뜻밖의 사실은 새 지배인에 대한 좋은 인상을 흐리게까지 했다.

사실 그 당시 공장형편은 말이 아니였다.

설비를 꾸리고 종업원을 받아들이는 등 모든것을 령에서부터 새로 시작해야 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 아름답고 떠메고 일떠서야 할 짐이 아무리 무겁다 한들 지배인이란 사람이 찍하면 울어가지고서야 큰 공장을 어떻게 이끌고나가겠는가 하는 불만과 걱정이 들기까지 했다.

그러나 한두해도 아닌 오랜 세월은 사람들의 그 불만과 걱정이 공연한것이라는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직장마다 가구를 들여놓고 채봉기며 채단기, 특수기계를 설치하고나니 아직은 부족한것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런데루 일을 시작할수 있게 되었다.

고등중학교 졸업생들이 천여명에 가까운 단발머리들에 비하면 선생이라 할수 있는 800여명의 가정부인들을 받게 되고보니 그들이 마음놓고 일할수 있게 탁아소를 빨리 지어주어야 했다.

평양에서도 그중 잘 지은 탁아소를 본따 건물을 번듯하게 지어놓고보니 호실마다 위생문화적으로 난방을 보장할수 있게 배관을 구해오는것이 또 하나의 난문제로 나섰다.

자재일군들을 여러번 배관을 구하러 보냈으나 매번 헛탕을 치고 돌아왔다.

유귀진지배인이 평양에서 회의를 끝마쳤을 때는 설명절을 며칠 앞둔 때였다.

그는 년말과 관련하여 공장에 내려가서 처리할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였지만 그길로 서해안의 한 제강소로 찾아갔다.

기차는 오후 1시경에 낫설은 철의 도시역에 도착하였다.

평양에서 새벽부터 서두느라고 아침식사도 설치지만 그는 점심식사를 할 생각마저 잊고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가며 제강소로 종종 걸음을 놓았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그 불찰로 하여 일군들을 만나지 못할것만 같은 생각때문에서였다.

유귀진은 울렁이는 가슴을 가까스로 누착히며 지배인실문을 두드렸다.

제강소지배인은 회의갈 시간이 다 됐다고 하면서 유귀진에게 긴말을 할 시간적여유도 주지 않았다.

그저 무슨 일로 찾아왔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묻고는 누가 뭐라고 해도 계획에 없는것을 줄수 없다고 딱 잘라매는것이였다.

유귀진은 제강소지배인이 밖으로 나간지 오래도록 그 방의 의자에 못박힌듯 앉아있었다.

믿었던 기둥이 넘어지듯 가슴을 허전하게 하는 실망감과 함께 겹쌓인 피로가 갑자기 온몸에 무겁게 매달려 그는 가뜩이나 작은 몸을 더 웅송그린채 말없이 앉아있기만 했다.

한편 애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슬하에 단 하나 살붙이인 아들을 돌봐줄 사이도 없이 때식도 잊고 뛰어다니는 자기의 애바른 심정을 그렇게도 몰라주다니 하는 생각에 눈물이 견잡을새없이 솟아나는것을 막을수 없었다.

유귀진은 인기척을 느끼고 젖은 눈길을 들었다.

귀염성스럽게 생긴 기요원처녀가 문가에 서서 동정심이 어린 눈길로 그를 쳐다보고있었다.

유귀진은 나 어린 처녀앞에 눈물을 보인것이 쑥스러워 황급히 눈굽을 씻었다. 때를 같이하여 이방의 주인은 지금쯤 승용차를 타고 평양으로 달리고있을텐데 내가 왜 빈방에 멍청하니 앉아있을가하는 생각에 의자에서 움쭉 몸을 일으켰다.

유귀진이 당비서방이 어딘가고 물자 기요원처녀는 복도까지 따라나와 그 위치를 대주었다.

또한 헤어지기 앞서 고맙게도 《우리 당비서동지

는 인정이 많은분이랍니다.》 하고 좀전처럼 땀을 받지 않을가 하는 생각으로 가들어들기만 하던 그의 가슴을 얼마간 펴게 해주는것이였다. 처녀의 말대로 당비서는 인정이 많은 사람이였다.

비서는 유귀진이 하는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깊게 들어주었으며 전화로 배관생산실태를 알아보기까지 하였다.

그런뒤 그를 데리고 현장에까지 나가 이렇게 현장일군들을 불러일으켜주었다.

《이 함흥서 온 지배인동무가 배관을 해결할 때까지 동무네와 같이 일하겠단만. 설명절도 함께 쇠구. 어떻게 하면 좋겠소!》

진정은 진정으로 통하는 법이다.

현장노동자들은 이틀새 계획했던것보다 더 많은 배관을 생산해 유귀진지배인의 요구를 해결해주었다.

락아소의 모든 방들에 줄줄이 늘인 배관을 타고 중기가 흘러 후끈하게 덥혀진 방들에서 즐겁게 뛰노는 귀여운 어린이들을 바라보는 유귀진의 눈에는 핑그르 더운 이슬이 어리였다.

종업원들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무진애를 쓰면서도 끝내 보이고야만 그 눈물,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어린 지배인의 그 얼굴이 돋구어 보이고 아름다와보이기까지 했다.

4

《이제는 퍼그나 오랜 세월이 지났지우다. 그때로 말하면 유귀진지배인도 사십전의 젊은 나이고 그의 아들도 앞가슴에 붉은넥타이를 매고 다니던때였지요.》

유귀진지배인과 한인민반에서 산적이 있는 김순실녀성은 나와 마주앉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나라의 모든 어머니들이 다 그러하듯 유귀진 역시 아들을 끔찍이 사랑했다.

커갈수록 락동강 모래불을 붉은피로 물들이며 전사한 남편의 모습을 닮아가는 아들이였다.

어머니의 애무의 손길만이 아닌 살아생전에 한번 보지도 못하고 안아주지도 못한 아버지의 뒤통도 합쳐 하루에도 열번 스무번 끌어안아주고싶은 아들이였다.

더우기 손우의 누이나 동생도 없이 텅 빈집에 홀로 있군하는 아들은 물과 공기처럼 어머니의 손길이 언제나 자기 몸에 닿아있기를 바라고있었다.

그러나 그는 공장일에 들볶이느라고 집을 잊고살 때가 많았으며 아들을 위해주는 시간을 거의 내지 못하였다.

집에 오는 경우에도 깊은 밤중에 들어왔다가 새벽에는 다시 공장으로 나가곤했다.

그러다나니 아들은 부엌일에 익숙되여야 했으며 빨래도 해보고 점심은 물론 저녁에도 얼마 남지않은 찬밥으로 끼니를 에울 때가 드문하였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어느해 추운 겨울밤이였다. 깊은 잠에 들었던 김순실은 문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깨여났다.

처음은 자기를 찾는 소리로 착각했었는데 유심히 듣고보니 그 소리는 바로 옆집에서 울리고있었다.

벽시계는 밤 12시를 가리키고있었다.

한동안 초간이 규칙적으로 울리고있던 문두드리는 소리는 점차 신경질적으로 더 크게 울려났다.

고요속에 잠든 4층아파트의 모든 집들이 다 들으리만큼 그 소리는 크게 울렸건만 아들은 여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것 같았다.

(일에 지치고 추위에 언 어머니를 밖에 세워놓고, 원 애두 철이 없지...)

김순실은 남의 일 같지 않아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드디어 옆집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김순실은 안도의 숨을 쉬었다.

그때 벽시계는 새벽 1시를 가리키고있었다.

이튿날아침 유귀진은 김순실을 만나자 간밤에 있는 일을 말했는데 그러는 그의 눈굽에는 눈물이 가랑가랑 맺히는것이였다.

《내가 글썄 어제밤 우리 애한테 매를 들었다가 그만 울고말았다우. 가마를 열어보니 점심을 먹으라고 남겨놓은 밥도 안먹었더군요. 왜 밥을 안먹었는가고 하니 글썄 어머니가 들어오면 같이 먹자고 그랬다질 않수...

내 눈에 눈물이 고이니 그애는 또 그대로 가슴이 아픈듯 이제부터 팔에 노끈을 매고 그 한끝을 문 째므로 내밀고 자겠다고 하질 않겠수. 자기가 미처 깨나지 못하면 그 노끈을 잡아당기라고 말이우. 그 말을 들으니 매를 맞은건 그애가 아니라 나자신인듯 설음이 북받치더구만.

내가 왜 죄없는 애를 때렸을가 하는 가슴허비는 자책감과 함께 누구보다 사랑하면서도 언제나 곁에 있어 아들을 보살펴주지 못하는 자신의 일이 안타까와 그애를 불안고 울고울었지요.》

김순실은 뜨거워지는 눈굽을 숨벽이며 이렇게 후회막심한 어조로 말했다.

《내가 곁에서 도와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또 그만... 정말 미안해요.》

그로부터 며칠후였다.

김순실은 깊은 밤중에 울리는 피리소리를 듣게되였다.

초저녁도 아닌데 누가 잠을 안자고 피리를 불고있을가. 알아보니 피리소리는 바로 옆집에서 울리고있었다. 초저녁잠이 많은 애가 왜 아직도 잠을 못 자고있을가? 혹시 어머니를 대신해 내가 도울일이 있는게 아닐가.

김순실은 엇갈려 갈마드는 의혹과 걱정을 안고 옆집에 들어가보았다.

신문지를 썩워놓은 밥상을 앞에 놓고 소년은 벽에 기대앉아 피리를 불고있었다.

인기척을 듣고 문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그애의 눈이 불꽃이 인듯 반짝이었다.

아마 어머니가 온것으로 생각한것 같았다.

김순실이 왜 아직 안자는가고 묻자 상호는 싱긋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가 올 때까지 잠을 자지 않으려고 그래요. 전번날처럼 잠을 자면서 어머니에게 문을 열어주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김순실은 어느해 봄날 자신으로서도 놀라울 정도로 가슴이 설레는것을 느꼈다.

바로 그날은 안해가 사망한지 3년이 지나도록 독신으로 살면서 은근히 이웃집 녀인을 넘보고있는 한 중년사나이가 정식으로 유귀진을 만나러 오겠다고 알려진 날이었던것이다.

김순실은 그사람이 직업도 좋고 사람됨도 나무랄데가 없다는 말을 들은바 있는지라 그 사나이가 오랜 기간 남편이 없이 살아온 이웃집 녀인을 행복하게 해주었으면 하고 은근히 바라기까지 하였다.

그 사나이는 저물녘에야 이웃집을 나섰다.

그의 얼굴은 상기되어있었으며 계단을 밟고 내리는 발걸음소리는 무겁게 들렸다.

일이 제대로 안됐다는것이 험동했다.

유귀진은 복도에 서서 저녁여스름이 내리는 아파트 앞마당을 고개를 숙인채 걸어가는 그의 뒤모습을 바라보고있었다. 순실은 유귀진이 측은하게 생각되어 조용히 한숨을 내뿜며 그걸로 다가갔다.

《이봐요. 상호 어머니, 모두들 그사람이 괜찮다고 하던데 왜 그냥 보냈어요?》

유귀진은 입가에 애써 웃음을 지어보이며 자신의 애모쁜 심정을 이렇게 솔직히 터놓았다.

《고마와요. 나도 녀성이예요. 남편의 사랑이 그리운 녀자란 말이예요. 하지만 난 재가에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어요. 그걸 생각한다는건 락동강에서 돌아오지 못한 그이앞에 죄되는 일이고 아들에게 떳떳지 못하기때문이에요.》

김순실은 그때의 일을 회상하며 이런 말로 자기 이야기를 끝마쳤다.

《그뒤에도 그 남자는 여러번 찾아왔으나 상호어머닌 끝내 그 사나이가 집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게 했지요. 그는 정말 무서운 녀자입니다. 아니 강한 녀자이지요. 나는 종종 그의 위치에 자신을 세워보군한답니다. 내가 20대의 나이로 상호 어머니의 처지에 빠졌더라면 이제까지 홀로 살면서 공장일을 그렇게 억척스럽게 하고 아들을 의젓하게 키워낼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5

마음이 끌리는 한 녀성에 대한 취재를 마쳐 끝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루는속에 또 며칠이 지나갔다.

어느날 아침 나는 그날이 공장의 휴식날이라는데

을 번연히 알면서도 혹시나 하고 송수화기를 들었다.

의외에도 송수화기로 귀에 익은 유귀진지배인의 음성이 들려나왔다.

그리하여 나는 얼마후 지배인방에서 그와 두번째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오늘은 쉬는날인데 어떻게 돼서 공장에 나왔습니까?》

나는 이런 말로 그에게 인사를 대신했다.

《집에서 하루 쉬자고 생각했다가도 저도 모르는 새 공장으로 발길이 끌리군하지요.》

유귀진지배인은 눈가에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명절날이나 휴식일이 돼서 오늘처럼 공장이 조용할 때면 별스레 쓸쓸한 생각이 들지요. 료양소며 휴양소에 한번 가볼 생각을 할새도 없이 공장에 묻어살다싶이 해온것이 이제는 습관으로 굳어진것 같습니다.》

나는 그를 다시한번 쳐다보며 이 녀성일군에게 공장은 곧 그의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나는 취재수첩을 펼치고 지배인을 만나면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던 용건중의 하나인 아들에 대해 먼저 물었다.

유귀진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어느해 초여름 내가 평양에 회의갔을 때 있던 일입니다.》 라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5일 하기로 예정되었던 회의가 하루 앞당겨 끝나게 되었지요. 하루라는 여유시간이 생기자 평양시 교외에서 군사복무를 하고있는 아들을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불같이 치밀더군요. 그래서 식료품을 한구럭 싸들고 무작정 아들을 찾아떠났지요.》

배스를 타고 종점에 가서 내리니 사위가 먹물을 푼듯 캄캄하더군요. 개구리울음소리로 가득찬 그 낮선 들길을 나는 천방지축 걸어갔지요.

무섭고 쉼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나 아들을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무서움을 이기며 그 누구에게 뒤쫓기듯 거의 뛰다싶이 그 밤길을 가고 또 갔지요. 멀리 앞에서 타오르고있는 모닥불이 어찌나 반갑던지. 불가에서 달구지를 손질하고있던 머리희스한 로인은 내 말을 듣자 이제부터 무인지경길에 고개를 내개나 넘어야겠는데 젊은색시(그때 내 나이는 39살이었지요.)가 어떻게 혼자 가겠는가하고 하더군요.

나는 자기 집에 가서 자고 아침에 가라는 로인의 권고를 뿌리치고 길을 다시 떠났지요.

무조건 밤중으로 아들을 만나보고 새벽에는 다시 되돌아서야 했으니깐요. 나무잎이 설레고 돌맹이가 하나 굴러내려도 와들와들 놀라면서 나는 그 무시무시한 고개길을 하나둘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새벽 1시경 네번째 고개말의 한 집을 찾아가니 다행스럽게도 바로 그 집이 아들이 숙한 중대장의

집이 아니겠습니까? 중대장도,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들도 나를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내가 어떻게 그 밤길을 혼자 걸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성은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가슴이 후터워지는것을 느끼며 이렇게 말을 받았다.

나는 그와 가정적인 이야기를 몇마디 나눈후 인차 내가 의도하는대로 화제를 돌렸다.

《듣자니 지배인동문 공장의 한 처녀가 특류영예 군인과 결혼식을 할 때 저금했던 돈으로 이불과 요를 해주었다지요. 그런 뒤에도 때없이 그의 집을 찾아가 생활에 애로가 있을세라 도와주기까지 한다지요?》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유귀진지배인은 저로서도 새삼스러운듯 얼굴을 붉히기까지 했다.

《도순희라고 그 처녀의 소행이 기록해 공장적으로 결혼식을 축하해주었구 웃으로부터 가구류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물건들을 일식으로 갖추어주었지요. 하지만 나도 무엇인가 성의를 표하고싶더군요. 그래서...》

유귀진지배인이 어깨를 낮출수록 나는 그가 더 돋보였다.

《몇년전에 대흥광산으로 집단이출한 열아홉 처녀들과 함주군 동원리로 자원해간 열명 처녀들 역시 오늘도 공장과 끊을수 없는 인연을 맺고있다고요?》

내가 이렇게 묻자 유귀진지배인은 《그렇습니다.》 하고 말하며 그들과의 련계를 자초지종 들려주는것이였다.

대흥에 간 열아홉명의 처녀들이 그곳 당조직의 방조하에 피복공장을 짓게 되자 유귀진은 마치 성천강피복공장의 분공장이기라도 한듯 그곳을 여러번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일을 적극 도와주었다.

그는 대흥에 간 처녀들이 제구실을 할수 있게 세명의 처녀들을 공장기능공학교에 데려다 기술을 배워가게 했으며 공장건물이 완성되였을 때는 그 자신이 재봉기와 특수설비를 가지고 대흥으로 찾아갔다.

또한 기능이 높은 수리공들을 보내여 설비를 제대로 설치하게 해주었으며 재봉공들이 실습을 하고 생산에 인차 들어갈수 있게 가위밥과 원자재들을 보장해주기까지 했다.

뿐만아니라 대흥과 동원리에 간 처녀들이 그곳 총각들과 결혼식을 할 때마다 공장적인 경사로 생각하면서 첫날옷과 이불을 비롯한 물건을 성의껏 마련해가지고 찾아가 그들을 축하해주도록 하였다.

더우기 나를 감동시킨것은 계획을 넘쳐난 공장종업원들에게 상품을 내줄 때마다 종업원명단에서 이미 사라져버린지 오랜 그들을 잊지 않고 그들에게도 상품이 차례지게 한다는것이였다.

《그러니까 지배인동문 오늘도 그들을 한공장기술처럼 생각하고있구만요. 그들을 설혹 잊는다 해도 누가 탓하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는 공장을 이미 떠난지 오래나 오늘도 의연히 일군들과 공장사람들의 곁에 있는 그 모든 동무들의 마음을 대변해 진심으로부터 인사를 하고싶었다.

한데 유귀진지배인은 오히려 제편에서 바빠하며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우린 별로 잘한 일이 없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기쁨을 드린 그들이야말로 우리 공장의 자랑이고 나라의 자랑이지요. 새 전투초소에서 충성의 꽃을 계속 피우도록 그들을 도와주고 위해주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높이신 뜻을 받들어가는 전사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훌륭한 자식의 뒤에는 훌륭한 부모가 있듯이 우리 시대를 빛내이는 아름다운 꽃송이들뒤에는 그 꽃들이 더욱 활짝 피어나도록 뒤에서 묵묵히 밑거름이 되어주는 이런 좋은 일군들이 있는것이구나 하고 가슴뜨겁게 생각하였다.

나는 마감으로 지배인동무에게 당의 무역제일주의방침을 높이 받들고 성천강피복공장이 올해에 들어와서도 매 월, 매 분기 수출품생산계획을 넘쳐수행하고있는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 간단히 말해줄것을 부탁했다.

《뭐라고 말해야 할는지...》

유귀진은 잠시 생각을 더듬더니 답답한 어조로 말을 계속했다.

《한마디로 말해 생산하는 매 제품의 질을 최대한으로 높이고 기일을 철저히 지키는것이지요.》

우리 공장에서는 여러차례의 기술협의회끝에 새 제품의 건본이 완성되면 아래단과 하폭선, 주머니 공정 등 매 공정에 따르는 기술적요구를 기대공들에게 알려준 후에야 생산에 들어가는것을 철칙으로 삼다싶이 했지요. 사무실성원들이 새 작업반, 매 교대를 책임지고 나가 도와주게 하는 한편 질이 좋은 작업반은 경험을 말하게 하고 질을 보장못하는 작업반은 비판을 하게 하면서 강한 요구성을 들이댔더니 자연히 질도 올라가고 속도도 보장되더군요. 얼마전에 이런 일도 있었지요.》

유귀진지배인은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말을 이었다.

《외국에서 온 검사원부부가 우리 공장에 왔을 때 잊은 일입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가 만든 제품에서 흠을 찾을수 없게 되자 그들은 대단히 좋아하더군요.》

한데 옥에 티라고 한다면 그것은 옷에 상표를 붙이지 못한것이였지요. 그것도 우리 실수가 아니라 그들이 상표를 미처 가져오지 못한탓으로 말입니다. 검사원부부는 얼굴에 섭섭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 날밤으로 떠나는 렬차편에 그 제품을 실어보내지 못하면 한달을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나는 그들부부에게 마전 바다가에 가 해수욕을 하고 오라고 보낸후 비상전투를 조직했지요.

오후에 해수욕을 하고 돌아온 그들에게 상표를 다 붙여놓았으니 보라고 했더니 처음엔 도무지 믿지를 않았습니다.

하긴 한두벌도 아닌 수천벌의 옷을 그것도 안감천을 뜯고서야 붙일수 있는 상표를 단 몇시간동안에 다 붙여놓았으니 그럴만도 했지요.

검사원부부는 정말 놀랍다고, 정말 영웅들이라고 연방 감탄을 하더군요. 난 그러는 그들에게 조선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한다고 말해주었지요.》

《정말 자랑할만한 일이구만요.》

나는 그를 마주보며 즐겁게 웃었다.

나라의 존엄과 명예는 총탄이 비발치는 결전의 고지와 만사람의 눈길이 쏠리는 세계적인 체육경기장에서만이 아니라 여기 녀인들이 돌리는 재봉기앞에서도 지켜지고 빛나고있는것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가슴이 후터워지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내가 취재를 마치기 앞서 유귀진지배인에게 할말이 없는가고 묻자 그는 조용하나 진정이 넘치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내가 한생에 슬픈 일을 많이 겪었다 해도 그것을 어찌 어버이수령님을 뜻밖에 잃은 그 슬픔에 비기겠습니까. 수령님의 사랑과 배려에 의해 세워진 우리 공장을 잘 꾸려 언젠가는 꼭 한번 수령님을 모시려고 버리고 벌러왔는데 정말 생각할수록...》

갈린듯이 울려나던 유귀진지배인의 목소리는 그만 눈물에 젖어들고말았다.

그러나 그는 인차 자신을 다잡고서 이런 말로 이야기를 끝마쳤다.

《해방전 천덕꾸러기로 태어난 저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로력영웅, **김일성**훈장 수훈자로 키워주고 내세워주신 하늘같은 그 사랑, 그 은덕에 미처 보답하지 못했는데 수령님께서 벌써 우리결을 떠나셨으니 정말 가슴이 터지는것 같습니다.

저는 이 죄스러움, 이 안타까움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우리의 영명하신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숨이 지는 순간까지 더 잘 받들어모시겠습니다.》

나는 취재수첩에 눈길을 박은채 한동안 덤덤히 앉아있기만 했다.

두 제도에서 살아보았기에 목숨보다 귀중한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누구보다 아글타글 애써온 일군, 어버이수령님의 생전에 더 큰 기쁨을 드리지 못한 일로 가슴을 치며 심장의 고통이 다하는 순간까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더 잘 받들어모시겠다는 그의 충정은 얼마나 뜨거운것인가.

나는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 한생을 값있게 살고있는 미더운 한 녀성일군을 알게 된것과 함께 이 공장 한 문학통신원이 쓴 미완성시를 완성시킬수 있게 도와줄 좋은 시구가 떠올라 기쁜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나는 눈물속에 다진 그의 맹세가 곧 이 공장 전체 종업원들의 마음을 대변하는것이라는것과 어제 날에도 그러했듯이 뜻깊은 이해에도 이 공장 사람들이 놀라운 성과를 거두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기쁨을 드리리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으며 유귀진지배인과 헤어졌다.

교훈시

근면은 청춘의 벗
안일과 라태는 청춘의 원수
벗도 원수도 마음속에 함께 살아
때로는 원수가 벗으로 가장하고

격언시

청춘의 흑발은
땀에 젖었을 때 제일 빛나고
로년의 백발은
추억에 빛날 때 가장 근엄하더라

벗과 원수 외 1편

김송남

달콤한 말로 유혹할 때 많거니
순간도 속지 말라
빠지기는 쉬워도 솟아나기 힘든곳이
안일과 라태가 파놓은 함정이다

흑발과 백발

세월의 눈비에 절로 바랜 빛이라면
후세에 누가 그앞에 절을 하라
검은 그 머리 빛낼줄 아는 청춘에게만
백발에 영광이 온다

오늘의 《평양팔경》

리영환

아득한 저 멀리 고조선때부터 평양은 수도로서 5천년의 역사를 자랑떨칠뿐만 아니라 경치 또한 이데 없어 《평양팔경》을 일컬으며 그 아름다움을 대대로 전해내려오고있다.

하지만 오늘날 《평양팔경》에 대하여 다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못하다. 그렇다고 유감스러워하거나 탓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구태여 옛 풍경을 찾지 않아도 그 못지 않은 절경이 어디에나 있으니 말이다.

며칠전에 읽은 일이다.

그날 나는 소꿉친구들과 함께 광복거리 축전동에 살고있는 인민학교시절 담임선생님을 찾아갔다. 옛스승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모처럼 기회를 마련한것이다. 선생님은 우리들이 인민학교를 졸업할 때 현역미술가로 소환되었는데 지금은 공훈예술가이다. 그의 집은 25층이었다.

선생님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모두들 이렇게 와주니 정말 기쁘구만.》

인사말들이 오고가자 통일거리에서 살고있는 연공인 친구가 모여앉으면 의례히 부탁하기마련인 관례대로 화첩을 요구하였다.

《선생님, 요즘에 그린 그림들을 좀 보여주십시오.》

선생님은 마치 그리길 바랐던듯이 만족한 표정으로 옷방에 올라가더니 신문크기만한 화첩을 들고 내려오는것이였다.

안상택거리에 살고있는 선반공인 친구가 스스로 없이 물었다.

《이번엔 어떤 그림들을 그렸습니까?》

선생님은 우리를 둘러보며 의미심장하게 대답했다.

《새로운 〈평양팔경〉 일세. 좀 잘들 봐주게나.》

(새로운 《평양팔경》??...)

일종의 직업적인 호기심에 사로잡힌 나는 서둘러 화첩을 펼쳤다.

첫장은 광복거리풍경이였다. 원통형고층살림집과 청년호텔을 전경으로 하고 초고층살림집들을 원경으로 사선구도를 잡은 조선화였다. 그림은 탑식형, 전원형, 계단형, 툽날형, 기발형 등 제나름으로 천태만상인데다가 채색도 봄빛, 가을빛, 여름빛, 겨울빛... 갖가지 아름다운 색깔로 조화를 이루어 마치 거리가 인간의 창조물이라기보다 하나의 자연풍경처럼 장관을 이루었다. 맵시있는 건물들이 저저

마다 키돋음하며 팔방미인처럼 솟아올라 층층으로, 사이사이로 조형을 맞추고 푸른 록지와 나무들이 운치를 돋구어서 거리는 그야말로 만물상절경을 방불케 하였다.

그림에 매혹되어 황홀감을 금치 못하면서 나는 옛스승에 대하여 돌이켜보았다.

인민학교시절 선생님은 우리를 데리고 모란봉에 오르기를 즐겨하였다. 올밀대나 최승대에 올라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 부벽루나 련광정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자라온 지난날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나는 왜 올밀대에 자주 오는가? 어찌하여 올밀대를 그림에 담고싶어하는가?》

예로부터 올밀대는 봄경치를 구경하기 즐기기에 안성맞춤하다고 〈올밀상춘〉으로 옛 팔경의 하나로 불려왔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자주 오는가?》

그때의 이야기가 아직도 귀가에 쟁쟁히 들려오는 듯싶다.

...아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올밀대에서 태어났기때문이다.

집없이 불쌍한 나의 어머니는 몸물곳이 없어 바로 이 올밀대에서 나를 낳았다.

번개치고 우뢰울고 찬비 뿌리는 가을밤...

나의 어머니는 그나마 비라도 그을수 있다는 안도감에 잠겨 사내아이의 고고성을 행복속에 들으며 태줄을 물어꿨었다.

...나는 집이 없이 자랐다. 하루밤은 부벽루의 처마밑에서, 또 하루밤은 올밀대의 지붕밑에서, 련광정이며 보통문이며 처마가 달린곳이라면 그 어디건 찾아가 눈비를 그으며 긴긴 밤을 보내군했다.

철부지소년은 먹을것을 얻으러 간 어머니를 기다리며 꼬챙이로 땅바닥에 옛정자의 모습을 그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기가 일쑤였다.

어느해 봄날, 그날도 소년은 혼자서 올밀대를 그리고있었다. 그런데 비단옷을 입은 한패당의 부자놈들이 진수성찬을 차려가지고 올라와 풍악을 울리며 술판을 벌렸다. 똥쟁이들은 멀리서 군침을 흘리며 바라보는 비렁뱅이녀석때문에 음식맛이 없어진 다면서 그를 산비탈에서 굴러버렸다. 밤늦게야 달려온 어머니는 정신없고 쓰러진 아들의 상처를 쓸어만지면서 구슬피 울었다.

어머니는 기구한 운명을 한탄하며 《영명사》에 찾아가 잘살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지만 그것이 과연 팔자탓이란 말이었던가?...

집없는 설움, 가난한 설움... 모란봉이 제아무리 경치가 좋고 올밀대가 명승으로 소문났어도 인민이 주인되지 못한 그 세월, 나라없던 그 세월에는 아름다운 풍경대신 슬픔과 불행의 풍경만 더해해주었다.

해방이 되어 비로소 모란봉은 인민의 유원지로 기쁨의 동산으로 변하였다...

나의 선생님은 이렇듯 옛 풍경과의 연고가 깊은 것으로 하여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또한 나날이 달라지는 평양의 경치를 조금이나마 사랑하고 싶어 붓을 들기도 하였다.

그 시절 선생님의 화첩에는 주로 《평양팔경》을 비롯한 정각(또는 《루》나 《대》)같은것이 태반을 차지하고있었다. 언젠가는 눈내리는 대동문의 풍경을 그려 전국미술축전에서 1등을 한적도 있다. 아마도 그것이 이름난 풍경화가로 두각을 나타내게 했는지도 모른다. 그는 직업적인 화가가 된 다음에도 줄곧 풍경화만 그렸다. 나는 그림을 보면서 생각하였다. 일생을 목가적이며 정서적인 자연풍경만 그리던 선생님이 오늘은 어이하여 도시풍경을 그리게 되었을까? 화첩의 모든 그림이 다 거리풍경이었다. 창광거리, 통일거리, 문수거리...

화첩을 다 보고난 친구들이 이구동성으로 선생님을 찬탄했다.

덤벙복청으로 소문난 문수거리에서 살고있는 친구지도원을 하는 친구가 흥분하여 떠들어댔다.

《그전에 선생님이 그린 산수화들은 대체로 녀성적이었는데 오늘날의 도시풍경은 남성적입니다. 통이 크고 거창하고 한마디로 시대상이 살아납니다. 그림을 정말 멋지게 그렸습니다.》

나 역시 감탄은 하면서도 머리속에 맴도는 의문을 풀길없어 선생님에게 물었다. 《선생님, 새로운 〈평양팔경〉이란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하는것이였다.

《나는 우리 평양에 일떠선 락원거리, 창광거리, 문수거리, 천리마거리, 안상택거리, 광복거리, 청춘거리, 통일거리를 오늘의 〈평양팔경〉이라고 부르고싶네.》

방안에는 일순 정적이 깃들었다. 친구들은 약속이나 한듯 한껏 긴장한 눈길로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이어 선생님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오늘 평양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대동강의 풍치를 보아도 그래, 만경대나 대성산유회장을 돌아봐도 그래, 곳곳마다 기념비적건물이 솟아있고 나무가 우거지고 분수가 뿜으니 그야말로 공원속의 도시, 락원속의 도시일세.

한쪽의 그림과도 같은 평양-평양의 이 경치는 아마도 80경, 800경도 남을걸세.

이 많은 풍경중에서 내가 왜 구태여 이 거리들을 오늘의 〈평양팔경〉이라고 이름하자고 하는가?》

선생님은 잠시 말을 그쳤다. 그의 얼굴에는 승연하고 신성한 빛이 어렸다. 걱정애 넘친 음성이 다시금 울리었다.

《1975년 3월 어느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중앙과 지방의 책임 일군협의회를 소집하시고 락원거리를 당에서 맡아 건설할 결심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친히 발기하시고 지도하신 락원거리살림집들이 짧은 기간에 훌륭하게 일떠선데 이어 평양에는 또 얼마나 많은 거리들이 일떠섰다. 웬간한 거리는 내놓고도 광복거리와 같이 웅근 한개도시와 맞먹는 새 거리들이 일떠서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친애하는 그이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이 거리들을 오늘의 〈평양팔경〉이라고 웨치고싶었던것일세.》

나는 가슴이 쿵 울리는것을 느꼈다.

감회도 새로운 1975년 3월의 그날.

바로 그날로부터 락원거리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그뒤를 이어 창광거리, 문수거리, 안상택거리, 천리마거리, 광복거리, 청춘거리, 통일거리 건설이 련이어 계속되였다.

정녕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인민의 수도건설을 발기하시고 정력적으로 지도하여주시였기에 세계 1등급의 굴지의 거리들이 빠른 속도로 일떠설수 있었다.

그렇다. 오늘날의 평양풍경은 그때로부터 몰라보게 달라졌다. 웅장화려한 새 거리의 탄생-이것은 정녕 주체시대가 창조한 오늘의 《평양팔경》이 아닐가!

《덤구만. 우리 좀 나갈가.》

선생님이 말씀하였다.

우리들은 베란다로 나갔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달아오른 얼굴을 식혀준다.

머리우에서는 눈부신 태양이 웃음짓고 거리를 굽어본다.

끝간데 없이 곧게 뻗은 드넓은 대동로로는 승용차며 버스며 궤도전차들이 기세좋게 질주하고 줄지어 늘어선 은행나무들은 싱그러운 바람결에 푸른 잎사귀를 흔들어댄다. 인디아로는 화려한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꽃물결처럼 흘러간다. 황소가 뿔로 뿔을 굴리는 조각상이 있는 교예극장앞에서는 청춘남녀들이 사진을 찍으며 법석인다.

앞가슴에 꽃을 단 새 신랑신부는 궤도전차에도 앉아간다. 익살군총각들이 시샘스럽게 손을 흔들며 환성을 질러댄다. 그것을 보고 길가던 처녀들이 짜그르르 웃어댄다. 행복의 웃음소리가 고무풍선처럼 떠오르고 교예극장 지붕우에 앉아있던 비둘기떼가 웃음소리에 놀라 꽃보라처럼 날린다. 참으로 즐거운 풍경이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선생님은 말씀하였다.

《그래, 이것이 풍경이 아니란 말인가? 풍경중에서도 최상의 풍경이지.》

이제와서 비로소 선생님이 왜 새로 일떠선 거리들을 《평양팔경》에 비겼는지 그 뜻이 리해되었다.

돌이켜보건대 해방전 평양풍경은 얼마나 구슬프고 한산했던가?

보통문에서 떠나는 길손을 바래워주는 풍경이 장관이라고 《보통송객》이라 불려왔건만 보통강에는 사시절 구점스러운 오물이 흘렀고 징검다리가 놓여있는 토성랑주변에는 원시인들의 누게막같은 움막집들이 게딱지처럼 널려있었다. 쏘아지는 폭우가 그대로 사와처럼 스며들던 《집》, 어린애들이 개구리를 장난감삼아 같이 살던 빈민촌, 그나마 장마가 지면 온 동네가 물에 잠겨 아우성치던 눈물의 강, 홍수에 떠내려가는 부모처자를 부르며 목매여 톱목하던 원한의 풍경...

하지만 우리는 전쟁의 재더미우에서 우리 기술, 우리 힘으로 이처럼 평양을 훌륭히 일떠세웠다.

선생님은 말씀하였다.

《생각하면 이 높은곳에서 네칸짜리 집을 쓰고산다는것이 정말 꿈만 같네.

지난날 나의 어머니는 올밀대의 처마밑에 새초를 깔아놓고 비를 그으며 짐승처럼 나를 낳았네. 그러한 가난뱅이의 자손들인 나나 자네들이 이런집에서 사는것이 과연 어느분의 덕인가! 그런데도 내가 옛 팔경만을 그려야 하겠나?》

아아, 가슴이 편다. 뜨거운것이 세차게 온몸으로 굽이쳐나간다. 하늘도 어제의 하늘이건만 오늘은 왜 이리도 높아만 보이고 땅도 어제의 그 땅이건만 오늘은 왜 이토록 넓고 아름답게만 보일까!

마음은 저절로 부풀어오른다.

좋다! 여기서는 전망이 좋아 멀리 락원거리며 창팡거리, 천리마거리도 손에 잡힐듯 바라보이며 돌아서면 통일거리와 더 멀리로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의 웅자까지 바라보인다.

마치 떠가는 구름우에 앉아 대지를 굽어보는듯 황홀하기만 하다. 금강산의 만물상에 오른들 이런 장관을 구경할수 있단 말인가!

그 옛날 선조들은 산수좋은곳에 기껏해서 정각이나 지어놓고 읍영영월로 절승경개를 읊조리는것이 고작이었다. 그나마도 갓쓰고 하늘소 타고다니는 량반들에게나 차례지는 향락의 쪼각이었을뿐 배장뱅이 백성들은 량반이 탄 가마를 둘러메고 아츠러운 청류벽의 츤령바위를 뚫아야 했다.

잘사는놈들이 관을 치던 세월에는 이름난 경치도 인민들에게는 눈물과 슬픔만을 더해주는 원망의 풍경, 저주의 대명사로 되었다.

하지만 어제날 자연의 풍경, 슬픔의 풍경이 오늘은 창조의 풍경, 행복의 풍경으로 바뀌었다.

눈을 감으면 하늘의 선녀가 무지개를 타고내려와 백화원의 분수에서 미역을 감을것만 같다.

할진대 부벽루의 달구경이라는 《부벽완월》이나 련못에서 비소리를 듣는다는 《련당청우》라는 옛팔경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거리풍경에 비길법이 나한가?

그러니 옛풍경에 비할바없이 더 아름다운 절경의 거리에서 사는데 무슨 풍경을 더 찾으랴.

이 천하절승의 거리에서 나와 너, 우리, 모든 인민이 산다.

이 행복의 거리에 우리 인민을 살게 하려는것이 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리상이다.

나는 하늘에 대고 웨치고싶었다.

사람들이여! 자기가 사는 집, 자기가 사는 거리를 둘러보시라. 그리고 행복을 느끼시라. 웅장하고 화려한것도 좋다. 하지만 그보다 인민을 행복의 절정에 세워준 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은덕을 잊지 마시라!

세상에는 높고 큰 거리가 없지 않지만 지금 이 시각도 아파트밑에 쭈그리고앉아 잠자리 걱정을 하며 빵쪼각을 구걸하는 슬프고도 처량한 풍경이 없어지지 않고있다. 이것도 잊지 마시라.

참으로 인민의 도시, 행복의 거리-평양의 풍경은 문자그대로 천애하는 그이께서 마련하여주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사회의 참풍경이다.

이 풍경은 그 누구도 어지럽힐수도 깨뜨릴수도 없으며 우리는 이 풍경을 더 아름답게 빛내이며 묵숨으로 지켜야 한다.

나의 생각은 점점 깊어간다.

래일에는 또 어떤 《팔경》이 탄생할것인가?

그때에 평양은 얼마나 몰라보게 달라질것인가?

폐허에도 락원의 탑을 쌓으시는 예지의 빛, 돌우에도 행복의 꽃을 피우는 인덕의 화신이 계시는한 평양은 나날이 더 아름다와질것이다.

아, 나의 평양이여!

나는 뜨거움에 잠겨 옛스승에게 간절한 부탁을 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이 그린 〈평양팔경〉을 훌륭한 작품으로 완성해주시 바랍니다.》

미제의 야수적만행과 희극적정체를 신랄하게 폭로 규탄한 위력한 풍자적형상

- 풍자시 《벌거벗은 아메리카》(백인준)에 대하여 -

장형준

제국주의자들은 입으로는 《자유》와 《인권》, 《평화》와 《친선》을 곧잘 외우지만 실지 행동으로는 침략과 약탈, 살인과 강간 등 온갖 야수적 만행과 범죄를 서슴없이 감행한다. 말과 행동, 겉과 속이 다른 제국주의자들의 야수적본성을 발가내고 놈들의 위선과 기만을 폭로규탄하며 그들을 반대하여 싸우지 않고서는 인류가 자주화된 새 세계를 건설할수 없으며 진정한 자유와 인권, 평화와 친선을 누릴수 없다.

풍자시 《벌거벗은 아메리카》는 미제침략자들의 야수적만행과 추악한 정체를 만천하에 고발하고 풍자적웃음으로 그에게 죽음을 선언한 사형 선고장이다.

풍자는 낯은것과 적대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비판이며 용서할수 없는 대상을 풍자의 불길로 불살라 버리는 섬멸적인 조소이다.

웃음이 없는 풍자는 있을수 없지만 그 웃음은 어디까지나 신랄하고 진실해야 한다.

풍자시 《벌거벗은 아메리카》는 희극적계기부터가 진실하고 예리하다. 시인은 그 어떤 기발한 문학적 허구나 환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제 있는 사실에서 희극적계기를 잡아쥐었다.

1960년, 바로 그해 설날에 남조선에서 미국놈들은 조선녀성을 붙잡아다 희롱하고는 벌거벗겨 몸에 뽕끼까지 칠해 거리로 내쫓는 악귀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다. 천추에 용서 못할 사실을 알게 된 우리 인민은 누구나 치를 떨고 이를 갈았으며 온 나라가 반미감정으로 끓어번졌다.

그러니 아름다운것을 찬미하고 추한것을 타매하는 시인이 어찌 놈들의 이 만행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수 있었겠는가!

시인은 미제의 야수적만행에 격분을 참을길 없어 북에 증오의 탄알을 채워 놈들을 정면으로 단죄규탄하는 정론시를 썼다. 그러나 써놓고보니 마음에 들지 않았던것이다. 그것은 그 치사하고 역겨운 미국놈들과 1대 1로 맞서서 그들의 비행을 론하는 그 자체가 놈들을 《인정》하고 들어가는것 같아서였다.

그래서 시인은 높은 위치에 서서 풍자적웃음으로 적들을 신랄하게 조소하고 야유하는 풍자시를 쓸것을 생각하고 다시 썼다. 그것이 바로 《벌거벗은 아메리카》이다.

쭉 벌거벗었구나 아메리카는
인류의 면전에서 그의 문명앞에서
홀딱 벗고나섰다 《자유》아메리카는
그 구린내나는 알몸뚱이를

완력 사나운 강도들이 달려들어
연약한 한 녀인을 벌거벗겼으니
어찌하랴 수난을 당할수밖에
뽕끼를 온몸에 묻히우고 녀인은
맨몸으로 거리에 내쫓기웠다

그러나 오늘 과연
누가 벌거벗었나 인류의 량심앞에서?
남조선의 한 녀인인가, 아니면
《거룩》한 아메리카의 《신사》들인가?

온 세계 사람들이 대답하누나
그것은 아메리카! 바로 아메리카자신!
그의 문화 그의 도덕은
20세기 60년대도 바로 정월 초하루날에
쭉 벗고나섰다, 인류의 면전에서

보느바와 같이 미국놈들은 남조선에서 한 녀인을 벌거벗겨 거리에 내쫓았지만 인류의 면전에서 벌거벗고 나선것은 남조선의 한 녀인이 아니라 《거룩》한 아메리카 《신사들》, 바로 아메리카자신이였다.

이것은 사실로부터 도출된 논리의 당연한 귀결이였고 인류량심의 웅당한 판결이였다.

《그 누구도 억지로 그들을 벗기지 않았건만》 그들은 《썩은 제국주의몸통아리틀》, 《스스로 홀딱 드러내놓》았다. 《문명》과 《인권》을 자랑하며 《신사》로 자처하던 《자유》아메리카는 인류앞에 그것도 20세기 60년대 정월 초하루날에 쭉 벌거벗고 나섰으니 이 얼마나 망측하고 희극적인것인가! 이처럼 시는 신랄하고 예리한 풍자의 채찍으로 미제국주의 면상을 통쾌하게 후려갈겼다. 그때로 말하면 공화국북반부에서 혁명적대고조가 일어나고 천리마운동이 료원의 불길처럼 타올라 모든 근로자들이 착하고 아름다운것을 지향하고 온 사회에는 긍정적이것이 지배하고있던 때였다. 반면에 남조선

에서는 우리 동포들이 미제의 폭압과 학살로 하여 자유와 생존의 초보적권리마저 빼앗기고 말할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겪고있었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침략자들은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며 새 전쟁도발책동을 강화하면서 《힘의 정책》으로 온 세계를 제패할 야망밑에 사회주의나라들과 신생독립국가들,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을 반대하며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더욱더 횡포하게 발악하고있었다.

그런데 국제무대에 새로 대두한 현대수정주의자들은 미제에 대한 혁명적립장을 건지할 대신에 미제와의 《평화적공존》을 부르짖으며 우리에게 반제반미투쟁로선을 포기할것을 강요하고 제국주의자들과의 타협을 설교하기까지 하였다.

사태는 매우 엄중하고 엄혹하였다.

그러나 그때에는 그 누구도 아직 현대수정주의자들의 반동적 본질과 해독성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 민족의 태양이시며 탁월한 령도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미제의 세계제패야망과 현대수정주의자들의 투항주의적본질을 예리하게 간파하시고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을 반제반미투쟁으로 힘있게 고무하시였다.

당시 정세는 우리 작가들에게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본성과 야수적만행을 폭로규탄하는 혁명적작품들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창작할것을 요구하였다.

시인은 이러한 시대의 요구를 심장으로 절감하고 시대가 바라고 인민이 요구하는 혁명적작품을 창작할 창작적열정에 불타고있었다. 그러기에 그는 것처럼 벌거벗은 희극적존재로 신랄하게 야유하고 조소한 사상에술성이 높은 풍자시를 훌륭히 써낼수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풍자문학은 원수의 심장을 꿰뚫는 화살이 되어야 하며 그들의 아성을 들부시는 폭탄이 되어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풍자문학은 원수의 심장을 꿰뚫는 화살이 되어야 하며 그들의 아성을 들부시는 위력한 폭탄으로 되어야 한다.

이 시의 심오한 사상에술성은 무엇보다도 그 일반화의 높이와 풍자의 예리성에 있다.

남조선에서 한 녀인을 벌거벗겨 거리에 내쫓은것은 물론 몇몇 미국놈들이였다. 그러나 시인은 그들의 만행을 결코 개별적이며 우연한 현상으로 보지 않았다.

사실 그때 미국놈들의 야수적만행이 매일 매 시 각 빛어지고있었다.

따라서 그것은 국부적이거나 우발적인 현상이 아

니라 보편적이고 상시적인 현상이였다. 날로 심해지는 놈들의 만행은 남조선을 강점하고 그러한 만행을 감행하도록 부추기는 미제의 침략정책, 아메리카자체의 체질적본성에서 나오는 필연적인 현상이였다. 그러므로 시인은 정월 초하루날에 감행된 그 만행을 폭로규탄함에 있어서 개별적인 미국놈들을 증오하고 타매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그놈들을 그렇게 하도록 부추기는 미제의 침략정책, 아메리카자체를 문제시하여 그를 벌거벗은 희극적존재로 일반화하였다.

하나의 현상에서 본질을 꿰뚫어보고 아메리카전체를 풍자의 과녁으로 삼은 여기에 이 풍자시의 일반화의 높이가 있다.

이 시에서는 또한 과장의 수법을 능란하게 활용하여 아메리카를 벌거벗은자들이 사는 《라체의 왕국》으로 회화하였다.

시인의 상상력이 아니라도
눈에 선히 보인다 아메리카 《신사》들이
쭈 벌거벗고 워싱턴 네거리로
《문화》를 떠들며 분주히 오고감이
라체에 중절모는 어울리지 않건만
그래도 승용차에 폭신히 앉아
쭈 벌거벗은 미국의 은행가들

나는 상상하노라 《라체의 왕국》을
모든 위선과 가면마저 벗어 동맹이친 나라
쭈 벗고앉은 대통령이며
쭈 벗고 결재받는 국무장관이며...
그들의 밑에서 징그러운지
나무로 만든 의자도 마루바닥도 삐걱거린다

《라체의 왕국》, 이것은 미제의 희극적본성을 발가내는 가장 날카로운 풍자적표현이다.

《라체의 왕국》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 《문화》를 떠드는 아메리카 《신사》들과 승용차에 폭신히 앉아있는 미국의 은행가들, 대통령과 국무장관도 다 쭈 벌거벗었다.

벌거벗은 그들의 몰골을 생각만해도 저절로 폭소가 터진다.

이처럼 아메리카는 쭈 벌거벗고 《그 구리고 구린 썩은 제국주의 몸뚱아리를》, 《홀딱 드러내놓았》는데 그 몸뚱아리에 《뽕끼가 아니라 띠가 묻었다》니 이것은 참으로 신랄하고 날카로운 조소이다.

《띠》는 《파리찌》라고 할 때의 그 《찌》인데 차마 시에 이런 단어를 쓸수 없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시구는 비록 《띠가 묻었다》고 점잖게 씌여있으나 이 시구에서 우리는 추하고 역겨운 대상에 대한 멸시와 혐오, 증오와 저주를 강렬하게 느끼게 된다.

그리고 벌거벗고 앉아있는 미국대통령과 국무장관, 《그들의 밑에서 정그러운지 나무로 만든 의자도 마루바닥도 삐걱거린다》는것은 놈들을 또 얼마나 신랄하게 야유하고있는것인가!

이처럼 시는 과장의 수법과 풍자적웃음으로 아메리카의 위선과 가면을 벗겨버리고 그 추악한 진면모를 인류앞에 적라라하게 발가놓았다.

인류의 원수이며 력사의 반동인 미제는 그가 생겨난 첫날부터 풍자의 대상이 되어왔지만 이 시에서처럼 그렇게 풍자의 채찍으로 호되게 얻어맞은적은 일찌기 없었다. 그만큼 이 시의 풍자는 위력하고 날카롭다.

이 시의 심오한 사상예술성은 예리한 풍자성과 함께 높은 정치성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시의 높은 정치성은 아메리카를 벌거벗은 희극적 존재로 폭로규탄한 그 풍자적웃음의 사회정치적 성격과 아울러 《유엔》의 만국대표들과 온 세계 《신사》들을 생각해보라고 권고하고있는데서 또한 잘 표현되고있다.

《유엔》의 만국대표들에게 권고하고싶노라
미국의 대표가 《유엔》의 연단에 올라
《사랑》에 대하여 《자유》와 《문명》에 대하여

《신성》한 연설을 내리하실 때
잠간만 한번 생각해보시라
그가 만일 당신들앞에
쭈 벌거벗고 서서 연설을 한다면?...

내 온 세상 사람들에게 권고하노니
양키들이 당신앞에 온다면
그놈이 제아무리 《신사》같이 입었어도
그놈은 벌거벗은놈이라고만 생각하시라
그렇다, 사실 그렇다!
바로 아메리카는
인류의 면전에서 벌거벗고 날친다

미국대표가 《유엔》의 연단에서 《사랑》과 《자유》, 《문명》에 대하여 떠벌여도 그를 벌거벗은 아메리카의 대표라고, 양키들이 제아무리 세상 사람들앞에 《신사》처럼 차리고나서도 그놈 역시 벌거벗은놈이라고 생각할 때 아메리카가 《인류의 면전에서 벌거벗고 날친다》는것은 참으로 적중한 표현이다. 이 시련들에는 국제무대에서 위선과 기만으로 세상사람들을 속이는 미제의 교활성과 희극적본성에 대한 신랄한 야유와 함께 놈들의 감언리설과 외교적가장에 속지 말것을 인류에게 권고하는 혁명적호소가 담겨있다.

시의 마감은 더욱 정치성이 강한 웨침으로 끝나고있다.

인류의 량심과 문화에 대한
이 흉칙한 도전자들에게
나는 이렇게 웨친다 고함친다
《애, 이 깨곤한 새끼들아!
우리는 너희들을
조선의 밖으로 내쫓을테다
인류의 속에서 내쫓을테다》

서정적주인공 《나》는 시인 한사람만이 아니라 미제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물러가게 하려는 전체 조선인민과 지구상에서 제국주의를 영영 매장해버리려는 인류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있다.

미제의 야수적만행과 침략적본성을 풍자적으로 폭로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그놈들을 《조선의 밖으로》, 《인류의 속에서 내쫓을》 조선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의 확고한 의지를 표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이 풍자시는 사람들을 반미투쟁으로 고무하는 호소성이 높은 작품으로 되었다.

풍자의 예리성과 강렬한 정론성은 이 시인의 풍자시들에 일관되어있는 중요한 사상미학적특징이다. 이것은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수인 미제에 대한 시인의 불타는 증오심과 멸적의 기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높은 문학정신의 발현인것이다.

시인은 조국해방전쟁시기에 풍자시 《얼굴을 붉히라 아메리카여!》(1951년)와 《월가의 판병식》(1952년)과 같은 성과작들을 창작하고 전후시기에는 계속 사상예술성이 높은 여러편의 풍자시들을 써서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괴뢰들을 반대하는 투쟁으로 인민들을 불러일으키는데 힘있게 이바지하였다.

그리하여 해방후 첫 개인풍자시집을 낼만큼 이 시인은 풍자시창작에서 단연 앞장섰다.

풍자시 《벌거벗은 아메리카》는 시인의 풍자시 계열에서는 물론 우리의 풍자시단에서도 가장 우수한 대표작으로 꼽히고있다.

이 풍자시는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예나 지금이나 커다란 생명력과 감화력을 가지고있다.

이 시의 견인력과 현실적의의는 미제침략자들이 계속 남조선에 도사리고있아 살인, 강간, 약탈, 폭행들을 마구 감행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더욱 높아지고있다. 최근 남조선에서는 서울지하철도 전동차안에서의 10여명 미군이 한 조선녀성에 대한 성희롱과 그에 항거하는 남조선청년에 대한 집단폭행에 이어 경기도 의정부시와 강원도 춘천시를 비롯한 곳곳에서 강간, 폭행 등의 미군범죄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해마다 2,000여건, 하루 평균 5건이상 미군범죄가 발생하고있으니 남조선인민들과 녀성들은 어느 하루도 마음편히 살수 없으며 매일 매 시각 모욕당하고 얻어맞고 쓰러지고있다.

이것이 바로 《해방자》, 《원조자》, 《보호

자》, 《벗》으로 자처하는 미국에 의하여 빚어지고있는 남조선의 실태이다. 남조선뿐아니라 미제의 피물은 발길이 미치고있는 모든곳에서 바로 그러한 야수적만행이 날로 성행하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이 남조선에서 물러가지 않는 한 사태는 달라지지 않을것이며 또 달라질수도 없다. 그리고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단결하여 놈들의 손발을 묶어놓거나 잘라버리지 않는 한 인류의 고통과 불행도 가시여질수 없다.

현실은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며 변할수도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에 대해서는 자그마한 한상도 가지지 말아야 하며 언제나 확고한 반제적립장을 가지고 《자선》과 《인권》, 《원조》와 《보호》를 부르짖는 놈들의 위선과 가면을 벗겨버리고 그들의 희곡적정체와 침략적본성을 예리하게 폭로규탄하여 그들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주어야 한다. 그러기에 풍자시 《벌거벗은 아메리카》는 오늘에 있어서도 의연히 인민들을 반제반미정신으로 교양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되고있는것이다.

오늘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이 그처럼 못된것을 꺼리낌없이 감행하고있는것은 그자들의 야수적본성에 기인하는것이지만 친미사대매국집단인 김영삼피뢰도당이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영구강점을 애걸하면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반대하고 미국과 체결한 불평등한 《행정협정》을 그대로 유지하며 놈들의 범죄를 적극 비호해주고있는것과 관련된다.

그렇기때문에 오늘 우리 작가들앞에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방해하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 침략세력과 그에 아부굴종하는 김영삼역도를 비롯한 안팎의 분렬주의반동세력의 정체를 만천하에 고발하고 그들에게 쓰디쓴 증오의 폭소와 섬멸적인 타격을 줄 다양한 형식의 풍자작품들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창작할 전투적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풍자시 《벌거벗은 아메리카》와 같이 날카롭고 신랄한 풍자작품들을 활발히 창작함으로써 시대의 요구에 대답하며 우리 풍자문학을 더한층 힘있게 발전시켜나가야 할것이다.

한차지라도 더

송재하

이제 얼마후

출강종은 울리련만

기다리는 순간은 천년인듯

우리의 심장은 고통친다

어서 쇠물을 뽑자

한차지라도 더

늘 뽑아온 쇠물이건만

이이하어 이 시각

가슴은 이리도 높뛰는것인가

아, 당장건 50돛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자고

당은 우리를 불렀거니

뜨거워지는 생각

고동치는 숨결을 안고

가슴은 로벅처럼 달아오른다

어서 쇠물을 뽑자

한차지라도 더

뜨거운 그 맹세를 안아

저 용광로의 쇠물은

더 세차게 타올라라

시뻘건 쇠물은

사뭇치며 끓어번져라

그렇다, 당중앙위원회 구호는

우리 당이 지펴준 불

고동치는 가슴과 가슴마다

소리치며 일어번지는

충성의 불

이 불길

용솟음치는 쇠물이 되어

거침없이 쏟아져나오리니

흘러내리는 쇠물너머 안겨오는

발파소리 높은 탄광지구여

만선기 날리는 원양선단이여

하늘땅 흔드는 타빈의 동음이여

쇠물빛노을을 안고 뻗어가는

내 조국의 기슭은

또 얼마나 아름다워지고

불밝은 락원의 창가마다엔

얼마나 크나큰 기쁨이 넘쳐

날것인가

오, 정녕 쇠물은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하여

우리 당이 펼쳐준 휘황한

설 계도를

이 땅우에 활짝 꽃피워가는

우리의 행복

우리의 충성

용해장에 흐르는 쇠물은

기계바다 펼쳐지고

만부하의 동음소리 높아지는

이 땅

부강한 내 나라의 오늘과

무궁할 내 조국의 래일을

강철기둥으로 떠받들어가리니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위대한 수령님의 제자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더

잘 모실

용해공의 불같은 맹세로

심장은 뜨겁게 고동치노라

어서 쇠물을 뽑자

한차지라도 더!

잔디

정성환

잔디! 푸근한 잔디.

가을이라 연하던 그 잎이 가시처럼 여물어 손바닥을 콧콧 찌른다.

내 태어나 마흔을 넘도록 이 잔디를 몇번이나 밟아보았는지 알수 없다.

어루쓸면 손바닥을 간지럽히는 잔디, 황이 든 잎이 바늘같아도 누르면 포근한 잔디.

해와 달이 뼈를 굶혀주어 장정으로 자랐건만 나는 잔디앞에선 순간의 아이로 되어 폭신한 그우에 큰대자로 누워버렸다. 그리고는 그 시절처럼 잔디에 얼굴을 묻고 한바퀴 굴고 엎어졌다가 다시 덩굴기를 몇번...

나를 보며 지나는 못사람들의 눈길에는 놀람도 비웃음도 없다. 아마 그들도 역시 나를 보며 어린날의 자신을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아, 어릴적에 나의 정다운 놀이터였던 그 잔디우에 누워 다정한 애무를 받노라니 마치 그 한잎한잎들이 내 어릴적 순간순간의 일들을 다 안고있는듯 싶어 끝없이 애뜻해져 자꾸만 자꾸만 잔디를 어루쓸었다.

잔디의 잎잎에서 멀리 흘러간 나날을 놓침이 없이 다 바라보고있다.

그래, 잔디는 지금 아버지의 깔깔하던 수염마냥 나의 손바닥과 두볼과 목덜미를 간지럽히면서 탈곡장에 내린 참새떼처럼 쉽도 없이 나의 귀에 지난날의 이야기를 다시 속삭여주고있다.

하늘에 활활 타오르는 봉화에, 푸르른 대동강이 맑은 손길로 씻어내리는 유보도 충계에, 수도의 높고낮은 지붕에 가리워진 그 생활은 나의 가슴이 빠근하도록 차오른다.

정말 시련을 이겨내던 우리 부모들의 생활처럼 폐허우에 푸르게 솟아들었었던 이 잔디밭은 마치 추억의 마당인듯싶다. 그래서 여기에 앉으면 그날의 목소리들이 들려오고 그날의 얼굴들이 다 떠오른다. 어렸던 그 시절 그때 나는 길닭기에 나선 어머니를 따라 강가에 나왔었다. 맑은 물가에 발을 잠그고 장난질로 어머니가 자갈소랭이를 머리에 이려고 할적에 동쪽에서 뜬어온 파란잔디 한줌을 주머니에서 꺼내여 거기에 담아주었다. 그러자 어머니는 다시 소랭이를 내려놓더니 자갈우에 흩어진 잔디를 골라 강물에 쥐어뿌렸다. 이때 나에게는 그 쓸데없는 장난감이 갑자기 얼마나 소중한것으로 생각되었던지 모른다. 물결을 타고 남실남실 곁을 떠나

는 그 잔디를 바라보니 없어서는 안될 보물이라도 잃은듯 서운했고 잔디를 쥐어뿌리던 어머니의 말없는 모습이 매보다도 몇배나 아프게 가슴을 허비였다.

《애야, 아까처럼 좀 푹 떨어져서 놀러무나. 곁에서 거뿔거리지 말구. 저 동쪽에서 돌돌 굴면서 놀아라. 봐라, 남들보다 엄마가 얼마나 떨어졌다.》

색날아 누릿한 타올수건을 쓰고 치마허리를 동인 어머니의 목소리에 이어 누구인지 알수 없는 허공 중에서 울려오는 목소리.

《와두구레. 어미냄새를 맡느라고 그러는걸...》

전후복구건설의 나날 이렇게 댕아놓은 자갈길로 어버이수령님께서서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수반과 함께 지나가시였다.

지금은 노란 중심선을 새기고 거침없이 뻗어간 아스팔트길이지만 이 길을 바라볼 때마다 차바퀴에 자갈이 밟히던 그날의 그 소리가 귀전에 그대로 울려온다.

나는 이 잊을수 없는 일들을 이 잔디우에서 동무들에게 들려주지 않았던가.

《내가 처음 수령님을 앞에서 뵈운것이 그날이야. 수령님께서서는 환히 웃으시며 환영나온 사람들에게 손을 저어주시었지. 나는 어른들처럼 만세를 부르지 못했어. 어머니가 쥐여준 공화국기발도 흔들지 못했구. 입이 열리지 않았어.》

차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이며 웃으시는 눈매며 손저으시는 모습, 어떻게 하나 아버지원수님을 눈여겨보고싶은 생각뿐이었지.

수령님께서 나에게 눈길을 돌리시지 않겠나.

아마 내가 아이였던때문인지...

〈야! 원수님께서 나를 보시는구나.〉

그때의 감정을 이 세상 그 어느 문장가도 표현할수 없을것 같애. 모든 일은 순간이었지.

수령님께서 타신 차는 꽃물결속에 묻혀 사라졌어. 다시는 내앞에 안오실듯. 나는 동쪽에 올랐지.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풀썩 주저앉았어. 글썽 공원의 버드나무숲이 장벽처럼 앞을 가리지 않겠니. 그런데 수령님께서 타신 차는 어느새 대동교를 건너고있지 않겠나.》...

수령님을 멀리에서 바라운 나는 동쪽의 잔디우에서 두르르 굴러내렸다. 이것은 강가까이에 있는 우리 유치원 아이들에게서 가장 몸에 배인 동작이었다.

저녁노을이 빨갛게 물든 때 환영대렬에서 없어진 나를 찾아 어머니는 잔디에 발목을 묻으며 동쪽으로 올라섰다.

어머니는 내곁에 앉아 파랗파랗 풀잎이 짓이겨진 흰 무명옷을 털어주고 혼자소리로 말하였다.

《이 잔디밭이 길이었더라면...》

그리고는 대동강너머 불타는 노을을 점도록 바라보고있었다.

이렇게 돌이켜지는 그 시절은 어느 한쪽도 물이 남은데가 없고 그 어느 귀퉁이도 떨어져나간데가 없다.

우리 어머니가 대동강자갈을 소랭이에 이고와 짊어놓은 길로 수령님께서 지나가셨다는 그 자랑은 그때나 오늘이나 나의 가슴속에 가득하다.

그러나 그때 어머니의 모습은 곁에서 따라다니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가리워 찾기가 어려웠었다.

당시에는 동평양지구에 제일 좋은 길로 되었던 그 자갈길에 나의 어머니가 쏟은것은 너무도 작은 것이였다. 하지만 처음 뵈옵던 수령님의 영상과 함께 나의 어린 마음속에 간직되였던 그 자랑은 어른이 된 지금에도 이렇게 여전한것이 아닌가.

그러나 오늘은 그 자랑만이 가슴속에 간직되어있지 않다. 이 잔디위에 앉으니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못견디게 우리 마음 아프게 하기때문이다.

나는 후에 이 잔디우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 잔디위에 앉으면 어버이수령님의 생각이 더 나거든. 여기서 바라보이는 수도의 저 모든것이 다 나에게 이런 추억을 불러주니 말일세.

잔디는 언제나 수령님 사랑속에 살아온 나의 삶을 그리고 복구건설시기 우리의 부모들처럼 조국을 위해 자기를 바칠줄 안 우리 세대의 그 나날들을 되새겨주거든...》

나는 다시 또 잔디를 쓸어본다.

가출가출한 잎에 얼굴을 비벼본다.

정말 이 잔디에 끝없는 사랑이 간다.

이 잔디에 앉으면 어버이수령님을 더 그렇게 추

억하게 될것이다. 그리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손길아래 웅장하게 일떠선 평양의 모습을 바라보며 조국에 대한 사랑이 더욱 뜨거워질것이다.

대동강 한복판에서는 대형분수가 가을바람에 조세트폭같이 하얗게 솟아 휘날린다.

오늘의 모든 사연을 안은 분수의 물안개는 나의 두불을 산뜻히 추겨주며 누렇한 잔디의 잎잎에 스며배인다.

옥류교를 달리는 승용차들의 부드러운 소음이며 인민대학습당의 푸른 지붕밑에서 은은하게 울려오는 종소리도 이 잔디는 후날 나에게 되새겨줄것이다.

수령님께서 그 나날에 전쟁을 이기시고 다시 꾸려주신 인민의 세상에 김정일장군님께서 제국주의 련합세력을 타승하시며 일떠세우신 우리 강국의 한 부분에 포근히 덮인 이 잔디에서 나는 앞날에도 오늘의 모습을 보게 될것이다. 그리고 언제나 이 잔디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될것이다.

나는 생물체의 생태학적론리를 벗어나 나의 벗인 잔디를 두고 이렇게 말하고싶다.

잔디는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이 땅이 소중한 이 땅을 덮고있는것이라고.

하늘에 활개를 저으며 환희롭게 숨은 쉬는 저 백양나무처럼 그리고 고운 비에 머리감고 강바람에 휘휘 머리채를 날리는 저 버드나무처럼 제 모습만 자랑하면 이 땅은 그 무엇이 부드럽게 감싸주랴.

잔디야, 이 땅을 포근히 덮은 잔디야.

너의 품에 한껏 누워서 높은 하늘에 닳털처럼 떠가는 구름조각을 바라보며 너를 끝없이 애무하고싶구나.

그저 너 없이는 우리 수령님의 불멸의 사랑이 꽃피고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력사가 년륜을 새기는 우리의 조국이 더 아름답지 못할것만 같은 생각에, 너 없으면 부드러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줄 조국의 손길이 또 하나 없을것만같은 그 한 생각에 나는 너를 두고 생각도 깊어진다.

잔디, 사랑하는 내 조국의 아름다운 자연아!